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지 못한다.
원망을 떠나야 원망을 풀 수 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8월 13일)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비지정 사찰 문화재 보존 활성화되나

문화재 예산 1조원 시대, 불교계 영향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관련 국가 예산이 1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지나 비지정 사찰 문화재 보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도 예산·기금 정부안을 올해 예산인 9,008억 원보다 18.1%(1,628억 원) 증액한 1조 63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 예산이자 최대 비율 증액이다. 문화재 예산이 최대 증액편성이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청이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문화재청이 중점 투자할 것을 밝힌 분야 중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비지정문화재 보호사업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지난 6월 개청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문화유산 미래정책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중점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현재의 지정 위주의 문화재 관리가 아닌 목록주의적 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

정재석 문화재청장 역시 지난 8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내년 문화재청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불교와 사찰 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에 더 많은 예산 반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내년부터 전국 228개 지자체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와 DB 관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 중이다.

또한 △첨단 기술을 문화재 보존·방재에 활용 △무형문화재 보호 지원 확대 △문화재 활용사업 확대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관리 강화 등을 계획으로 내놨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원 여력이 부족하였던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의 기반 마련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성과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2020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화재 국가 예산 증액 편성에 불교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당장 비지정문화재 관리 부문에서 불교계 폐사지 조사와 다량 유물 소장처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신유철 조계종 문화부 팀장은 "다량 유물 소장처에는 성보박물관과 문중 유물전시관이 포함돼 있다. 전체 소장처의 80%에 해당되는 만큼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불교계 다량 유물 소장처의 관리 체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의 문화재 예산 분석과 국가 정책 대응도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불교 관련 문화재 예산을 분석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유철 팀장은 "현재까지는 불교 문화재 예산 규모나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이 안됐지만, 면밀한 조사할 계획"이라며 "개별 지원보다 전체적인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 정책이 5년마다 새로 수립된다. 당장 2021년에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에 불교계의 정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 스님은 "문화재 예산의 1조원 시대 개막은 축하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궁과 능에 대한 예산 비율이 높다. 불교 관련 문화재 예산 편성과 반영·집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꾸준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 내년 예산 1조원
올해보다 18% 증액 편성돼
비지정문화재 포괄 등 중점

불교계 대량 유물 소장처 등
사찰 문화재 관리에 '청신호'

조계종, 예산 증액 '환영' 입장
"불교 예산 규모·사용처 조사해
향후 국가 정책 반영 나설 것"



금산사 성보 첫 서울나들이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9월 3일 오후 3시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2019 특별전 '모악산 금산사–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의 개막식을 개최하고 11월 30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금산사의 성보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되는 이번 전시는 118점의 성보문화재를 전시한다. 개막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우측서 두번째)이 불주사 목조아타여래좌상(조선 1666, 전북유형문화재 제194호)과 불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조선 1647, 전북유형문화재 제193호) 앞에서 합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불교중앙박물관 홍보대사 배우 이원종, 금곡 스님, 김종회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글·사진=박재완 기자

이각범 불교진흥원 이사장 끝내 사임

8월 29일 사표… BBS사장후보 추천 논란 책임진 듯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각범 이사장〈사진〉이 8월 29일자로 사임했다. 이 이사장은 개인수행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앞서 논란이 된 BBS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불교진흥원에 따르면 이각범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불교적인 가치의 전파를 추구하는 데 평소 개인적인 수행이 부족해 더욱 정진하기 위해 떠난다"는 취지로 사무국에 이사장과 이사직에 대한 사표를 제출했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 14일까지였다. 그는 또한 앞서 자신이 출연 중이던 BBS불교방송 라디오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도 물러났다.

이에 진흥원 이사회는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이 이사장의 사임을 확인했다. 다만 이사회는 이 이사장의 사임 배경을 BBS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거진 파행 논란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사장의 궐위에 따라 직무대행은 가장 연장자인 김규칠 이사가 정관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차기 이사장 선임은 BBS불교방송의 사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처리 후 신임이사 선출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이사장은 이각범 이사장의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 3년 임기를 수행한다.

한편 이각범 이사장은 BBS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 당시 관례인 사장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또한 이 이사장은 지난 7월 3일 해명 기자간담회서도 BBS 선상신 前사장에게 두터운 신임을 보이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정성 결여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신임 교육원장 진우 스님 추천

총무원장 원행 스님, 9월 4일 추천서 접수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으로 불교신문사장 진우 스님〈사진〉이 추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4일 진우 스님에 대한 교육원장 추천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교육원장은 지난달 현응 스님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해인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9월 19일 개원하는 제216회 임시회에 앞서 자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종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다.

진우 스님은 백운 스님을 은사로 1978년 수계했다. 고불총림선원, 용흥사 몽성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사서실장·호법부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신문사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독자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다음 주 신문 휴간합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후보 육문스님의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서

전국에서 막대한 원력으로 소임에 진력을 다하시는 비구니스님께 불보살님의 가피를 기원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게, 논리 정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법을 설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연기법이며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 정연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2600년이 지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연기법의 논리체계위에 견고하게 구축되었기에 21세기 이 시대 보편적 지성과 눈부신 자연과학의 성과에도 배치되지 않는 영원한 진리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비구니회장 선거에 등장하는 공약, 청사진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대한불교조계종단의 정책을 뛰어넘는 불교 최대의 종단이 새로 만들어질 기세입니다. 이쯤에서 부끄럽지만 전국비구니회는 운영할 수 있는 자산과 예산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전국비구니회의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미래의 희망찬 공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미래의 청사진은 집행할 예산이 없어 공허한 토끼의 뿔과 거북이의 털처럼 비현실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정책 제시는 마땅히 그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과 재원의 확보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담벼락 너머로 뿔이 보이면 소가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산 너머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산불이 났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을 실행할 구체적방법과 재원의 조달방법을 말하지 않는 공약은 대중들에게 의구심을 일으키고 미래의 희망이라는 속임수로 미혹시키는 희론에 불과합니다.
육문스님이 구상하는 차기 운영계획은 실천 가능한 정책과 사업의 재원마련에 거짓과 속임수로 대중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계종 사업부와 연계하여 사찰의 달력 제작 판매 사업, 카페메따 운영 사업과 같은 다양한 수익 증대사업을 늘리고 전국비구니스님들의 의료와 복지, 교육의 혜택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으로 전국비구니회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2017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비구니회 제반 사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입원수술 의료비지원을 증액 할 것입니다. 또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Kumuda)의 비구니승가 교육비지원으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개설하는 교육연수를 무료로 실시하는 실천가능한 정책들을 시행할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자산과 예산의 벽에 막혀 역량있는 비구니스님들을 외국유학을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과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의료, 복지, 교육 혜택을 전국비구니회에 소속된 원로스님부터 새로 출가한 사미니스님들까지 한분한분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들로 전국비구니회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전국비구니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재원마련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육문스님의 실천 가능한 정책들에 지지와 성원의 힘을 보태며, 지혜 있는 대중스님들의 정견도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해인사약수암 예산보덕사 속리산수정암 월정사지장암 김천총지사 해인사자비원 부산보덕사 윤필암 운문사 청암사 동학사 경주감산사 개선사 금강사 길상원 관음사 광명사 광림사 광원사 광주흥용사 구미천해사 구현선원 극락암 금곡사 금당선원 금련사 금륜사 금선사 금천선원 남화사 내원사 능인사 능인선원 다보사 대광사 대구감로사 대성암 대승사 대운사 대원사 대원정사 대전석왕사 덕수암 덕암사 도덕정사 두륜사 마하연사 명법사 명성암 묘심사 묘법사 묘희원 무애사 무위사 무위선원 무주사 문수사 문수암 미륵암 미타사 백운사 백흥암 반야선원 방생선원 반야암 법계사 법등사 법륜사 법성사 법융사 법정사 법제사 법주사 법천사 보광사 보명사 보문사 보성사 보은사 보장사 보탑사 보현정사 보혜사 복천사 봉림사 봉성암 봉은암 부곡암 부산관음정사 불국사 비응사 빛고운절 삼보사 삼천사 상선암 서운암 서울금강사 서학사 석남사 석불사 선원사 선정사 석계암 성덕사 성덕암 성심사 세등선원 소림사 송남사 송원사 수덕사견성암 수덕사극락암 수도사 수미정사 수월암 수효사 신녕포교당 신흥사 심불사 아리정사 안덕사 안양암 약사사 안심사 약천사 연수암 연화사 영덕사 영선사 영원사 영은사 영통사 영천사 오봉사 옥련선원 용주사 용천사 용해선원 용화사 원각사 원만사 원명사 원해사 월곡사 유점사 의성정수사 인천진운사 자광사 자룡사 자비사 자재정사 전법사 정암사 정토법당 정혜사 제주관음정사 지장사 진관사 통일정사 천장복사 천태암 청계사 청련사 청림사 청수암 초암사 충효사 칠성사 평화사 학림사 해인사금강굴 해인사보현암 한마음선원 향림사 행복선원 현정사 혜광사 혜명사 혜문사 호명사 화원사 홍은사 황룡사 효심사 휴심정사 흥법사

제12대 전국비구니회 회장후보 육문스님의 정책을 지지하는 대중일동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 사실상 당선

경쟁후보 성일 스님 사퇴… 9월 6일 산중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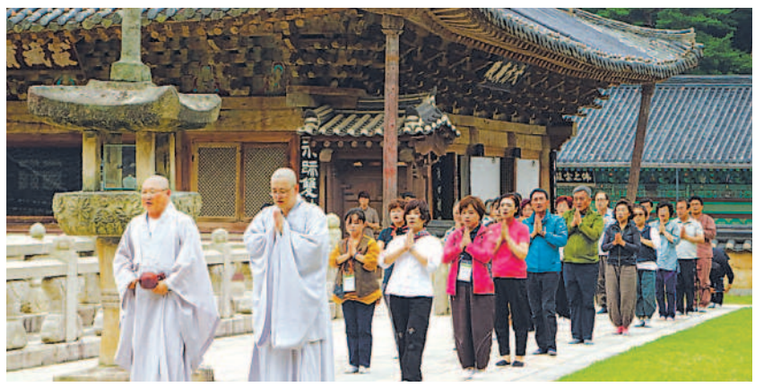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차기주지 선거에서 후보 성일 스님이 사퇴하면서 초격 스님〈사진〉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는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회의를 열어 봉선사 주지후보로 나선 성일 스님의 사퇴를 확인하고, 초격 스님의 자격심사결과 이상 없음을 결정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성일 스님은 2일 후보사퇴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초격 스님은 9월 6일 열리는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에서 성원과 관계없이 무투표 당선된다.〈차호상보〉 선관위는 아울러 일부 자격이상자를 제외하고 산중총회 구성원 명부를 확정했다.

한편 초격 스님은 경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봉선사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과 총무원장 종책특보, 파주 보광사 주지, 제13~17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삼보일배를 하는 연수 참가자들.

포교원 2019수행바라미 3차 연수

'염불' 주제로 1박2일간 보리암 · 통도사 순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진행하는 '2019 수행바라미 3차 정진 연수' 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남해 보리암과 양산 통도사서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는 △경제인불자연합회 △조계종산악회 △수협불자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한공무원불자연합회 △체육인불자연합회 △예비역불자연합회 등 11개 단체의 실무자 36명이 참가했다.

보리암에 도착한 동참자들은 입재식을 봉행한 후 △108염주 만들기 △저녁예불 △우리말금강경독송(3독) △철야정진 △새벽예불까지 염불수행을 이어나갔다.

연수는 이튿날 통도사 적멸보궁 사리탑에서의 3보 1배 수행정진으로 마무리됐다.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90분 동안 사리탑을 참배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대중 의견 받아 사업 마련

9월 30일까지 사업제안 접수

조계종이 사부대중의 의견을 주요 종단사업으로 채택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최근 홈페이지에 '조계종 종도 사업제안 제도'의 취지와 계획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종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기존사업 이외에 새롭게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고,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종단사업으로 채택하는 제도다. 9월 30일 오후 5시까지 종단 스님과 재가신도들이 사업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총무원 기획실(우편 ·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채택된 제안사업은 해당 부처의 중앙종무기관 종무에 반영해 시행되며, 종법에 위반되거나 종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다. (02)2011-1730

윤호섭 기자

'불편한 동거' 태고종… 입장 차 여전

호명 스님 측 청사 진입, 편백운 스님과 대화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9월 2일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호명 스님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9월 1일 서울 사간동 총무원 청사에 들어가면서 제26대 총무원장인 편백운 스님과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두 스님은 여러 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의 입장을 밝혔지만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채 사회법 결과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모양새다.

먼저 호명 스님은 9월 2일 태고종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총무원사 진입 후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호명 스님 측에 따르면 제27대 집행부는 9월 1일 총무원사에서 열린 법회가 끝난 뒤 신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스님들이 진입했다. 당시 편백운 스님 측은 청사를 비워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명 스님은 "그동안 임시총무원에서 업무를 보다 집행부로부터 편백운 스님 측과 물리적 충돌 없이 청사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종단 안정이 최우선이다. 전국 종무원장스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한 관계자는 "편백운 스님이 과거의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총무원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종무원장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도, 협상의 가능성은 열어둔 채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종단의 명예와 종도들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편백운 스님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대방과의 대화는 필요하겠지만 무리한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무원장들, 호명 스님에 종단 안정 최우선 노력 당부
편백운 스님 직선제 도입 전제 직책서 물러나겠다는 뜻 밝혀

이에 호명 스님은 "27대 집행부의 정상적인 행정업무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야 가능할 것 같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국 종무원에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한다. 당분간 총무원사 내에서도 양분된 형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후 회의서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전국종무원장협의회장 명의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직위 사칭 등 해종행위로 간주 △불법적으로 허비한 종단 재정과 발전기금 환수 △한국불교신문의 명예훼손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종단은 그동안 중단된 각종 종무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대내외적인 신뢰회복을 위해 참회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26대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전국종무원장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호명 스님 측을 향해 불법침입 ·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편백운 스님은 "상대방에게 과거 일을 묻어두면 물러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앞서 내년 1월 민주적인 직선제를 도입할 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직도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인재양성 · 복지 · 위상강화 '한 목소리'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후보 선거공약 살펴보니 대동소이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선거가 9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후보로 등록한 기호1번 현 회장 육문 스님과 기호2번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인재양성과 복지확대 등에 방점을 찍어 대동소이한 인상을 남겼다. 이에 각 후보들의 공약을 키워드별로 비교했다.

두 후보가 대표적으로 강조한 공약은 '복지확대' 다. 육문 스님은 비구니 전용 복지요양원 설립을 추진하고, 각 지역 불교요양원을 연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의료비 지원과 건강검진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비구니회관 객식을 재정비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노후수행시설을 건립하고, 위탁운영하며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종단 승려복지회와 협력해 장기 복지플랜을 수립하고, 여성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호 1번〉



육문 스님 공약
- 비구니 위상강화
- 복지제도 확대
- 수행전법 지원
- 인재양성 교육

〈기호 2번〉



본각 스님 공약
- 복지체계 구축
- 인재육성 활용
- 비구니회 소통
- 사회문제 대처

'인재양성' 과 관련해 육문 스님은 △연수교육 무료 실시 △템플스테이 · 호스피스 전문가과정 정기교육 △장학사업 확대 △비구니 그룹스터디 지원 △국제적 전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조했다. 반면 본각 스님은 비구니 단기 해외어학과 장기유학 프로그램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와 함께 포교활동 자료 발간과 종단 입법 · 행정분야 교육과정 신설, 초심행자와 사미니 교육환경 개선을 인재양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국비구니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두 후보가 서로 다른 접근법을 구상하고 있다. 육문 스님은 주로 종단현안과 관련된 개선안을 발표했다. 스님은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돼온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으로 발생 가능한 비구니 권리제한 등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앙종무기관과 종립학교, 복지기관 등의 비구니 소임 확대 의지도 밝혔다.

본각 스님은 대사회적 사안 대처와 세계화 등을 중심으로 위상강화를 계획했다. 본각 스님은 양극화, 인권 등 문제에서 비구니 역할을 모색하고, 종단 백년대계본부 · 사회노동위원회와의 업무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단체 활동을 장려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을 제시하면서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육문 스님은 "지난 4년은 원로스님부터 사미니스님까지 부족함 없이 두루 살피고자 노력했다"며 "아직 전국비구니회는 이부승가의 위치로 자리매김 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앞으로 종단과 긴밀한 협조로 전국비구니회가 종단의 견고한 한쪽 날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각 스님은 "비구니 모두가 승가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싶다. 아이디어가 효율적으로 수렴되고, 민주적이고 개방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다"며 "스님 각자 갖고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비구니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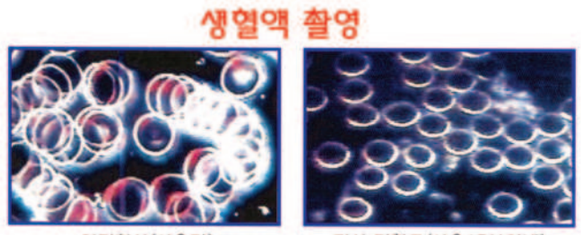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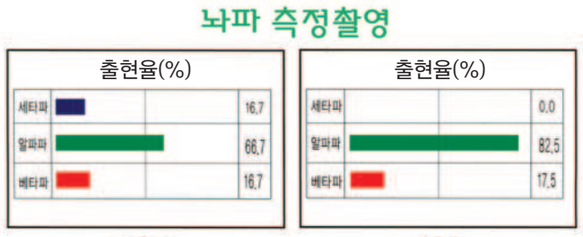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월호 침몰사고 잊지 않은 동국대

4.16청년희망순례 동참…
故최혜정 교사 추모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동국대 동문인 故 최혜정 교사 추모비 앞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을 구조하다 순직한 최 교사의 희생을 기리는 동국대 관계자들.

지난 5월 동국대 교양수업 강의 중 겸임교수인 A스님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동국대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해당 사고를 잊지 않고자 4.16청년희망순례에 동참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9월 4일 사범대학림관 앞에 조성된 동문 故최혜정 교사 추모비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제자들의 구조를 돕다 순직한 최 교사의 희생을 기렸다. 이 자리에는 윤재웅 사범대학장을 비롯해 지창규 불교대 교수, 교양강의 교수 덕림 스님, 김상애 불교대 교학팀장, 김종헌 총학생회장, 최호진 교무학생지원팀장, 박기련 법인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윤재웅 사범대학장은 "최혜정 동문은 2013년 역사교육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단원고에 부임해 참 스승의 본보기가 됐다. 그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동국인들의 자부심"이라며 "최 동문의 추모비에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유하고, 많은 분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4.16청년희망순례에 동참키로 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최 동문 추모비 앞에서 묵념과 헌화하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 실상사 생명평화대학 청년들이 진행 중인 4.16청년희망순례에 동참하기 위해 서산시 중왕리로 이동, 순례에 동참했다.

생명평화대학은 세월호의 이동경로였던 인천에서 진도 팽목항까지 2015년부터 매년 평화순례를 이어가며, 대중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도록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순례대중은 여우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도 진충사에서 출발해 해안가를 돌며 1시간가량 순례길을 걸었다.

순례를 마친 뒤 김종헌 동국대 총학생회장은 앞서 세월호 발언 논란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는 일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종헌 학생회장은 "세월호를 항상 잊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실천방법을 알게 됐다"며 "세월호 발언 논란에 학교 측이 해당교수 해촉 등 빠른 결단을 내려 다행이었다. 특히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는 향후 수업 중 수업과 무관한 비교육적 발언을 한 교원을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앞선 논란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최호진 교무학생지원팀장은 "1학기 수업 중 발생한 발언 논란에 학교는 깊이 반성하고,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학생회와 연대해 신고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교수 전체회의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24일 인천에서 출발한 4.16청년희망순례는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생명평화대학생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활동가 등 15명이 참여하며, 올해는 인천 소래포구에서 태안 몽산포해수욕장까지 약 284㎞를 순례한다.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9월 30일까지 공모

조계종이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작품을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TV · 라디오 · 신문 · 뉴미디어 · 특별상 · 불교언론인상이다. 불교언론인상은 불교언론인 중 공로가 있는 원로 언론인을 선정한다. 또한 특별상은 방송, 신문,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광고, 미디어교육 등 기타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한 작품 또는 사람을 시상한다.

상금은 대상 1000만원, 각 부문별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불교언론인상 300만원, 특별상 200만원이다. 출품 대상은 2018년 11월 10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며, 응모는 응모사유서를 통한 직접 응모와 언론 및 불교관련 분야 전문인사의 추천을 받는 추천응모로 나뉜다. 응모사유서와 추천서는 별도 양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기본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우편 외 이메일(media@buddhism.or.kr)로 추가 전송해야 한다.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하며, 시상식은 11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02)2011-1770 윤호섭 기자

추석맞이 불교계 자비나눔 활발

조계사 · 해운정사 등 소외계층에 생필품 전달

자비나눔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한가위다. 추석을 앞두고 불교계 자비나눔행이 활발하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8월 30일 '함께하는 마음, 나누는 기쁨 추석맞이 햅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종로구청에 햅쌀을 전달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햅쌀 5kg과 수건, 비누 등 생필품을 종로구 내 쪽방주민 150명과 고시촌 주민 100명, 종로구 산하 17개동 500가구에 전달된다. 종로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된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 조계종 종정)와 조계종 진제선세계화회(이사장 능혜)는 8월 30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제7회 세자녀 장학금 전달법회' 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세 자녀를 둔 가정 100세대에 각 50만원씩 총 5000만원이 전달됐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9월 3일 속초시노인복지관 광장에서 관내 저소득계층 450세대에 총 504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는 '제34회 자비나누기=행복더하기' 행사를 열고 속초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450세대에 농협상품권과 쌀 1포대, 한과 1박스 등 총 5040만원 상당의 추석맞이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또 계룡 무상사(주지 대봉)도 충남시청에 김 100박스 등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사찰들의 활동과 함께 재가불자들의 자비보시행도 활발히 진행됐다. 박수관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회장은 추석을 맞아 9월 4일 부산진구청(구청장 서은숙)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쌀 10kg 1000포를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자살, 명상으로 방지한다

불교상담개발원, 문체부 프로젝트로 명상 운영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이 2019년 생명존중 · 자살예방 '몸 · 마음 · 쉼' 프로젝트 일환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차 명상을 활용한 집단상담' △부정적 반추의 전환을 통한 자살예방 명상 △오늘, 인생 1일차 △꿈알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들이다. '차 명상을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은 게이트 키퍼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오감 차명상, 관불세심, 별처럼 듣기 등을 진행한다.

'부정적 반추의 전환을 통한 자살예방 명상 프로그램' 은 우울증 위험군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집중호흡, 긍정적 감각 알아차리기 방법으로 진행한다. '오늘, 인생 1일차' 는 자살유가족 및 위험군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마다 호흡명상, 인생그래프 그리기, 생애사건 기억 애도하기 등이 진행된다.

'꿈알' 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마다 숲의 생명체와 교감 등을 내용으로 하여 진행한다. 02)737-8802 노덕현 기자

지상중계 대한민국 명상포럼

"AI시대, 명상이 인류 구원"

킴킴(Kim Kim)의 '빅데이터와 不二'



현대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빅데이터는 불교의 불이사상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빅데이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타겟(Target)이라는 백화점에서 신생아 물품 할인쿠폰을 임산부인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한 아버지가 "우리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왜 이런 쿠폰을 보내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항의를 받은 고객의 이름을 명단에서 제외했죠. 그런데 얼마 뒤 백화점에 항의한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딸과 얘기해보니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백화점이 부모보다 먼저 한 여성의 임신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백화점은 임산부들의 과거 쇼핑 목록을 AI로 분석했습니다. 출산 3 · 6 · 9개월 전 임산부 고객의 쇼핑패턴을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여성의 쇼핑패턴도 여기에 포함돼 쿠폰을 보낸 것입니다. 그해 이 백화점은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큰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합니다. 빅데이터는 이처럼 수집-분석-관찰을 반복으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알파고처럼 프로그램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발전시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말미암아 프로그램' 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A로 말미암아 B가 일어나고, B로 말미암아 C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인간의 몸은 지구가 생겨난 이후 35억년 동안 빅데이터를 구축해 유전돼왔습니다. 그런 빅데이터 역할 때문에 우리가 바나나를 먹으면 그 바나나는 인간의 몸이 된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 땀샘을 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구축된 유전자 정보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빅데이터가 좌지우지하는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서에 집중하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식욕이 일어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응(react)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몸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 대처(respond)가 가능하도록 지금 여기 깨어있어야 합니다. 삶의 무게중심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영역' 에서 '앎을 보는 영역' 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명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경험하는 세상' 에서 '경험을 보는 세상' 으로 이끌어줍니다.

불이(不二)의 체험은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가령, 꽃 한 송이가 있다고 하죠. 우선 우리는 꽃을 향해 눈빛을 돌려 꽃이란 걸 알게 됩니다. 이때 그 '아는 놈' 에게 눈빛을 돌리는 겁니다. 밖으로 향한 내 눈빛을 안으로 거둬들이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대상이 주체가 되고 주체가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에르빈 슈뢰딩거는 "우주 전체에 마음(앎)은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톤은 "마음이 DNA영역 위에 군림한다"고 말했죠. 명상은 떠나지 않은 고향, 즉 피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하고, AI시대의 확립이 굳어진다면 우리는 남는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절약된 시간을 영성의 길로 갈지, 낭비해 멸망의 길로 갈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키우기 위해 명상을 해야만 합니다.

정리=윤호섭 기자

▲킴킴(Kim Kim)은?

강원도에서 태어나 미국 워싱턴주립대에서 컴퓨터 · 수학 · 언어학 · 전산언어학 등을 전공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사 후 현재 인공지능 클라우드 파트에서 수석그룹장을 맡고 있다.

운문인이라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운문사에서 선후배 스님들을 모시고
총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무루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시길 청합니다.

제48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일시_ 불기2563(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2시(음8.25)

●장소_ 운문사 선열당

●안건_ • 모교 발전에 대한 건
• 회칙 변경 건(회장단 임기)
• 기타 안건

●전화_ 054-372-8800(운문사 종무소)
031-874-7007(동문회 회장)

※ 장학금 신청자는 9월 9일까지 운문사 종무소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진 합장

대선사 '선문답' 법회로 인식 대전환을…

삼보사 · 육지장사 9월 22일부터 대법회 입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무문관 공안 갖고 법석 마련
제방선원 유명 선사 법사로
질의응답 등 문답기회 제공


보광 스님 법산 스님 지원 스님 의정 스님 영진 스님 혜국 스님

〈선문답〉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서 출현한 선수행의 결과물이다. 이런 선문답에 대한 대담론이 불교계에서 펼쳐진다.

서울 삼보사와 양주 육지장사는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2019선문답 특별대법회를 개최한다.

대법회는 먼저 9월 22일 삼보사에서 해인사 보광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1칙인 조주구자를 주제로 열린다.

해인사 희랑대 조실 보광 스님은 바깥으로 드러난 적이 없는 해인사의 숨은 수행자로만 알려져 왔다. 17세에 동진출가한 스님은 해인강원 교수사와 해인사승가대학 대학장을 9년간 역임하며 대강백으로 20여년 동안 학승들을 가르쳤다. 이후 해인사 선방과 칠불사 선방 등 20안거를 성만하고 2000년 해인사 주지를 마지막으로 은거수행 중이었다.

두 번째 법회는 9월 29일 삼보사에서 통도사 법산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2칙인 백장야호를 주제로 열린다.

현재 동국대 이사장으로 있는 통도사 법산 스님은 15세에 남해 화방사서 출가해 동국대 인도철학과와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후 일찌감치 대만에 유학해 불교학을 연구했다. 1980년 대만 중국문화대 철학연구소서 공부한 후 1986년 동국대 선학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25년간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다. 법산 스님은 2006년 학자의 틀을 벗어 던지고 수좌의 길을 걸었다. 벽송사서 첫 안거 후 매년 하안거때면 늦깍이 수좌로 안거에 들었다. 스님의 법회는 수행과 학문의 성과가 함께 어우러지는 법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법회는 10월 6일 명사초청 특별대법회 형식으로 무문관 제3칙 구지수지를 주제로 열리며 네 번째 법회는 10월 13일 삼보사서 前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법사로 무문관 제4칙 호자무수를 주제로 열린다.

지원 스님은 40년 가까이 포교현장에서 전법 활동에 매진해 온 스님이다. 지원 스님은 1984년 어린이청소년 법회 개설을 시작으로 어머니합창단 등 불교계 문화포교를 이끌어 왔다. 1997년 양주 도리산 기슭에 육지장사를 창건하며 도심의 지친 현대인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스님은 현재도 대중포교와 생활 포교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다섯 번째 법회는 10월 20일 삼보사서 상원사 의정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5칙인 향엄상수를 주제로 진행된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의정 스님은 상원사 용문선원장을 맡아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은 운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인천 용화선원에 방부를 들인 젊은 시절 2~3년씩 밖에 나오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다. 이후 선원청규 간행 등 선방의 굵직한 일을 도맡아 했다. 간화선의 생생한 경지를 스님에게 듣고 답할 수 있는 기회다.

여섯 번째 법회는 10월 27일 삼보사에서 백담사 영진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6칙인 세존염화를 주제로 마련된다.

이날 법사로 나서는 영진 스님은 백담사 유나로 41년간 화두 하나를 들고 정진의 길을 걸어 왔다. 무문관 폐문 정진도 수년간 진행한 스님에게서 무문관 선수행의 요체를 접할 수 있다.

마지막 법회는 11월 3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석종사 혜국 대선사를 법사로 무문관 제7칙인 조주세발을 주제로 진행된다.

혜국 스님은 한국불교 대표적인 선승으로 해인사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젊은 시절 해인사서 10만배 정진 뒤 오른손 세 손가락을 연비하며 견성성불의 뜻을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성철 스님과 경봉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과 법거량을 한 스님의 높은 경지를 곁에서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다.

삼보사 측은 "수영이나 골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코치의 레슨을 받으면 실력이 향상되듯, 대선지식의 지도아래 실참(實參)하면 누구나 생각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다"며 "'인식을 대전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삼보사 (02)352-6406, 육지장사 (031)871-0101

원행 스님, 난치병어린이 쾌유 기원

종로구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 방문, 치료비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8월 30일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 · 다문화지원센터를 방문, 콩팥 내 희귀질환인 기텔만증후군을 앓고 있는 손민지(9) 양에게 치료비 1000만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손민지 양과 어머니 마리 씨에게 단주를 선물하며 "건강을 빨리 되찾아 훌륭한 사람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그러자 손 양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남을 돕는 어른이 되겠다"고 인사하며 원행 스님에게 감사 편지와 직접 그린 부처님 그림을 선물했다.

한편 이번 원행 스님의 방문은 지난 4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제19회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 모연된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재단은 총 1억 68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시설 추천을 받아 국내 18명, 라오스 7명의 환아에게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도 추석맞이 단장 추석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9월 4일 대웅전 삼존불을 비롯한 경내 전각에 대한 소제를 진행했다. 이날 소제법회에는 스님들을 비롯해 소임본부, 포교본부, 사회본부, 교육본부, 수행본부와 6개 지역본부의 신도회 대웅전관리팀, 포교사팀, 붓다맘봉사팀, 선림원 수행팀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불교문화재 우리 손으로 지킨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

서울 조계사가 불자 청년들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조계사는 9월 1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문화재 보호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지 지현 스님과 국장스님들, 조계사 불교학교 청소년 법회 30여 명 등 80여 명이 함께 했다.

조계사는 이번 발대식에 앞서 8월 9일 서울 종로구청과 문화재보호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조계사는 자체 문화재 보호단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격려사에서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인증제도 확립과 우리 문화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문화재 보존 정신을 일깨우는 데 조계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서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부촉장 전달식도 있었다. 행복나눔 가피 자원봉사단 문화재 지킴이 팀장은 관음정심명희 팀장이다. 이번 발대식에는 조계사 불교학교 청소년 법회 법우들도 참석했다. 불교문화재 지킴이로 부촉된 청소년 법회 법우들을 대표해서 김종연 학생이 부촉장을 받았다.

이어서 문화재 보호 활동에 임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문화재 지킴이 활동 선서가 조계사 불교학교 청소년 법회 김종연 학생의 선창으로 진행됐다.

선서를 마친 80여 명의 단원들은 집게와 봉지를 들고 조계사 일주문을 지나 불교대학, 수송공원, 우정총국에 이르는 거리의 쓰레기와 담배꽁초 등을 주으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창원(18세 고3)학생은 "유아법회 때부터 조계사에 다녔는데 조계사 주변과 우리 문화재를 청소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봉사소감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서울 강남서 피어나는 불교 다향(茶香)

봉은사 1225주년 개산대재 맞아 10월 3일 다향대전 개최

서울 강남 봉은사의 개산대재를 맞아 전국 다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3일 오전 11시 1225주년 개산대재를 기해 종루와 미륵광장에서 '봉은사 다향(茶香) 대전(전국 찻자리 경연대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향대전은 전국 사찰의 다도반 회원들과 불교와 유관한 차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다. 각 팀별로 찻자리를 준비해 여러 가지 준비한 차를 내방한 불자들과 시민들에게 대접한다.

이와 함께 녹차와 황차 등 한국차, 보이차, 청차, 백차, 흑차 등 중국차, 말차와 홍차 등 외국차, 꽃차 연차와 같은 대용차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대상 1팀에는 상금 200만원과 부상이, 최우수상 1팀은 상금 100만원이, 우수상 1팀은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까지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개별통보 된다.

봉은사 측은 "우리 차의 대중화와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2)3218-4835 노덕현 기자



키워드로 보는 Green Buddhism

3. EM 활용




2010년 제작돼 보급된 EM발효기.



한마음선원 어린이법회 아이들이 EM교육 후 EM발효액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EM 활용에 대한 불교계 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 ·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경사서 살수차를 이용해 EM발효액을 살포하고 있다.


정토회 서초법당서 진행되는 EM교육.

汚水를 淸水로, EM 활용은 '물 사랑'

〈오수〉 〈청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질오염 의외의 요인 '쌀뜨물'

2019년 3월 22일 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을 맞아 우리나라 환경단체, 기업 및 시민봉사자 등 각계각층이 모여 환경행사를 진행했다. 이중 가장 화제가 된 것이 있다. 바로 하천바닥의 오염 퇴적층 제거와 수질정화를 위해 하천에 EM흙공을 던진 것이었다.

이날 하천에 뿌려진 EM은 무엇일까? EM은 유용한 미생물군(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자로 인체와 환경에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주로 쌀뜨물을 발효시켜 EM활성액을 만들어 활용한다. 탁월한 항산화력에 더해 최근에는 수질오염 저감 효과도 보고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하천정화를 위해 EM을 활용 중이다.

발효로 EM되면 정화효과 생겨

우리가 하수구에 버리는 쌀뜨물은 사실 수질오염의 주범이다. 쌀의 주성분인 녹말은 분해되며 산소를 소모하고 이에 따라서 쌀뜨물이 하천에 방류되면 물 속 산소가 급격히 줄어 생물이 살기 힘들어진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보면 쌀뜨물의 경우 BOD가 3000ppm에 달한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가 보통 5ppm이니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불교에서 물은 생명의 상징이다. 법수(法水)를 뿌리거나 천수다라니를 염송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삼독을 씻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의미다. 하지만 물의 중요성에도 사찰에서는 아직까지 오수를 그대로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불교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의 과보가 더 크고 무겁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계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이를 위해 계정혜 삼학이 강조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으키는 수질오염을 막고 오히려 수질정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M이다.

EM전법 나선 사찰과 스님들

다행이 불교계에서는 최근 몇몇 사찰을 중심으로 EM에 대한 교육과 보급에 한창이다. 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이다.

한마음선원 대중이 EM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3년 4월 제주지원에서 쓰레기 수거 문제로 악취와 벌레들이 발생하면서부터다. 당시 제주지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제주지역에서 EM환경운동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제주의 한 생활연구소 도움으로 EM발효액을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거짓말처럼 말끔히 해결된 쓰레기 문제 이후 한마음선원은 EM의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4년부터 쌀뜨물을 이용한 EM발효액 제작을 시작했고, 플라스틱 드럼통에 온도계 등을 장착한 발효통을 스님들이 직접 개발했다.

현재 안양본원, 포항, 대구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한마음선원 지원 15곳에서 EM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EM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다. 사찰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다.

한마음선원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전국지원에서 정기법회 후 발효액 만들기 체험학습과 발효액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어린이법회와 청년회 등을 통해 청년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마음선원은 자체적인 EM활동을 넘어 초등학교 등 외부에서도 EM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EM쌀뜨물발효기를 개발해 각 사찰에 보급함과 동시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울산 정토사, 서울 난곡사 등 40여 사찰에 EM발효기와 EM제품을 보급하고 대구 내서초등학교, 부산 평화의집 등 총 70여 곳에서 EM관련 환경교육과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한마음선원 포항지원장 혜문 스님은 "사찰에서 무료로 기기를 보급해왔지만 최근에는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사찰이 늘고 있다"며 "문제는 아직까지도 불교계의 EM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부 인식이 있는 스님들은 열정적으로 EM을 활용하는 한편, 모르는 스님들은 관심조차 없다"고 말했다.

> 무심코 버리는 일상 속 쌀뜨물
> 산소 감소 촉발, 생물 생존 저해
> 발효시키면 수질 정화 활용
>
> 사찰 쌀뜨물을 EM으로 전환
> 한마음선원 · 정토회 활용 앞장
> 승려 · 주지 연수 교육 도입 등
> 범불교적 인식 개선 필요해

한마음선원은 그동안 진행해 오던 EM관련 활동을 배가하고자 2018년 4월에는 비영리 환경단체인 'EM지구사랑작은실천'을 발족했다.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EM지구사랑작은실천은 그해 7월 조계종 교육원이 지원하는 전법교화활동단체(승가결사체)로 선정됐으며 올해 9월 3일에는 우수 승가결사체 자격으로 처음으로 승려연수교육에서 EM실천운동을 소개했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 혜눌 스님은 "EM은 우리가 먹는 밥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고, 활성액을 활용해 다른 환경대중 생활이 많은 교구본사나 대형사찰의 경우 오폐수 발생이 많기 때문에 EM의 활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M으로 오수(汚水) 재활용 운동

한마음선원과 함께 발 빠르게 EM을 통한 환경보호를 사회에까지 전하고 있는 곳은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다. 정토회는 산하 환경기구 에코붓다를 통해 2010년부터 EM교육과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코붓다의 경우 외부업체의 도움으로 매주 한 차례씩 정기법회 후 교육을 진행, EM발효액을 만들어 무료배포 하고 있다. 서초법당을 찾는 이는 200여 명 수준으로 EM배포 시에는 일반 시민들도 법당을 찾는다.

김희선 정토회 서초법당 환경팀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버리던 물에 대해 불자대중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단 점"이라며 "쓰레기의 원 의미는 쓰다 남은 것으로 다시 쓰거나 재활용됨을 의미한다. 환경을 위해 우리가 삶 곳곳을 살핀다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대부분이 재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M활용은 이런 환경운동, 의식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EM발효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스님도 있다. 포항 보경사 주지 철산 스님이다. 수익사업으로 조청 생산을 하는 보경사는 15년 전부터 조청 생산 후에 잔여물 처리로 골치를 앓아왔다. 그러던 중 EM발효액을 만들면 조청 잔여물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EM발효액 생산을 시작했다. 철산 스님이 대승사 선원에 있을 당시 주변 스님들의 추천으로 EM발효액을 청소 등에 사용해 그 효과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문제는 신도들이 모두 배분 받아도 남을 만한 EM발효액이 나온다는 점. 약 8톤 가량의 조청을 만들면 3톤 가량의 EM발효액이 생산된다. 스님은 결국 1500만원을 들여 아예 살수차를 구매했다.

철산 스님은 "지자체나 학교 등 필요한 곳이면 차를 가져가 뿌리고 있다. 특히 연못 정화, 하수구 청소하는 곳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높은 EM인식, 불교계는?

현재 EM발효액을 만들거나 EM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위봉사, 망월사, 용주사, 범어사, 해운정사, 파계사, 상원사, 고운사 등 30여 곳이다. 전국 사찰이 50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사찰이 EM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사회에서 10여 년 전부터 EM열풍이 불었고 비누 등 다양한 제품까지 개발된 것과 대조적이다. EM활용을 불교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인식개선이 선결과제다.

최근 EM사용을 시작한 오대산 상원사의 해량 스님은 "대중생활이 많은 선원 수좌 스님들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삶의 차원에서 EM 활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발효기를 들여놓은 이유"라고 전했다.

부산 해운정사 재무국장 도원 스님도 "2010년 EM제품 사용을 결정할 때 종정 스님께서 '그런 좋은 의미가 있으면 바로 하라' 고 하셔서 진행하게 됐다. EM활용은 대중이 마음 먹으면 바로 실행 가능한 부분"이라며 불교계의 각성을 당부했다.

EM지구사랑작은실천 혜눌 스님은 "관심이 있는 스님들이 많지만 소임을 마친 후 자리를 옮기면 그동안 진행해오던 것이 무산되는 경향이 있다. 주지연수와 승려연수교육에서 환경교육, 그리고 EM활용 등을 교육해 전반적인 인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현재 EM활용은 일부 사찰을 빼곤, 사찰 단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한계"라며 "그동안 불교환경분야에서도 캠페인 전개 등이 미약했던 만큼 범불교적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정 대행 :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사서실장 : 천 산 율원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본지 · 생명나눔 공동기획

생명나눔은 자비입니다

⑥ 일면 스님에게 듣는 '생명나눔'

"생명나눔, 인연의 힘… '풀뿌리 홍보' 중점"



일면 스님은… 1947년 경북 경주서 태어나 해인사에서 명허(明虛)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8년 해인강원을 마치고 동국대 종비생으로 입학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종회의원,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과 호계원장, 초대 군종교구장,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동학원 이사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의 전각에 들어서면 주불과 협시보살이 참배객을 맞는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주불과 협시보살을 장엄하는 것은 후불탱화다. 전각에 특징에 따라 있는 주불과 후불탱화가 함께 있기에 부처님의 성소(聖所)는 마침내 신앙적 아우라를 완성시킬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본인을 '후불탱화' 라고 말한다. 이는 "너희는 주불해라. 나는 후불탱화 하련다"라는 일면 스님이 도반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에서 비롯됐다.

이는 참선 수행 · 교학 공부 · 전법 포교에 나선 스님들을 뒷받침해주는 종무 행정을 담당하겠다는 스님의 의지다. 그래서인지 스님의 직함도 다양하다. 크게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원로의원이자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광동학원 이사장이며, 남양주 불암사 회주다.

일면 스님은 자신이 이끄는 단체에서 리더이자 후불탱화다. 수장으로서 열정을 갖고 솔선수범하며 실무자를 믿고 묵묵히 지원하는 모습을 모두 보여서다. 그래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항상 빠른 목표 달성을 자랑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주요 사업은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입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에 따르면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5000명,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2300명이 모집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빠르게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아마 9월 말에는 모집 목표를 100%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일면 스님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홍보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처음 제정해 운영하는 '생명나눔대상' 이다.

생명나눔대상은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활성화 등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섰던 개인이나 단체 등 공로자들을 치하하기 위해 제정됐다.

추천 부문은 대상과 홍보상 · 생명상 · 나눔상 등 4개 부문으로 대상은 생명나눔 전 부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홍보상은 언론과 출판, 문화 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다. 생명상과 나눔상은 각각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활성화와 봉사 · 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들이 추천되면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부문별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생명나눔대상 선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선정위원회에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1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은 오는 10월 18일까지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되길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홍보위원회를 창립했다. 현재 종교 · 교육 · 언론 · 경제 ·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 33명이 홍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일면 스님과의 인연으로 생명나눔 사업에 공감하게 돼 참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는 종교도 뛰어넘는다. 현 박종우 홍보위원회 회장은 개신교인이다. 일면 스님

올해 희망등록 목표 80% 달성

'생명나눔' 바르게 알리기 위해

홍보 중요… '생명나눔대상' 제정

홍보위원회 창립, 각 분야서 홍보

뇌사자 장기 받고 새생명 얻어

"행복한 빈손 회향하는 삶 살길"

과 인연이 돼 수계를 받고 '송운(松雲)' 이라는 법명을 받았지만, 부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개신교를 신앙한다. 그는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홍보위원회의 가시적 효과들도 바로 확인됐다. 김남명 홍보위원은 1주일 만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100명을 모집했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 6월 김남명 홍보위원을 생명나눔 명예의 전당에 헌액했다.

정현숙 후원회장은 한국 전통무용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에 높은 공로가 인정돼 9월 10일 열린 제2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생명나눔대상 제정 · 홍보위원회 창립 등 홍보사업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생명나눔은 인연의 힘"이라는 스님의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생명나눔 사업의 성공 여부는 홍보에 있다"며 '풀뿌리 홍보' 를 거듭 강조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생명력과 경쟁력은 홍보활동이 좌우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 및 조직기증 희망자 등록신청 기준이 만16세로 낮아지면서 고등학생들도 부모 동의없이 본인 의지로 희망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부터 기성세대까지 바르게 '생명나눔' 을 이해시키고 널리 알리는 데 홍보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일면 스님의 열정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일면 스님은 18년 전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 뇌사자 장기기증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당시는 스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기도 했다.

"1998~1999년 동안 서울 아산병원에 16차례 입원했습니다.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왔죠. 그러던 중 2000년 1월 8일 아산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시간만 24시간이었습니다. 간은 22세 뇌사자 청년에게 기증받았죠. 저는 누구보다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저에게 장기기증해준 22세 청년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올립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지의 이름은 〈행복한 빈손〉이다. 이는 스님이 2007년 발간한 저서와 동명이다. 삶의 마지막, 모든 것은 보시하고 '행복한 빈손' 으로 돌아가자는 스님의 철학이 담겼다.

그래서 스님은 항상 생명나눔 권선을 잊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 마지막도 생명나눔을 권선하며 마무리 됐다.

"저와 인연이 깊은 혜국 스님은 항상 눈운동을 한다고 해요. 이유는 자신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 눈이라도 깨끗이 뒀다가 남에게 줬으면 해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 관리를 잘 하다가 젊은 분들은 조혈모세포를 기증하면 좋고, 장기기증으로 남에게 새생명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어려운 환우를 돕는 것도 좋습니다. 생명나눔은 곧 자비이니 모두 자비행에 동참해주십시오."

스님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일정을 조율했고, 해당 일정에 기록을 남겼다. 스님의 수첩에는 인연에 대한 메모들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다. 스님이 자아낸 인연의 실은 씨줄과 날줄로 엮여 '생명나눔' 이라는 인드라망으로 화현되고 있다.



올해 3월 열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창립법회 후 가진 기념촬영.



불암사에 열린 효 잔치에서 일면 스님이 어르신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2019 제1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는
올 한해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생명나눔 활동에 공로가
있으신 개인 및 단체를 다음과 같이 추천받습니다.

시상부문(총 4명)
대 상(상금200만원), 홍보상(상금100만원)
생명상(상금 50만원), 나눔상(상금 50만원)

모집기간
2019년 8월 28일 - 10월 18일

수상자발표
2019년 11월 4일

시상
2019년 11월 10일 (제10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

신청방법
홈페이지(www.lisa.or.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
문의 : 02-734-8050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천일기도 신심증장 나선 구룡사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100일 1차 회향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 창원 포교당 구룡사에 부처님 자비로 마음을 채우고 참회하며 바른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기도소리가 간절하게 울려 퍼졌다. 구룡사가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구룡사는 기도도량으로 사찰을 성장시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마음이 진정한 도량이며 자비가 넘치는 참된 도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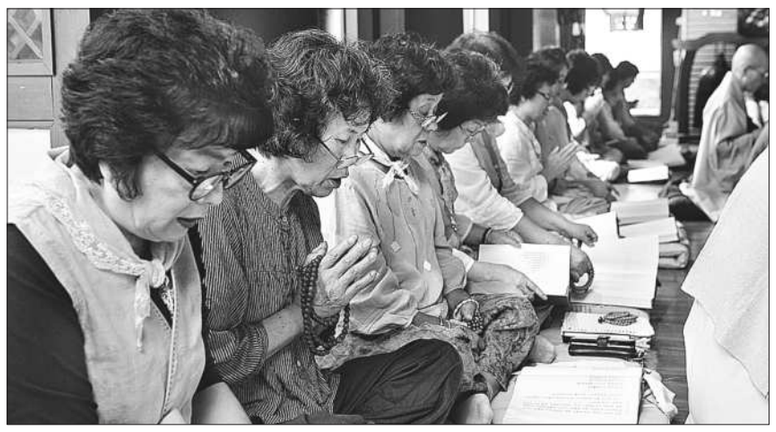
구룡사(주지 무성)는 9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입재 100일 1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첫 100일을 맞은 회향법회서 주지 무성 스님은 기도 동참자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원하고 법문으로 자비도량참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했다. 무성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진정한 자비도량은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이라고 강조하며, 자비로운 불자로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무성 스님은 "1차 회향을 맞아 법석을 마련했다. 천일기도가 삶에 영원히 지속되고 자비와 참회가 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자비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며 도량은 내 마음 그릇이 참된 도량이다. 진실하게 자비로 마음을 채우고 참회로 맑혀 청정한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구룡사는 지난 5월 28일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입재 후 100일 동안 기도를 이어왔다. 입재 후 100일마다 기도 의지를 굳건히 하며 천일동안 기도를 이어간다

기도 회향 2022년 2월 20일
매일 〈자비도량참법〉 1권 독송
하루에만 3시간 걸리는 수행
"마음 편안해져 주위사람 권해"

는 의지다. 입재 후 10일은 절을 하며 참회하고, 매일 총 10권으로 구성된 경전 〈자비도량참법〉을 한 권씩 독송했으며 100일 동안 총 10번을 읽었다. 〈자비도량참법〉은 내용이 방대해 1권씩 읽고 기도하는데 하루 3시간이 걸려 혼자서 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경전이다. 불자들은 주지 무성 스님이 빠지지 않고 직접 기도하며 굳건한 의지로 불자들을 이끌어줘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기도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구룡사는 9월 4일 경내 설법전에서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입재 100일 1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심혜경 신도회장은 "1000일 동안 자비도량참법 기도에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스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고 굳건하게 이끌어줘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수승하게 성장할 불자들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비도량참법 기도로 삶이 더욱 밝고 행복해진다는 답도 이어졌다. 정진영 불자는 "열정으로 이끌어주는 스님이 덕분에 매일 기도로 하루를 채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더라"며 "기도가 너무 좋아 주위 도반에게 자동으로 권선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룡사 자비도량참법 천일기도 회향은 2022년 2월 20일이다. 이때까지 누구나 동참가능하다.

구룡사는 "자비도량참법기도는 나의 잘못뿐 아니라 남의 허물,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허물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는 순수하며 절절한 기도"라며 "그 공덕을 모든 생명을 위해 회향하며 온 누리가 자비로 가득차고 행복하게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구룡사는 추석을 맞아 자비의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은 9월 5일 설법전 앞에서 개최됐으며 쌀 20kg 100포를 의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쌀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화순 운주사 인근 축사 건립 논란

지역민 반대 커져… 나주시 "허가여부 신중"

천불천탑의 화순 운주사(주지 무안) 인근에 대형 돼지축사 건립이 추진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논란의 돼지축사는 운주사 와불(臥佛)로부터 583m, 대웅전으로부터 약 80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데다 이곳은 나주호 상류지역 수자원보호구역이다.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일대에 대형 돈사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돼 현재 허가심 대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운주사를 비롯한 '나주호 상류 돈사 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주)'는 지역 주민들 200여 명과 함께 지난 8월 30일 나주시청 정문 앞에서 '돈사 신축 불허 집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사진〉

운주사 주지 무안 스님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잠정 등록된 천불천탑 문화재가 대형돈사에서 나오는 분뇨와 악취에 오염될 수 있다. 절대 방치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형 돈사는 총 2곳으로 나주시 다도



면 방산리 일대의 1만470㎡와 6,571㎡ 크기의 기업형 시설이다. 문제는 화순과 나주 접경에 위치한 운주사와의 거리가 가깝고, 사찰을 찾는 시민들이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찰 수행환경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담당자는 "행정에서는 이 문제를 결코 쉽게 보고 있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주변 환경, 문화재 요소들을 감안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과 21교구 본사인 송광사도 나주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축사 건축 불허가를 요청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산 해운정사, 저출산 극복 앞장서

세 자녀 가정 장학금 전달… 10년간 10억 소요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로 진입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밝은 한국을 기원하며 해운정사와 진제선세계화회가 '한 가정 세 자녀 이상 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8월 30일 원통보전에서 '세 자녀 가정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해운정사는 2016년부터 중학생 이하 세 자녀 이상을 둔 100가정을 선정, 매년 명절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은 총 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0년 동안 자녀가 성장할 때 까지 이어진다. 장학금 전달식마다 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 법회도 진행 중이다.

종정 진제 스님은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큰 일꾼이 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효를 실천하는 인재가 되도록 잘 키우길 바란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인구감소를 극복해 5천년 찬란한 민족 문화를 보존하자"고 대중을 격려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창원 성주사, 위기 청소년 돕는다

창원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

창원 성주사가 위기 청소년을 위해 마음 등불을 밝히는 사찰이 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경찰들을 위한 마음 쉼터로 거듭난다. 창원 성주사(주지 흥교)는 8월 29일 설법전에서 창원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성주사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선도에 앞장서고 경찰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성주사는 위기 청소년과 경찰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며, 창원중부경찰서는 성주사 주변 치안강화 및 템플스테이 홍보를 담당한다.

성주사 주지 흥교 스님은 "제가 어릴 때 청소년 시기에 선도활동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며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日지식인들도 아베정부 비판"

日조동종 이치노헤 스님과 군산사암연합회 공동성명

일본 아베정부의 과거사 부정과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한국에 대한 부당한 행동에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와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이 아베정부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발표 후 이치노헤 스님은 교계기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 한일상황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군산 동국사에서 열린 공동성명 발표에는 동국사 종결 스님, 염불사 행담 스님, 수도암 무진 스님, 삼보사 법송 스님, 보천사 의종 스님, 도안사 명현 스님, 이치노헤 스님 등이 참석했다.

동국사 평화의 소녀상과 일본 조동종의 참사문비 앞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는 한일양국과 아시아 민중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며 "특히


이치노헤 스님(오른쪽 세 번째)과 군산사암연합회스님들이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강제징용과 성노예 등 전쟁범죄에 희생된 한국인들의 고통과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개인배상 청구권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치노헤 스님과 군산사암연합회스님들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현실을 부정·왜곡하는 모든 행동과 정책에 반대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연대한다 △아베정부는 강제징용과 성노예제 등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의 배상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중단 △아베정부의 평화헌법 수정과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아시아 평화협력 촉구 △전쟁과 국가폭력을 반대하며 한국과 일본 아시아에서 평화와 정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불교적 자비정신으로 교류하고 연대할 것을 밝혔다.

이치노헤 스님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1965년 한일 수교협정과 강제징용피해자의 개인배상은 아직 남아있다는 본지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992년 일본 사민당 도이(土井) 의원의 질의에 야나이 일본정부위원이 개인청구권은 남아있다고 답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치노헤 스님은 아베정부는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의 잘못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아베정부는 정상적이지 않다. 권투경기에 비교할 때 링에는 오르지 않고 링 밖에서 한국을 때리고 있다"며 "일본의 지식인들도 이러한 아베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님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최근 한일관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20대는 한일갈등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3차 한류로 한국의 음식, 음악,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또 "일본사람들이 변해야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3차 한류문화를 통해 서로 대등하게 대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내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102기 강의중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청암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삼보에 귀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문여러분 청안하십니까?
매미 소리는 아득히 멀어지고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청암의 도량에서
동문 스님들과 소중한 만남을 갖고자 하오니, 잠시나마 자리를 함께 하시어
청암인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 짜 | 불기 2563(2019)년 9월 26일(음 8월 28일) 목요일
시 간 | 오후 3시
장 소 | 청암사 자양전
문 의 | 054)432-2652

청암사승가대학 총동문회 회장 유화 합장

거사 중심 '관음신앙' 전개 터전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⑰ 삼성암



북한산 삼성암 전경. 조선후기 거사들의 묘련사 결사가 진행된 곳으로 민간신앙으로의 불교 전개를 살필 수 있는 곳이다.

거사에 의해 창건된 삼성암

삼각산 화계사 뒤편으로 낮은 언덕을 넘으면 삼성암이 나온다. 삼성, 즉 독성, 산신, 칠성을 모신 곳이다. 1943년에 쓴 김태흡의 〈화계사 삼성암 중건기〉에 1872년 창건되었다 하니 아직 150년이 못된 연혁이다. 그렇지만 독성기도로 가피를 받은 불자들이 많아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청도 운문사 사리암과 함께 중요한 나한도량으로 꼽히는 곳이다. 중건기 제목을 보면 창건 당시 화계사 산내 암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암의 가장 큰 특징은 거사들의 발원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신행 상황이 반영된 모습이다. 한국불교에서 거사불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조선후기이다. 이 무렵 불교계는 종명마저 없어진 채로 산중에 은거하면서 선교를 겸수하면서 지냈던 무종단 시대였다. 사회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산중시대라는 한계적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단 차원의 불교활동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 거사들의 개별적 신앙 활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교단이 번성할 때 남자 신도들의 활동을 거사불교라 하지 않는다. 불교가 탄압받거나 교단이 쇠락해져 신앙 지도가 어려워질 때 생겨난 신앙활동을 그렇게 부른다. 삼성암 역시 교단이 어려운 시기 거사들의 발원에 의해 세워진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창건기에 의하면 거사 박선묵은 16세에 발심하여 불교에 귀의하였다. 그는 한양의 신도 유성종, 서윤구, 고상진, 이원기, 장윤원, 유재호 등 함께 고종 7년(1870) 봄 화계사 뒤 천태굴에서 3일 동안 지성껏 독성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천태굴 아래 반석에서 쉬면서 고상진에게 말했다.

"나 같은 범부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곳은 그윽하여 아주 빼어난 신령스런 구역이라 할 만합니다. 만약에 암자 하나를 지어 여러 도반과 틈을 내어 참배하며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양성도 한다면 이 어찌 대장부로서 통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암자를 짓자는 박선묵의 말에 고상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임신년(1872) 봄에 고상진이 몇 칸의 정사를 얽어 '소난야(小蘭若)'라는 현판을 걸고 부근의 산지를 사들여 절의 땅으로 삼았다. 박선묵은 고상진의 행동에 느낀 바 있어 10년 뒤인 1881년에 독성각을 새로 지으면서 암자의 면모를 갖추었다.

삼성암의 시작인 천태굴은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을 알 수 있다. 〈봉은본말사지〉에 의하면 도선스님이 삼각산을 살펴보다가 석굴에 이르러 그 기이함을 매료되어 여러 달 동안 머물렀다. 이 때문에 후세에 일반인들이 스님의 자취를 추모하여 석굴에서 기도하거나 숨어 수행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때로는 암자 터에 몇 칸의 초가집이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엔가 빈터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도선 스님이 수행했다는 전설은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석굴이 '천태굴'이다. 나반존자인 독성이 부처님으로부터 혼자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수기를 받고 남인도 천태산에서 도를 닦아 깨달음을 성취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이곳은 독성기도처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거사불교의 거점이었던 삼성암

조선후기 거사불교의 모습을 전하는 것은 여럿이다. 그 가운데 특별한 것으로 거사들 스스로 결사를 맺고 활동한 묘련사(妙蓮社)를 들 수 있다. 고종 9년(1872)에 한성에 사는 거사들이 관세음보살의 신묘력을 감응하고자 결성한 묘련사는 결사의 주체가 모두 거사였다.

묘련사가 시작된 것은 고종 9년(1872) 11월이었다. 그 후 고종 12년(1875) 여름까지 4년에 걸쳐 삼각산 주변의 암자와 거사의 집 등 일곱 곳을 옮겨 다니며 모두 11번의 법연을 가졌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사격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삼성암이다. 1872년 봄 거사들에 의해 창건되었고, 그해 가을 거사들의 신행결사가 있었으니 당시 삼성암의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런 신행 목적으로 모인 묘련사 거사들은 자신들의 신행담을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 그것이 '관세음보살묘응시현제중감로'(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이다. 보통 제중감로라 불리는 이 책은 내세의 미타정토를 희구하는 신앙관, 선과 정토가 결합된 경향, 그리고 도가적인 성향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앙적 경이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며, 묘련사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모두 고종 15년(1878) 인가 거사가 쓴 제중감로의 연기문에 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조선후기의 거사불교운동이

조선후기 거사신행활동 활발

고종 9년 묘련사 결사 거행

"내세적 구원사상 사회 전개"

시대적 여건에 의해 일반적인 관음신앙을 표방하기보다는 신비적인 도가적 취향과 내세적인 신앙관 그리고 선정 결합과 같은 혼합적 성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암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신행활동을 전개한 묘련사 결사가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이런 거사불교를 통해 조선후기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가 지향해야 할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묘련사가 결성된 1872년은 조선후기에 해당된다. 이 시대의 사회상은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절망의 극한상황이다. 정치의 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의 붕괴로 백성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웠다. 이 같은 현실은 고통의 세계이다. 이러한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칭명한다면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관하시어 모두를 해탈케 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은 서원에 의해 생하여 서원에 의해 살고 항상 서원을 실천해 가는 보살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고난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본원으로 하고 중생의 고뇌를 없애 안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음신앙의 특징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담고 있는 묘련사 결사는 개항을 전후한 시기 종단의 활동이 미비한 상황에서 불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관을 유지하고 아울러 중생들의 구제를 도모하여 불교를 지속시킨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지니고 있던 거사들의 신앙관이 표현된 점에서 당시 거사불교의 신행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묘련사 결사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종단주도의 신앙형태가 아니고 거사들의 순수한 신앙운동에 속한다. 신앙결사가 국가의 의해 주도되면 결사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고 국가를 위한 하나의 조직체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중적인 서원의 완성이 아닌 왕실을 위한 기복연명과 제재초복(除災招福)에 많은 비중을 두는 기복단체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묘련사의 경우는 그 소속 인원의 부류나 신앙적 경향에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다. 민간적인 차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당시 대중불교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불교가 발전하려면 교단이 국가적인 정책과 일치되어 사회를 주도해 가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묵묵히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대중 활동은 그 부족함을 메우는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묘련사 결사가 현실의 고통을 없애고 보다 나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세적 구원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은 바로 그 시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함께 그 시대의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조선사회와 같이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평민이나 하층계급이 구제된다는 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내세는 물론 현세에서도 신분 차별이 소멸된 듯 법열 속에 지낼 수 있는 기쁨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일반대중들이 신앙에 의지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불교가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성암은 비록 작은 암자에 불과하지만 힘들었던 시절 불자들의 희망이 타오르게 한 도량이었던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삼성암의 재해와 가피, 그리고 영험

거사들의 서원으로 건립된 삼성암도 몇 번의 자연재해로 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42년이었다. 그해 7월 유난히 장마가 심했다. 폭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 절이 무너졌다. 이 때 상황을 김태흡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맑은 밤이면 부처님의 이마 위로 별들이 빛나고 폭우로 신중탱화에 물이 흐르니 한갓 사람들만 슬퍼할 뿐만 아니라 신들도 울었으며, 산이 찡그리고 시내가 울부짖기에 이르렀다."

자연재해로 전각의 지붕이 사라져 밤하늘이 보이고, 폭우가 들이쳐 탱화가 젖어 너덜거리는 모습이다. 이를 지켜보는 사부대중의 찢어질 듯 아픈 가슴과 자연의 애절함이 전해지는 듯하다. 삼성암의 재해를 안타깝게 여긴 화계사 주지 회경이 중창의 뜻을 세웠다. 김용태 거사가 목재를 화주하였다. 삼성암 대중들도 힘을 보탰다. 원근 각처의 사찰과 신도 역시 동참하였다. 그 덕분에 1943년 3월 대방 등 12칸의 전각이 세워졌다.

현대에도 삼성암에 위기가 있었다. 1984년 여름 장마로 산사태가 일어났다. 많은 물과 토사가 함께 밀려와 칠성각과 산신각이 무너질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뿌리 채 뽑혀 내려오던 나무 한 그루의 줄기와 뿌리로 법당을 감쌌다. 마치 문어가 다리로 감싸는 모습이었다. 그 덕분에 전각은 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신이한 광경을 본 대중들은 비가 멈추자 나무를 치우고 정성들여 3일간 산신기도를 봉행했다.

그밖에도 삼성암은 명성에 걸맞듯 나반존자의 가피를 받아 난치병을 고쳤다거나 아들을 낳았다거나 하는 등의 수많은 영험담이 전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공주에서 미곡상을 하는 임선달의 아들 수동이가 삼성암에서 지성으로 기도를 하고 꼽추가 된 몸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대표적이다.

또한 1955년 3월 종로에 사는 황명휴가 한의사 시험을 앞두고 50일 동안 삼성암에서 독성기도를 올리고 가피를 받아 시험에 나온 양의학 문제를 푼 사례도 인구에 회자되는 영험담이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에너지(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고 급 : 개인의 기에너지 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기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멈추면 들리는 마음의 소리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⑰ 제주 한달살이 셀프코칭



그림 · 박구원

8월, 제주 한달살이를 하고 왔다.

무더운 서울의 여름을 떠나고 싶던 차에 아홉 살 손녀에게 마당이 있는 시골집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딸아이의 부탁이 있었다. 마침 지인이 한달살이를 위해 지은 제주 애월 납읍리의 시골집을 얻을 수 있었다.

제주에 여러 번 머물 기회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긴 기간 현 주민처럼 살아보긴 처음이었다. 여러 정보를 탐색하고 경험한 이의 도움말도 얻어 나름 준비를 많이 해간 셈이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냥 제주 시골의 환경에 그대로 젖어들기만 하면 되었다.

일상에서 벗어나니 다른 시간이 펼쳐졌다. 마음을 두는 자리가 달라지고 시선의 높낮이가 바뀌었다. 관성으로 굴러가던 쳇바퀴를 잠시 멈추고 그 자국을 살펴보았다. 남편과 장성한 아들의 세 식구 살림을 하면서, 결혼한 딸네가 바로 곁에 있어 매일처럼 왕래를 하는 생활이다. 집에서 두 끼는 먹는 남편과 나의 끼니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았다. 수 십 년간 해온 먹는 일이 아직도 첫 번째 과업이라니! 먹는 일 말고도 생활을 유지하는 자질구레한 집안일이 있었다.

사회와 접속하는 경제활동이라면 드문드문 생기는 라이프코칭과 글쓰기, 그 준비를 위해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는다. 남는 시간에는 손녀와 놀아주기,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보기, 지인과 만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 기분이 꿀꿀할 때는 동네 양품점이나 대형 마트를 찾아 소박한 예산의 쇼핑을 한다. 나른하도록 별 일 없는 나날이다. 60 평생에 가장 안온한, 감사한 날들이기도 하다.

일상과 여행의 틈새, 한달살이의 작은 성찰

한달살이는 여행이라기엔 길고 이주의 기간이라면 짧다. 이 틈새가 한달살이의 매력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날을 즐길 수 있으면서도 관광지에 온 듯 서둘러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오늘 못 하면 내일 하고,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

시장 보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같이 챙겨야 하는 일상이 없다는 느낌이 우선 신선했다. 집을 떠났다고 해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지내는 것도 아니련만 집에서 하던 하루 몇 시간의 가사노동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끼니에 얽매이지 않는 게 무엇보다 좋았다. 세 끼니 먹거리 장만의 지겨움이 즐거움으로 바뀌었다고 할까. 제주의 향토음식을 찾아다니며 먹었고 그도 귀찮으면 장을 봐서 간소한 식단을 마련했다. 옷도 가져간 몇 벌로 편하게 바꿔가며 입었고 청소는 더럽다고 느껴질 때 보이는 곳만 치웠다. 좁은 집이니 야단스럽게 할 일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큰 불편함은 없었다. 사실 이런 시간을 이어가도 되는 나이가 아닐까. 살아가는 데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 시간을 버리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새삼 다가왔다.

예순이 넘도록 수 십 년의 관성으로 살아왔다는 깨달음은 경제활동 역시 명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저냥 비슷한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성찰로 이어졌다. 그 일이 지금 나이에도 계속 원하는 일이었나. 그 중 정말로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은 없을까.

몇 년 전 출퇴근 직장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어 했던 일이 해묵은 숙제로 떠올랐다. 책 읽기 시민운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의 가능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나. 코칭을 시작할 때도 딸 세대 젊은이가 사회로 나갈 때 도움이 되고 싶은 동기가 가장 강했는데 그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냥 습관처럼 생기는 일을 그때그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반성도 일었다.

인생의 좌표를 그려보게 한 손녀와의 시간

손녀를 즐겁게 하고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외에 특별히 즐거운 일을 만들지 않았다. 뜨거운 날은 바다에서 해수욕을 하고 흐린 날은 도서관을 들러 집에서 독서를 하거나 카드게임을 했다. 열흘이 지나자 손녀도 밖으로 나돌기보다 동네생활을 재미있어 했다. 요행으로 삽살개와 고양이 네 마리를 키우는 인심 좋은 이웃이 있어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손녀는 무척 기다리고 아꼈다.

제주 집은 담장이 귤밭의 돌담으로 이어지는 귤나무가 천지인 동네에 있었다. 언덕에 오르면 야트막한 오름 곁으로 바다가 보였다. 귤밭에서

인생 성찰하는 자기만의 시간
남은 생에는 목표설정 필요해
수행하고 보시하며 정 베풀자

익어가는 청귤을 따다가 청을 담그고 밤이면 깜깜한 언덕에서 날아오르는 반딧불을 보았다. 그도 싫증나면 툇마루에서 멍하니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를 듣고 바다를 향해 떨어지는 낙조가 없어질 때까지 앉아 있었다. 지루하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작고 아담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집세를 빼면 나면 서울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싸게 먹혔다. 결핍을 느끼지 않으니 사들이는 게 없었고 사교를 하지 않으니 돈 들일 일이 별로 없었다.

한 달간 일상을 유예하면서 제주의 시간은 이렇게 흘러갔다.

손녀와 둘이 보내는 시간에 할머니의 역할과 내리사랑에 대해 생각했다. 20대 중반에 엄마가 되었고 워킹맘으로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결혼생활을 했다.

그땐 모든 게 서툴고 힘겨웠다. 지금 손녀 나이의 딸아이와 아들아이는 어떤 모습이었고 엄마인 나는 무엇을 함께 했나. 그땐 아이가 아프지 않기를, 무탈하게 잘 자라기를 바랐을 뿐 아이가 커가는 예쁨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집에는 시부모님이 계시니 자연히 밖으로 나돌았다. 엄마 노릇은 그저 책임과 의무였던 듯하다. 지금 손녀에게 쏟는 사랑은 잃어버린 젊은 엄마 시절에 대한 보상인지도 모른다.

예뻐하다가 지치면 아이엄마에게 돌려보내면 되는 손주 사랑은 그저 양지만 찾아다니는 철없는 엄마 닭 같아서 좋았다. 새소리에 잠을 깨고 눈을 돌리면 온통 푸른 중산간 제주의 이 집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서울 집에서만큼 상큼하지만은 않았다.

한 달 동안에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아이가 내뿜는 에너지가 새삼 눈부셨다. 순간마다 넘쳐나는 에너지를 태울 거리를 찾아 보채는 아이에 맞춰 쏘다니다 보니 열흘이 지나자 결국 작은 몸살이 찾아왔고 사랑방 같은 동네 병원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며 제주 할망들의 외계어같은 사투리를 듣는 체험도 했다.

손녀와 단 들이 지내면서 자신의 좌표를 생각했다. 지금은 인생의 어디쯤에 와있는 것일까. 분명 정상은 넘어왔고, 내리막길 어딘가에서 서성대고 있는 것일 게다. 헉헉대며 올라가는 길이 끝났다고 해서 남은 힘을 다 하지 않고 털레털레 내려가며 길이 다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닐까.

40대가 끝나기 전, 제주 올레가 막 생겼을 때는 배낭을 메고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치지 않았다. 일단 호기심이 있었고 그 여행의 목표가 있었다. 하루 종일 걷다가 어디든 쉬면서 배를 채우고 숙소의 어울림 문화에 따라 짧은 사교를 하고 나면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다시 길로 나갔다.

딸과 사위가 내려와 시간 여유가 생겼어도 올레 코스를 찾으러 갈 기운도 호기심도 없어 동네 올레를 걸었다. 턱이 없는 인도 옆으로 차가 쌩쌩 달리는 길이었다. 불안했고 불편했다. 30여 분 만에 콜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왔고 뒷날 차도가 아닌 돌담길 올레를 찾아 쉬엄쉬엄 걸었다. 제주 올레는 원래 마을 어귀에서 집까지 들어오는 골목길을 뜻하는 것이니 이런 마을에선 나서면 올레이다. 꼭 하고 싶고 맛보고 싶은 체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나이는 평안일까, 무덤덤한 퇴락일까.

매일 한 구절의 금강경 독송으로 자신에게 묻다

집에서의 시계와 다르게 돌아가는 그곳에서 마음에 숨어 있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금강경 한 구절을 독송했다.

마음에는 와글거리는 깨달음이 올라오는데, 번뇌와 분별을 끊으라는 붓다의 말씀이 오히려 더 새겨졌다.

붓다의 말씀은, 늘 궁극을 향한다.

인생의 지금 좌표에서 유용한 질문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울 것 없는 이 질문이 번쩍하는 섬광처럼 마음을 가로질렀다. 이 정도만 살아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뭐, 라는 게으름에 죽비가 내려쳤다.

아직은 생각을 멈출 나이가 아니다. 삶은 여전하고 세상은 미처 베풀지 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수행하고 보시하며 정겨운 삶을 이어갈 에너지도 남아있다.

금강경은 어떻게 직장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대신 이런 질문에 해답을 준다.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비밀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금강경의 지혜〉 페이융

이 궁극의 질문이 다가오는 지금,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매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으로 시간을 채울 것인지 현답이 나올 것 같다.

큰 기대 없이 휴가처럼 떠난 제주 한달살이가 의외로 가져다준 작은 성찰이 큰 선물로 남았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동국대학교 융합 가족세우기 상담사 2급과정 모집

가족 간의 얽힘을 풀어내고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삶은 대부분 가족관계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족은 모습도 닮게 되지만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 말, 주로 쓰는 단어, 습관, 정서, 감정, 먹는 음식까지도 닮게 되고 DNA(몸의 세포)을 통해 얽힘은 유전 상속 대물림 됩니다. 삶 속에서 습득된 모든 것들은 DNA(몸의 저장장치)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후손들에게 유전 되고 기록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고향이고 희망이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란 밀착된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일들로써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어 얽힘을 만들고 평생 동안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융합 가족세우기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간의 얽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확인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생각보다 더 깊은 잠재의식의 상태를 조명하고,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형태로 내담자, 촉진자, 대리자들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불가 사이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절에서 스님이 운영하시기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립니다.

수강신청

• 융합 가족세우기 2급 156시간 4학기 정원 40~50명 • 집중 워크숍별도 운영 • **가을학기 : 모집 중** • 주간반 15~17시. 저녁반 19~21시

동국대 접수처
• 서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3호선 동대역 하차 6번 출구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교학처
• 02)2260-3728, 3730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9번길 14호 학마을 명상선원 / 051)754-3375
• 부산 계좌 : 농협 351-1090-3369-93 예금주 : 학 마을 명상선원
• 지하철 남천역 4번, 2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남천성당 뒤 kbs후문에서 좌회전 150m

속성반 부산
• 1년 과정 월1회 3째주 토,일요일 1박 2일 집중수업
• 수강료 : 3백만원
• 부족한 시간 집중워크숍 별도운영 보충 총 170시간
• 속성반 안내 전화 : 010-8634-7851

수강생이 아니라도 누구나 상담자로 참여해 볼 수 있으며 참여 후 자기문제가 해결돼 수강생이 되기도 합니다.

강사소개 정행스님(직강)
• [내면의 고민과 행복] 저자
• 서울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가족세우기)
• 서울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 전공
• 가족세우기 촉진자 경력 10년
• 명상심리상담 경력 / 기 에너지 치료 경력 30년
• 명상심리상담 자격증 등 다수

수 없이 봤지만 대부분의 사찰들이

수 천번 평생쓰는 음향시설을 서투른 지역음향에 시설을 맡김으로 가격도 비싸지만 염불정서와 전혀 맞지 않아 (1)스트레스 (2)성대질환 (3)하자보수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원톱시스템이란? 시설 전에 간단한 견본으로 법당에서 기존 시설과 비교를 해보실 때 장난감같은 놀라운 소리의 차이를 확인하신 후 시설을 맡기시면 한 번에 하자없는 최고의 시설로 평생해야 되는 염불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일천여곳 형편따라 소리공학 맞춤시공 (방문시 명단제공)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확!** 달라지는 소리체험 후 마이크 구입 가능

▣ 본품은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이 글은 법적증서)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장기할부 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명품소리훈련원 원장)

“12처가 곧 불교”… 존재 대상이 法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⑰ 연기의 구성



그림 · 강병호

연기의 기본 12처

연기의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인 12처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자.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다’ 는 것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6근 · 6경의 12처 18계, 육육법연기, 오온연기, 12연기의 골격은 물속에 들어있는 9/10에 해당되는 불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이 나는 불자라고 큰소리 칠 수 있을 만큼 떳떳해진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귀하게 키워놓은 자식들을 교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문제에 부딪치면 다 양보하고 만다.

불교는 삶의 악세사리이지 소중한 보물이 못 되고 있는 것이 불자들의 현실이다. 오늘부터 공부하는 불교의 구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세세생생 동안 불교와 떨어질 수 없는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이루고 나서 이 법을 설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래서 천신들의 권청에 의해서 법을 설하게 된다. 세상에 이 법이 존재할 수 있게 한 부처님과 6년을 함께 고행한 5비구를 찾아가서 비로소 연기와 사성제를 설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법을 설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망설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오온이라든지, 연기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된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를 접했고 오온연기, 12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고 부터는 불교를 안다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 대학 시절부터 평생 동안 고민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오온연기, 12연기이다. 부처님은 8살 때부터 ‘왜 죽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를 고민했다. 젊은 시절부터 그 문제를 고민했고 또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었을 때가 35세이다. 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한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이 경전에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라면 ‘누구나 며칠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 이라는 생각이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긴긴 시간의 고민 끝에 오온연기에 대해서, 12연기에 대한 개념들이 뚜렷하게 인식된 것이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른다. 느껴본 것만큼 느끼듯이 부처님의 은혜는 세세생생 갚아도 다 못 갚는다. 이렇게 엄청난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배우려고 한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쉽게 이야기하기에는 망설여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난해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불교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부분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미세하게 들어있는 원리의 설명 부분은 이해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12처 18계를 이해하고 나면 시간에 대한 연기와 공간에 대한 연기인 오온연기를 이해해야 한다.

시간에 대한 연기는 육근 · 육경 · 육식 · 육촉 · 육수 · 율애로 이루어졌으므로 육육법연기라고도 한다. 오온연기는 공간에 대한 연기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꺼번에 어려운 부분을 다 이해시키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에 대한 연기를 가르치시고 공간에 대한 연기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 12연기를 가르치셨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서로 보고 이야기 하고 있는 ‘나는 있다’ 는 것은 눈으로 보고 나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부처님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나는 있다’ 를 인식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모든 것은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시고 존재에 대한 인식론인 연기의 가르침을 펼치셨다.

> **불교는 ‘나는 있다’ 인식서 출발**
> **부처님께서는 正覺을 이루시고**
> **인식론인 연기 가르침 펼치셨다**
> **연기 출발점은 존재이며 나이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존재이며, 나이다. 존재에 대한 인식이 무상이고 무아이다. 이 존재를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이시여! 불교가 무엇입니까”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12처가 불교다”라고 말씀하시도 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경과 육근이 바로 12처이다. 12처의 내용은 6근과 6경이다. 우리 몸을 관찰해 보니 어떤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를 한문으로 ‘근(根)’ 이라고 하는데 눈 · 귀 · 코 · 혀 · 몸 · 뜻의 여섯 개의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가 6근인 것이다.

눈(眼)

내가 있다는 것을 따져보니 먼저 눈을 통해서 외부적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안 · 이 · 비 · 설 · 신 · 의가 기본이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이란 봄으로써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 중 하나이다. 나를 이루는 것을 분석해보니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귀(耳)

그 다음에는 귀가 있다. 둘이서 마주 앉아 이야기 하고 있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은 귀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식 능력체가 바로 귀이다. 만약 달에 갔을 때는 귀가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기가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인데 달은 공기가 없는 진공이기 때문이다.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기라는 매개체가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귀가 있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가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코(鼻)

우리는 출근할 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한다. 좋은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맡고 좋게 인식하도록 한다.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때로는 안 좋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코는 냄새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이다.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체가 있어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혀(舌)

그 다음에 혀가 있다. 혀는 말도 하지만 맛도 본다.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맛이 있거나 없다고 할 때 혀에서 맛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일단 혀를 지나 식도를 통과하면 영양가 있는 것이 최고인데 혀에 딱 걸려서 맛도 있어야 하며 영양가도 있어야 통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혀라는 것은 맛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인 것이다.

몸(身)

눈 · 귀 · 코 · 혀 외에도 또 몸이 있다. 몸에 의해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있다’ 했을 때 나는 무엇인가? 바로 눈과 코, 귀, 혀, 몸으로부터 인식되는 것이 내가 된다. 안 · 이 · 비 · 설 · 신 까지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의 위대성은 ‘근’ 이 5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하여 6근이 되는 ‘의’ 가 있기 때문이다.

의(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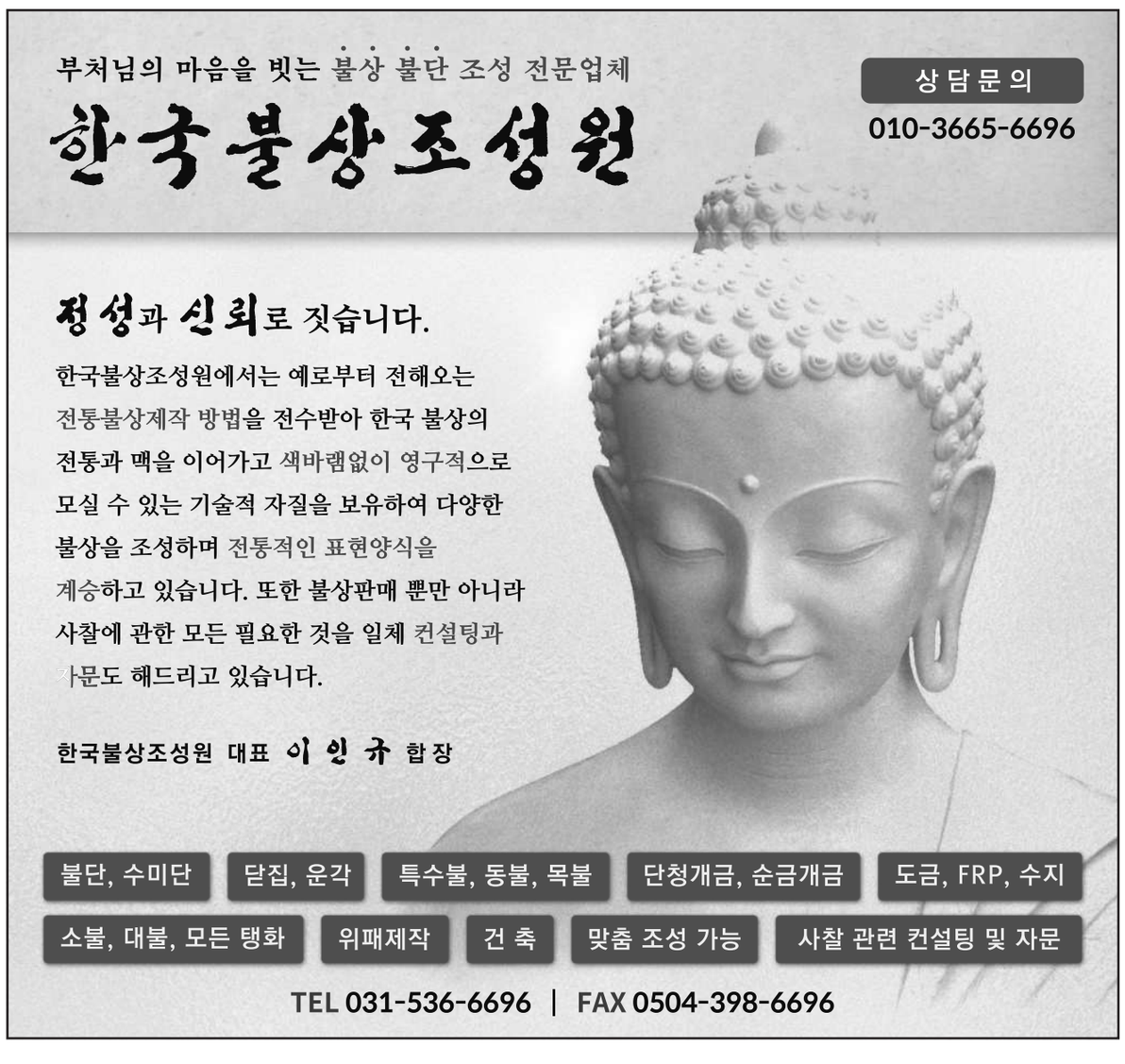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식하려고 하고 능력인 ‘의’ 가 있다. 예를 들어 눈은 보는 능력만 있지 보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없다. 귀도 같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만 있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코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냄새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코에는 없다. 혀도 맛은 느낄 수 있지만 그 맛을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체는 없다. 몸뚱이도 좋다고 촉감을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피부에 닿는 그 촉감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총괄적인 능력체인 ‘의’ 가 있어 가능한 것이다.

색 · 성 · 향 · 미 · 촉 · 법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다.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을 색이라고 한다. 6근은 필연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6경은 보여 지는 능력을 갖고 있다. 6경을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이라고 한다. 색은 우리 눈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이다. 눈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이 색이 된다.

귀는 소리가 있어서 들을 수 있다. 눈에는 보이는 대상을 색이라 하고 귀에는 들리는 대상을 성이라 하며 소리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코는 향기를 맡는다 했는데 즉 코의 대상이 되는 향이 있다. 그 다음 혀는 ‘미(味)’ 는 맛이 있다 혹은 맛이 없다 하는 혀로써 맛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몸은 부딪치므로 통각을 느낀다. 5근의 대상 색 · 성 · 향 · 미 · 촉이 바로 5경이다. 이 의지의 ‘뜻’ 에 대상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 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대상들이 결국 법이 된다.

〈영남대 의대 교수〉





지혜 없는 수행으로론 깨달음 없어



新 불교사자성어

㉜ 전도몽상(顚倒夢想)

'전도몽상(顚倒夢想)' 은 〈반야심경〉에 있는 사자성어다. 중생들의 생각은 매우 잘못 되어서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고 있으며, 또 몽상(夢想)에 불과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명구는 중생들의 자존심을 다소 자극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존심을 건드려서 분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글자 풀이부터 하고자 한다. '전도(顚倒)' 는 '위치나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 , '뒤바뀌어져 있다' 는 뜻이고, '몽상(夢想)' 은 '꿈같은 헛된 생각' ,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생각' 을 가리킨다. 즉 모든 존재와 사물, 그리고 현상은 공(空)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실존하는 것,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는 뜻이다. 이 말 속에는 '정신을 좀 차려라' , 또는 '현실(공의 현실)을 직시하라' 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갖가지 현상과 현실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임시적인 것, 가상적인 것, 즉 '가유(假有)' 라고 한다. 현상은 '참(眞)' 이 아니고 '망(妄, 허망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닌 것)' 으로서, 언젠가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이 아닌 허망한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반야심경〉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다. 아침저녁 예불이나 법회 등 행사 때 독송하는 짧은 경전인데,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하고 넓어서 반야심경을 100% 이해한다면 공부를 상당히 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반야심경〉은 반야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전이다. 자신은 바른길을 가고 있다고 하지만, 법안(法眼)을 갖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엉뚱한 비불교적인 수행, 사이비 수행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또 어리석으면 자신이 본 것을 최고라고 여겨서 고집불통이 된다.

〈반야심경〉에는 "대승의 보살도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거하기 때문에 마음에 집착과 구속됨이 없고, 집착과 구속됨이 없기 때문에 공포심(恐怖, 두려움)이 없다.

이 반야바라밀다(반야 지혜)의 지혜는 잘못된 생각, 뒤바뀐 생각, 몽상 같은 생각들을 멀리 물리치게 하며, 끝내는 니르바나(열반)를 성취하게 한다. 그리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라밀다(반야지혜, 공)를 의지하기 때문에 최상의 깨달음인 아뇩다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고 하여, 반야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생은 커다란 전도몽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분명히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인 줄 알면서도 욕망에 눈이 멀어 '설마' 하면서, 또는 요행을 바라면서 강행한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을 좀 통제할 줄 알아서 조금 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수와 실패로 끝없이 인생을 반복한다,

그런데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정견(正見, 바른 견해)이다. 정견은 팔정도의 하나로서 안목, 또는 정확하고 명석한 견해, 혹은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선에서는 '정안(正眼)' , '정법안장(正法眼藏)' 이라고 한다. 임제록에서는 '진정 견해(眞正見解, 참으로 바른 견해)' 라고 한다.

정견은 쉽게 설명하면 '안목(眼目)' '바른 안목' 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을 보는 바른 눈' 인데, 안목이 없으면 '참(眞, 진실)' 이 아닌 것을 '참' 으로 오판한다. '참' 과 '참' 이 아닌 것은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 또는 〈임제록〉 같은 선어록에 기준하면 된다.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에 빠지면 결국 진실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오판하는 일이 적지 않다. 누구나 돌이켜 보면 "과신, 고집(주장), 환상, 자기 착각, 에고 등으로 오판만 하지 않았어도 이보다는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는 불교출판을 하고 있는데 그간 여러 차례 오판을 했다. 그 결과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다.

오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욕심, 욕망 때문이다. 욕심이 시야를 가려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오판을 자주 하면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다가 끝나게 된다. 마음을 비우면 비교적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

수행도 마찬가지인데, 특효약은 정안(正眼) 밖에 없다. 각자 정안, 안목, 정법안을 갖추는 것이 최상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어째서 향하는 묻지 않는가?"

〈向下〉



격절록 강설

㉜ 제12칙 목주소치(睦州苕幕)

[古則과 着語]

擧 僧問睦州 "高揖釋迦 不拜彌勒時如何" (有恁麼茆廣漢) 州云 "昨日有人問赶出院了也" (已是第二頭) 僧云 "和尚怕某甲不實" (怕死禪和如痲如粟) 州云 "拄杖不在 苕幕柄聊與三十" (拳頭也得便打)

어떤 스님이 목주(睦州, 목주도명)에게 물었다.

"석가에겐 높이 예를 올리면서도 미륵에겐 절도 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망상 꾸러기 같은 놈(茆廣漢)도 있구먼.]

목주가 말했다.

"어제도 어떤 놈이 (이렇게) 묻기에 절에서 내쫓아버렸다." [이미 제 2두(第二頭)에 떨어졌다.]

스님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아마도 제가 실답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아마도 죽은 선객이 마치 삼대처럼 많고 좁쌀처럼 많을 것이다.]

목주가 말했다.

"주장자가 없으니, 풀 빗자루로라도 삼십 방을 쳐야겠다." [주먹이 있으니 바로 쳐라.]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睦州只有受璧之心 且無割城之意" (旁觀者哂)

설두가 염(拈)했다.

"목주에겐 다만 벽(璧, 연성벽, 옥)을 받을 마음만 있었을 뿐, 성(城)을 떼어 줄 생각이 없었다." [곁에서 보는 자가 비웃는다.]

[評唱 1]

師云. 且道 這僧過在甚麼處. 豈不見石頭問讓和尚 "不求諸聖 不重己靈時如何" 讓云 "子問太高生 何不向下問將來" 頭云 "寧可永劫沉輪 不求諸聖解脫" 又僧問洞山 "文殊普賢來參時如何" 山云 "趁向水牯牛裏隊去" 僧云 "和尚入地獄如箭射" 山云 "全賴子力"

자, 말해보라! 이 스님의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어찌 보지 못했는가! 석두(石頭, 석두희천)가 회 화상(讓和尚, 남악회양)에게 물었다.

"모든 성인들(諸聖)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己靈)도 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회양이 말했다.

"그대의 물음이 몹시 거만하다, 어째서 향하(向下)는 묻지 않는가?"

석두가 말했다.

"차라리 영겁토록 윤회에 빠질지언정, 모든 성인의 해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동산(洞山, 동산수초)에게 물었다.

"문수와 보현이 와서 참례할 때 어떻습니까?"

동산이 말했다.

"물소들 무리 속으로 달려갈 것이다."

스님이 말했다.

"화상께서는 쏜 화살처럼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동산이 말했다.

"전적으로 그들 덕택이지."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㉜ 이해의 길 12

괴로움이 왜 성스러운 진리인가?

〈苦〉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을 일인데, 불교에서는 왜 괴롭다고 하나요?"

오래 전 어느 분이 던진 질문이다.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생명의 탄생마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生老病死)하는 인간의 삶을 모두 고통이라고 진단한다. 오죽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했겠는가. 사바(娑婆)란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忍土)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염세적 아우라가 물씬 풍긴다.

고(苦)의 문제는 근본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12연기와 삼법인, 사성제 모두에 등장한다. 12연기에서는 유전연기가 고통의 길이며 삼법인에서는 일체개고(一切皆苦), 사성제에서는 고성제(苦聖諦)가 그것이다. 그만큼 괴로움의 문제가 불교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다. 불교에서 깨침을 중시하는 것도 이를 통해 비로소 생로병사의 고통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고득락(離苦得樂), 즉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괴롭다고 했을까? 그리고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聖諦)라고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를 위해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괴로움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로 고고(苦苦)는 배고픔이나 추위, 질병과 같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한다. 둘째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을 괴고(壞苦)라 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사업실패, 빚보증 등으로 재산을 잃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로 행고(行苦)는 인생의 무상함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싯다르타가 성문 밖을 나가서 마주한 삶의 진실, 즉 유한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 느끼는 실존적 고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괴로움을 사고팔고(四苦八苦)라 해서 네 가지, 혹은 여덟 가지로 설명하기도 한다. 네 가지 고통이란 앞서 언급한 생로병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에서 생명의 탄생마저 괴로움이라고 진단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늙고 병들어 죽는 실존적 괴로움은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생로병사가 없다면 괴롭다는 문제의식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괴롭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붓다는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다.

나머지 네 가지는 대상과 만나면서 느끼는 고통이다. 첫째로 애별리고(愛別離苦)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고통이다. 둘째로 원증회고(怨憎會苦)는 애별리고와 반대로 서로 원망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다. 이 둘은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愛之不見憂),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니 괴롭다(不愛亦見憂)."고 하였다. 셋째로 구부득고(求不得苦)는 무엇인가를 구하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다. 배가 몹시 고픈데도 돈이 없어 먹을 것을 사지 못 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음성고(五陰盛苦)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오는 고통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을 오음(五陰), 혹은 오온(五蘊)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활활 불타오르는 괴로움이다. 한마디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우쭐함이 강한데, 다른 사람이 대접해주지 않을 때 느끼는 괴로움을 뜻한다.

지금까지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을 살펴봤는데, 인간의 고통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의 삶이 괴롭다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없다. 내가 지금 괴롭기 때문에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괴로움을 성스러운 진리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붓다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우담종문회, 45년째 승가 전문 교육

경전 · 사찰운영 · 학술 등 다양한 주제

대한불교법화종 제11교구 창원 불곡사 우담종문회가 스님들을 위한 승가교육을 45년간 실시해 눈길을 끈다.

대한불교 우담종문회(이사장 도홍)는 9월 2~6일 불곡사 관음전에서 제45회 하계 주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연수 교육은 △개강식 및 특강(우담승가 교육원장 능산 스님) △효율적인 사찰운영과 활용방안(동림선원 재단 이사장 신공 스님) △법화경 강의(이덕진 前문성대 교수) △불교와 비종교학(前조계종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 스님) △오분향례에 깃든 불교사상(前조계종 중앙승가대 교수 정인 스님) △종강식 및 특강(우담종문회 원로 근파 · 선파 스님) 등으로 진행됐다.

우담종문회 이사장 도홍 스님은 "45년 전부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스님들 교육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배우고 수행하도록 돕고 포교 활동으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능산 스님은 "문도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교육에 참여하고 더욱 정진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경상대학병원에 법당 마련

조계종 경남포교사단 9월 2일 개원

조계종 경남포교사단이 병마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새로운 법당을 열고 포교 거점지로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단장 김위영 · 이하 경남포교사단)은 9월 2일 창원경상대학병원 4층 이정자 홀에서 '창원경상대학병원 불교법당'을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법당은 창원경상대학병원 지하 2층에 위치하며, 개원법회에 앞서 경남포교사단은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봉행하고 아픈 환자들을 위로하는 쉼터이자 포교지로 거듭나기를 발원했다.

개원법회는 경과보고 및 개원사, 치사, 축사,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도법사 무아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 창원시불교연합회장 월도스님, 마산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 창원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원정 스님과 병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철 스님 대원력 후대가 이어가길"

Interview

성철 스님 출가송 비 제막한 원택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성철 스님께서는 영원한 진리를 위한 고독한 발걸음을 평생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이 자리에서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는 청년 이영주(성철 스님 속명)의 그 열정을, 오늘 젊은이들이 가슴 깊이 새겨 인생을 개척해 가길 바랍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9월 1일 산청 겁외사 성철 스님의 생가 율은고거(栗隱古居) 앞마당에서 '성철 스님 출가송 및 일원상' 비(碑) 제막식을 봉행했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의 수행 원력을 강조하며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해 온 불자들이 주인공이라고 격려했다.

"2017년 11월에 100여 명이 처음으로 1만배 기도를 시작했고 24시간 만에 성취했습니다. 그 이후 백련암에서 연 2회, 겁외사에서 연 1회 1만배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성철 스님 탄신일을 기념해 7일 가행정진 참선법회를 했으며, 또한 10년 동안 3000배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수행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이름을 새겨 봉안했습니다. 바로 수행자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의 출가송을 마음에 새기고 더욱 정진합시다."

성철 스님 생가 산청 겁외사에 출가송 비와 일원상 세워 공개
"불자들 수행원력 새겨 살아가길"

성철 스님 일원상은 190㎝ 높이로, 뒷면에는 '성철 스님 출가송 조성문'이 새겨져 있다. 일원상 아래에는 성철 스님의 출가 당시를 상징하는 두루마기, 고무신 그리고 보자기가 있으며 기도와 수행 그리고 보시로 동참해준 신도들의 이름을 새긴 은판을 일원상 앞 상징물 아래 복장함에 봉안해 기념했다. 일원상은 부처님의 원만한 깨침을 상징해 영원한 진리를 찾아 떠나는 출발과 영원한 진리를 완성해 돌아오는 귀환을 표현한 것이다.

출가송 비는 높이 205㎝ 크기로 앞면에는 한문 출가송이, 뒷면에는 한글풀이가 담겨있다. 성철 스님의 출가송은 彌天大業紅爐雪(미천대업홍로설) 跨海雄基赫日露(과해웅기혁일로) 誰人甘死片時夢(수인감사편시몽) 超然獨步萬古眞(초연독보만고진)이다.

뜻은 "하늘에 넘치는 큰 일들은 붉은 화롯불에 한 점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기틀이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일세.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 죽어가랴. 만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이다.

겁외사 창건주 원택 스님은 출가송과 일원상 비를 제막하며 불사에 동참한 모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계획에는 '큰스님 출가송 시비'를 세우고 그 옆에 '출가상'을 모셔 감사한 마음을 함께 기념할 생각이었지만 일원상 세우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수행을 동참해준 모든 분들이 있어 오늘 스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사찰 공생 방법 모색

구례 화엄사, 환경 전문가들과 멸종위기종 양비둘기 문제 토론



구례 화엄사가 '화엄사 경내 문화재와 양비둘기 공존'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멸종위기 동물과 천년고찰의 공존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4일 성보박물관에서 '화엄사 경내 문화재와 양비둘기의 공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내 문화재에 피해를 주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양비둘기와의 공생을 주제로 사찰, 지역 시민단체, 국립공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두표 호남대 교수의 진행으로 △신민경 계장(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의 '지리산국립공원의 양비둘기 보호활동' △화엄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무진 스님의 '화엄사 문화재의 유산적 가치와 보전의 당위성' △박종길 부장(지리산국립공원)의 '멸종위기종 양비둘기와 화엄사 문화재 보전을 위한 제안' 발제가 이어졌다. 신민경 계장은 발제에서 "2018년부터 자원봉사자를 통해 양비둘기의 모니터링과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양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자원봉사자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분은 많은 어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보문화재 관련 발표자로 나선 무진 스님은 "화엄사는 지난 8~9세기, 임진왜란 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사찰신축과 복원이 진행되는 문화재의 보고로, 현재 국보 4점과 보물, 천연기념물 등이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다.

문제가 되는 양비둘기에 대해 박종길 부장은 "전국적으로 1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양비둘기는 지난 2017년에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됐으며, 현재 화엄사와 천은사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조사에 따르면 화엄사에서 38개체가 발견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구례지역 양비둘기 보존 추진전략에 대해 "둔사제, 구만제, 천은저수지 교각 등지에 집단번식을 위한 인공둥지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집단이전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월산 대종사 22주기 추모

불국사, 추모다례재와 학술세미나 열어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22주기 추모다례재를 9월 3일 경내 무설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법주사 조실 월탄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해 월산 대종사의 유훈을 기렸다. 또한 불국사는 지난 1일 '월산 대종사의 생애와 삶' 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39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대구 법왕사, 12월 7일까지 100일간 진행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8월 30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39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식을 봉행했다. 법회는 통도사 승가대학 지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12월 7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마음에서 내는 것이니 부처님의 인연으로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신도 건강 위한 의료서비스"

천태종 관문사-장튼위튼병원 의료 업무협약



천태종 서울 관문사(주지 월장)는 대장항문 특화, 소화기 중점치료병원인 장튼위튼병원(대표원장 육의곤)과 9월 1일 의료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공동의 발전과 더불어 신도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키로 했다. 특히 장튼위튼병원은 관문사 신도들에게 진료비 혜택 및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60호 | A13 | 전면광고

여래의 가르침을 항상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항상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는 언제나 행복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반니 원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극락도량

극락도량에서 경전 공부와 기도를 하면서 절에서 사실 신심있는 보살님을 모십니다!

55세 미만

010-6536-0120

사주풀이(모집)

효보당 108 사주비법 완전전수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푼다

- 왜왔는가.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 과거/현재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 스님. 무속인. 철학인. 법사 대상
- 특별반/개인 3개월 과정모집(완전 이수됨)
-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

010-2901-8923

모셔드립니다

스님 입적하신 후 모실 곳이 없는 스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공주 지장사

010-5363-3755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요사채/누각
산신각/한옥별장/재실/펜션
(육송 목제 사용)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10번길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 이민과(원명)

054-636-2509
010-4300-9104

5층 허공사리탑(7m)

사리부도탑(개별양도)

- 경봉스님 달마
- 불교유물 20가지
- 임환경스님 병풍10폭
- 다도 무쇠주전자 200여점
- 일타스님
- 지장보살 6m 입상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136 | www.jijangsw.com

지장암 010-8585-490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사찰 운영 잘 하실 비구니 스님이나 원력있는 보살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통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스님 / 포항 시내

010-3131-1094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부산 도심 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입니다. 전반적인 도량을 관리하여 주실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2168-2800

대주스님의 불광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스님에게만 ? 전수합니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종)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미래 사회를 밝혀나갈 새로운 종단〈한국불교조계종지도자연합회〉에서 함께 할 종도님들을 모십니다.

입종 서류 및 기타 문의

총무원 – 산청 010-9422-1233
경남종무원 – 창원 010-4582-3366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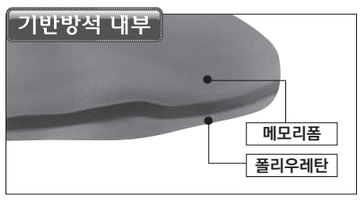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법신불교 입종/귀의 안내

1. 출가승. 출가법사. 철학법사. 민속신앙전법사
2. 불치. 난치. 원인불명. 무병. 신병 치료
3. 영통운명상담사. 불교의식 전수사 교육
4. 영통견성 인연자. 나한무술전수

상담 및 친견
김포시 통진읍 도사로 27-1 법신불교 충림 현등사

031)982-7551, 010-9977-753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60호 | A14 | 전면광고

사물이 생겨나면 다할 때가 있고
흥하면 쇠하게 마련, 만물이 모두
이와 같이 무상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역사이산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5421-153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11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 상 급양도 3700만원

010-6431-0408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3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3억 5천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4억5천은 5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010-9647-07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3층 건물 중 2층
● 방2칸. 33평. 칠보 삼존불(지장.아미타.관음) 신중
● 산신.칠성.영단.소불 50불. 인등. 시설 완벽함
● 아파트 단지 내 시장 5분거리 ● 냉장고.세탁기.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집기일체 1700만원
● 보증금 1천 / 월 4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052-222-6888
010-7612-89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약 80평. 임야 15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방2. 거실. 공양간 / 2층 법당
● 부속건물 : 산신각. 조립식 건물(서재. 창고)
● 가액 : 1억 9천(대출 6천)

010-4824-753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1층. 70평 중 45평. 황토방 편백나무
●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교통편리. 최상시설
● 용도 : 포교. 교육. 사찰. 명상. 쉼터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9천

011-9143-009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219-1
● 대웅전 23평 목조. 산신각 8평 목조
● 요사채 60평 2층. 조립식 방사 15평
● 하천부지 약 40평. 총 1680평
● 가액 : 6억

010-9044-7347
010-8697-8568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산 속 토굴을 구합니다.
● 임대. 전세. 양도 가능

010-7678-5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21-18번지 외
● 한옥 및 대지 매매(지리산 청학동, 단성IC 40분 거리)
● 한옥건평 : 155평, 대지 1,180평 (주위 전, 임야 부지 있음)
● 가액 : 17.5억원(4개동, 분할 매각 가능)

010-3835-713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사찰
● 부지 : 1,785㎡(540평)
● 건물 : 178평(전통목재 단청)
● 1층 266.7㎡(80평). 종무실. 요사채 2층 201.6㎡(61평). 법당. 주지실
● 요사채(창고) 38.88㎡(약12평) 공양간 77㎡(23평). 산신각 2평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372-8968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황토벽돌 전원주택)
● 총 412.6평 중 대지 200평(답·도로)
● 방2. 거실. 욕실. 주방. 창고
● 20평 허가되어 있어 건축 가능
● 유실수 100여주 심어져 있음
● 1000여평 국유지 사용가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
● 가액 : 2억 4천

010-9411-5302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서울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역 1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37평. 2층 법당. 종무소. 방1. 공양간. 차실. 남여 화장실. 주차타워
● 보증금 3000 / 월 80만원
● 시설투자 : 5000 중 1700만원(협의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61-4402

별장최적지

● 산자 수려한 계룡산자락 멋진 집2채
● 세종시,유성구,공주 모두 20분 거리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1길 56, 58
● 대지 : 200평, 건평 : 약50평
● 1억에 전세 놓습니다.(양도도 가능합니다)

010-4233-3459

보물급(불감)매도

● 30년전(일천만원)에 겨우 매입한 것
● 다급한 사정(파격가격)으로 양도하겠습니다. ● 불교조각장인이 2년에 걸쳐 기도와 심혈로 제작 ● 원통나무 지름 12*높이25㎝를 절개하여 작은절 법당 ● 전부(3존불)사천왕까지 안으로 파고드는 기법으로 조각
● 소지하고 다니는 소유 수호불 법당, 보물급(불감) ● 유사 외 국산(조각품)과는 비교 할 수 없음

전국불교(사찰관계거래)전문업소임(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소재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조성 잘되어 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언제등 양도가능

스님 직통 010-2607-711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오천
●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 다량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 월세 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2857-281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 대지 400평 (주차장 100평)
● 법당 20평
● 요사 2동. 30평. 심야보일러
● 마당에 지장보살 입상
● 가액 : 2억

010-3671-5366

사찰안내및임대

● 위치: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83-1 ● 1층 접견실 및 요사채. 주방 ● 2층 법당 및 스님 침소 ● 옥상 해수관음상. 태양광 전기판 설치 ● 대지 200평. 건평 70평 ● 비구니 스님 적격. 바다 50m. 조망권 최상 ● 가액 : 3억 8천만원 ● 임대 : 보증금 7천 / 월 20만원(여건시 인수 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집기일체. 시설최강)

주인 054-482-6600
총무 010-7441-2345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64
● 4층 건물 중 2층. 30평
● 법당. 3존불. 방3. 식당/화장실 1
● 보증금 1000 /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스님 건강 상 급매

010-3884-0122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도로 변
● 거창읍에서 6분 거리. 정남향 집 뒤 북쪽 소나무산
● 총 1200평 중 대지 329평 전 489평. 기타토지
●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창고 57평(황토방1)
● 암반우물1. 자연우물1. 소나무 정원
● 가액 : 3억 8000만원

010-3848-245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북부 (광릉수목원 인근)
● 남양주, 의정부, 포천시 중앙
● 종교용지 240평+임야760평(합1천평)
● 법당24평1동 + 요사채46평(2층)1동. 조적조, 철골구조 (리모델링 필요함)
● 가액 4억(시세 6억5천)
● 접근성 아주 좋아 포교하기 좋은 곳
● 부재시 문자주세요

010-3305-4559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용동 (파계사 근교)
● 건물(2층)60평
● 삼존불
● 사정에 의하여 급매
● 가액 : 2억3천만원

010-8611-7568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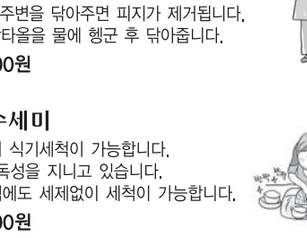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I로 해석하는 불교의 지혜

日, 고야산 1200년 된 소장문헌 전산화 나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성지인 고야산(高野山). 1200년 전 코보대사(弘法大師)가 개산해 일본 진언종의 총본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고야산에 소장된 방대한 양의 불교 문헌들이 AI를 통한 해석과 전산화에 들어갔다. 이 중요한 소식을 8월 27일 일본 'AI신문' '뉴스픽' 등의 매체가 보도했다.

8월 23일 고야산 대학에서는 'AI가 개척하는 고야산의 지식의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고야산 측은 "고야산 내에서 AI와 같은 현대과학 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사상 최초"라고 전했다.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히다카 젠포 스님은 "고야산에 전해지는 방대한 문헌들은 역사의 보고다. 인력으로만은 그 전모를 밝히는데 상대한 시간이 소모된다. AI를 활용함으로써 해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된다"면서 고야산에 남은 불교의 지혜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젠포 스님은 "진언종의 승려로서 종조인 코보대사의 가르침을 익히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중의 업무에 쫓겨 공부할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옛 스승들의 가르침이 담긴 문헌들이 해석되고, 검색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가 된다면 출가자들은 물론, 재가자들도 코보대사와 진언종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패널로 나선 AI연구자 이시야마 코우 씨는 "단순히 AI가 고야산의 지혜를 다시금 빛나게 할 뿐 아니라, 반대로

코보대사 · 진언종 가르침
더 많은 대중에 전하고자
AI 활용… 140년분 해석
"AI 연구에도 긍정적 효과"

AI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AI 모델링 가운데 차기 도전과제로 불리는 인간특유의 고차적인 생각에 대한 모델링과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 가운데 코보대사가 설명하는 밀교적 세계관과 합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보대사가 자신의 저서에서 사람의 마음을 열 단계로 분류, 저층계에서 고층계로 발전해나가는 구조가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야산에 소장된 문헌에 대해 소개한 코가사하라 하사히토 고야산 문서편집위원은 "고야산 문헌은 단순히 불교문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진언종 사찰들로부터 보고 받은 시대와 지역의 다양한 정보가 결집된 자료군"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기근과 같은 천재지변의 기록이나 당시 지역의 풍습을 보고한 내용도 많아 "1200년간의 시간이 담긴,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료"라고 전했다.


고야산 대학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발언하는 패널들. 사진출처=AI뉴스

문헌해독을 담당하고 있는 고야산 문서편집위원회는 가장 첫 작업으로 에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140년분의 기록을 AI를 이용해 해독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문헌은 〈히나미키(日並記)〉라는 문서로 고야산 진언종의 총본산인 콘고부지(金剛峰寺)의 업무 일지다. 약 10인의 전문연구자들이 지난 2년간 총 240권 중 80권을 완료됐다. AI는 이 작업에서 글자가 지워지거나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복원하거나, 이미지화된 문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젠포 스님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AI와 불교 간의 접점에 대한 심포지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님은 "고야산은 중세 일본 학문과 지식을 발산하는 거점이었다. 그렇기에 현대 최첨단 기술인 AI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문기술기업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의욕을 보였다. 물질의 시대에서 마음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말이 되는 현대에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지 향후 고야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점차 격 높아지는 반려동물 장례

반려동물 함께하는 묘지 늘어… 천도재도 확대

현대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사후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8월 30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 '도쿄신문' 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천도재나 장례법회가 최근 사람에 준하게 진행되고 있어 화제라고 보도했다.

도쿄 교외의 하치오지 기념공원. 반려동물과 그 반려인이 함께 잠들 수 있는 잔디묘지 구역에 반려동물의 모습을 새긴 묘비가 서있다. 2년 전 죽은 반려견의 무덤을 성묘차 왔다는 한 여성은 "친자식처럼 애정을 쏟아왔고, 가족과 다름없는 아이들을 단순히 반려동물 묘지에 매장하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말했다. 여성은 "내가 죽은 후에는 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 잠들 것"이라며 반려견의 묘에 향과 초를 켜고, 꽃을 꽂는 등 일반적인 성묘와 동일하게 무덤을 돌봤다.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천도재나 장례법회, 묘지가 활성화됐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사람과 동등하게 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도쿄도내에 반려동물 천도재를 지내는 모 사찰의 주지스님은 "천도재의 발원문을 읽는데 반려동물을 대해 축생도(畜生道)라는 말이 들어갔다며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반려동물 묘지 전문업체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묘지가 시작, 당시 1개소로 민간 묘지만 있었던 것이 올해 8월 11개소로 증가, 심지어 도쿄도내의 사찰이 관리하는 묘지도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후문제제와 관련된 사찰과 전문업자들이 모인 '일본동물영원연합'의 이사장 쿠키 세이가이 스님은 "최근 들어 반려동물과 함께 묻히고 싶다, 반려인의 사후에도 반려동물의 기제사를 지내주길 바란다는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이가이 스님은 자신의 사찰에서도 7년 전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묘지와 장례법회, 천도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가이 스님은 "동물도 인간도 모두 동일한 생명을 가진 생물, 동등하게 죽음을 위로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먼저 떠난 반려견의 묘에 손을 모으는 여성. 사진출처=츄니치신문

미얀마 스님 '극우불교'에 쓴 소리

소수민족 탄압 중재 나선
먀와디 사원 비운사 스님

미얀마가 종교 갈등으로 인한 증오범죄와 폭력 사태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한 스님이 불교 · 기독교 · 힌두교 · 이슬람교 종교 지도자들과 소수 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door)의 9월 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만달레이에 위치한 먀와디 밍기(Myawaddy Mingyi) 사원의 사야도우 아신 아리야 원 타 비운사(Sayadaw Ashin Ariya Wun Tha Bhiwun Sa · 사진) 스님은 최근 민족주의 · 극단주의에 봉착한 미얀마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몰두하고 있다.


사진출처=ucanews.com

이 스님은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종교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우리는 소수 민족에 대한 증오심을 심기보단, 다양한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위해 싸우고, 극우 불교도들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대다수가 불교도인 미얀마에서 불교 승려로서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침묵은 극우 불교도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 (극우) 승려들에 대한 비판은 공동체의 분열이 아니라, 소승불교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스님은 극우불교 단체 '마 바 타(Ma Ba Tha)'의 소수 무슬림족에 대한 탄압으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 바 타'는 소수 무슬림 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와 탄압을 조장해 2017년 강제 해산됐다. 하지만 이후 '붓다 담마 필란트로피 재단(Buddha Dhamma Philanthropy Foundation)'이란 이름으로 재설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에도 '마 바 타'에 대한 공개 비판을 서슴지 않던 비운사 스님은 "극우 불교 단체 소속 스님이 미얀마 전체 불교 인구 89%를 대표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는 침묵하는 스님들보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적 민족주의자"라고 혹평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석가모니 부처님 '치아' 대중 전시

캘리포니아의 한 사찰, 1만여 불교 유물 공개

석가모니 부처님의 치아 등 희귀한 불교 유물 다량이 대중에 공개됐다.

CBS로스앤젤레스는 8월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로즈미드에 위치한 웨이 마운틴(Wei Mountain) 사원에 있는 부처님 치아는 그곳에서 전시 중인 수천 점의 유물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 같은 전시 소식을 보도했다.

전시 유물 중 상당수는 불자들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해당 사원에서 소장한다. 해당 사원 스님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불교 신앙에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유물들의 일부를 선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시되는 유물은 1만개다.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며 "대부분의 유물은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건너와 사찰에 기증됐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유물 중 단연 주목받는 것은 부처님의 '눈'이다. 고고학적,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사찰의 스님들은 해당 유물이 부처님의 실제 눈이며, 보존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사원의 한 스님은 "우리는 부처님 눈 유물이 미얀마 정글에서 미얀마 스님에 의해 발견됐다고 들었다"며 "이 유물 역시 우리가 기증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GM since 2015 SOFT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천비록 天秘錄

천지인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땅, 사람의 비밀 天秘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도서 가격 15,000원 | 도서출판 대도대한 063)643-7285

인터넷 서점 :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교보문고 각 지점 | 영풍문고 각 지점 | 반디앤루니스 각 지점 | 리브로 각 지점

구리 동원서적 | 대전 보문불교 | 대전 계룡문고 | 대전 중앙출판 | 대구 세원출판
대구 에스디커뮤니 | 울산 처용서림 | 부산 영광도서 | 구미 춘양당 | 창원 창원서적
마산 대신서점 | 전주 홍지서림 | 순천 중앙서점 | 목포 국제서림 | 제주 탐라도서
등 전국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고백과 편지 글쓰기의 치유력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⑰ 나에게만 털어놓는 감정 고백



고백문 쓰기

누구에겐가 고백해본 적 있는가. 고백은 억눌러놓은 비밀의 범람이거나 의도적 호출이다. '고백문 쓰기'는 내면의 언어 범람을 조절하는 '호수 만들기'와 같다. 내면의 어둠에 감금해뒀던 어떤 기억이 빛을 보게 된 사건이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기억이나 경험을 감금해놓은 이유는 뭘까. 그것이 공개되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큰 위기가 닥친다고 믿기 때문 아닐까. 내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사회적, 인간적 탈락이 더 큰 위협일 것이다. 하지만 반전도 있다. 자신의 고백이 아닌, 타인의 고백을 듣는 것은 쾌감과 전율을 들깨운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말야' 라고 듣는 순간, 육중한 고기떼를 끌어올리는 안강망처럼 모든 신경줄이 그의 입 쪽으로 징발되는 느낌, 기억하는가.

비밀 없는 사람 있을까. 누구나 다 신체 깊은 곳, 췌장이나 비장처럼 자기만의 비밀 한두 개쯤 간직하고 산다. '비밀'은 응축된 에너지여서 자신조차 알아보기 어렵게 숨어있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자신에게 비밀 따위는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다. 비밀은 어떤 면에서 자기모순적이다. 숨어 있으면서 가장 숨어있기 싫어하는 이율배반적 에너지다. 비밀은 폭발물처럼 늘 '터지는 순간'을 꿈꾼다. '터지는 순간'의 폭발력은 수류탄의 성품을 닮았지만, 불발의 확률은 수류탄보다 훨씬 높다.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말야' 라고 속살대는 당사자의 신경선은 또 어떨까. 그 또한 아득한 유폐의 어둠을 탈출하는 언어 에너지에 두려움과 후련함 같은 감정이 뒤섞여 있기 일쑤다. 그렇게 발설되는 비밀은 때로 실정법 위반이기도 하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외친 그 농부는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발설은 그런 것이다. 타인의 것이건 자신의 것이건, 비밀을 토하는 사람은 대체로 뭔가를 '각오' 해야 한다. 자신의 입말이 세상을 떠돌고, 그 발설자가 자신임이 드러났을 때 감당해야 할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 왜? 몸속의 배설물처럼 마냥 고이고 썩히다가는 본인의 목숨 보장도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또 있다.

은밀한 비밀이라고, 그렇게나 입단속 시키며 쉬쉬해대는 그의 비밀이 헛웃음 터질 만큼 함량미달일 때, 이를 어쩌나. '너한테만 하는 말인데 말야' 라고 해서 온 신경줄에 비상을 걸었는데 '에게게~' 소리가 절로 터지는 경우가 잦다. 본인에게만 비밀이고 주변에게는 공공연한 사실이거나 김빠진 뉴스인 것이다.

고백하는 순간 그의 눈빛을 보라. 굶주린 승냥이의 그것이라기보다 깊은 밤 우물 속 달빛과 유사하다. 스스로 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품지 않은 것 같기도 한, 모호함으로 찰랑이는 우물 속 보름달 같은 눈빛으로 말한다. '사실은, 음, 그때 그 일은 시환이가 한 일이었어.' 고백하는 사람의 눈빛은 우물이 달빛의 주체가 아니듯, 언어의 주체이기를 포기한 상태 같기도 하다. 굳이 그에게 죄목을 붙인다면, 발설욕구에 끌려 다닌 죄, 이쯤 되지 않을까.

인간 3대 욕구인 성욕, 식욕, 색욕에 못지않은 발설욕구는 고백(告白)이라는 시적(詩的) 이름으로 가면을 쓴다. 고백은 늘 그렇듯 위험하다. 타인에게 살포하는 고백은 사실상 자백에 가깝다. 손발 묶인 삼손처럼 내면이 철창에서 몸부림치다 탈출에 성공한 숨찬 에너지이기 일쑤다. 믿을 만한 상담사나 정신과에 가지 않는 한, 친구나 지인에게 발설한 고백은 언젠가 비수가 되어 뒤통수로 돌아올 확률도 적지 않다. 글쓰기명상에서 '고백문 쓰기'는 그런 위험성을 흡수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내면의 언어 범람을 조절하는 호수라고 하지 않았던가.

- 쓰고 난 후 반드시, 즉시 폐기한다는 전제로 쓴다.
- 살면서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쓴다.
- 자신의 내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삶의 켯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본다.
- 열 줄짜리 고백문이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 문장의 6하 원칙을 최대한 활용한 글을 쓴다.

내면에 감춰둔 언어 조절하는
고백으로 얻게 된 감사의 마음
수취인인 자신만 읽을 수 있어
직접 내면을 맑게 들여다본다

- 비행기에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는 옆 좌석 승객에게 털어놓듯이 쓴다.
- "그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나 "이제 생각이 난다"로 서두를 열어보라.

'고백문 쓰기'는 당신의 내면에 유폐된 유령 같은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당신의 정신이 어슴푸레해지면 이내 마음의 창문에 어른거리는 긴 머리 유령. 그런 에너지의 다른 표현이 몸의 염증이기도 하고, 불안이거나 우울, 조울, 불면, 자폐증 같은 현상일 수도 있다. 내 몸의 작은 증세 하나에도 어떤 스토리가 있음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고백문 쓰기의 필요성을 이해한 사람이기도 하다.

내 친구는 구체적인 기억과 몸의 불량상태가 동시에 올라왔을 때, 병상에 누워 하릴없이 고백문 쓰기를 시행했다. 그는 아날로그 도구를 활용하여 또박또박 썼고, 접속사 따위를 쓰지 않았다. "그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로 시작했다. 기억이 끊긴 지점에서는 건너뛰고, 생각이 뒤섞인 지점에서는 손글씨 가는 대로 썼다. 글은 어릴 적 그가 저지른 한 순간의 과오와 한 소녀의 상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못해온 이야기였다. 그의 고백문 원칙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객관적'으로 적기로 했다. 잘 되지 않았지만 계속 썼다. 쓰고 찢고, 쓰고 찢고를 5회 정도 반복했다. 쓸 때마다 신기하게도 새 기억이 올라왔다. 그가 말했다. "살아온 날 중에서 몇 날 안 되는, 나한테 감사한 날이었어."

보내지 않을 손편지 쓰기

'보내지 않을 손편지'는 왜 써야 할까. 보내지도 않을 건데 뭘! 하지만 이 글쓰기야말로 글쓰기 명상의 원래 정신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첫째, 마음의 대상이 분명하지만,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다는 점, 둘째, 자신의 내면을 맑은 물속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셋째, 생각이나 기억이나 감정을 '나' 중심으로 마음껏 전개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수취인이 자신이므로,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글쓰기는 '수취인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수취인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쓰고 난 후 발송을 포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끔 이 핵심 조건이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언젠가 40~50대 여성 집단에서 이 글쓰기명상을 시행했다. 주인공은 40대 후반 여성이었다. 그녀는 보내지 않을 손편지 작업을 하고 나니 불현듯 애써 적은 내용을 물에 손 씻듯이 치워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 인간'에게 본인의 분노 섞인 언어와 그동안 알면서도 모른 체했던 일들, 자신도 그에 못지않게 즐겼던 사실 등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복수하기로 작정했다. 그녀는 '보내지 않을 손편지'를 쓴 후, 흰 봉투에 넣어 우표를 붙여 보내고 말았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복수심과 자기연민과 쓰레기가 된 사랑과 결별에 대한 결단을 스스로 끌어안고 싶었다는 대답이었다.

카틀린 아담스는 그의 저서 〈저널치료〉에서 '보내지 않을 손편지 쓰기'에 대해 세 가지 이득을 정리한다. 첫째는 감정해소, 둘째는 문제의 완결, 셋째는 명확성이다. 그 중에서 '감정해소'는 당신을 격앙시키는 외부대상에 대한 격한 항의나 성토를 재료로 한다. 타깃이 명확하고 선명해서 시시콜콜 정밀하게 질러댐으로써 해묵은 감정 찌꺼기를 잘 씻어내는 심리작업이다. '문제의 완결'은 미완의 감정이나 사건을 글로써 마무리함을 의미한다. 이 사이의 음식물처럼 걸리적거리거나 덜 소화된 문제를 완결 스토리로 정리하는 데 제격이다. 당신의 상상력과 스토리텔링이 결합하면 완결도가 더 상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내지 않을 손편지'가 그 일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글쓰기' 자체의 힘 때문이다. 문자는 정신처럼 흐리멍덩한 상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손글씨는 타이핑에 비해서 한결 더 명확하다. 입말에 비하면 글쓰기는 또박또박 꽂아주듯이 말하는 격이다. 문자의 시작이 흙이나 바위, 나무줄기, 거북등 따위에 칼로 새기면서 발달하고, 진화했음을 기억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 언젠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겨냥하여 감정 여과 없이 편지 쓰기.
- 서로 미완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무리 말' 적고 버리기.
- 과거의 나, 미래의 나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편지 쓰기.
- 아직 심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나 인물에게 '마무리 말' 남기기.
- 몸속의 장기나 기관 중 하나에게 편지글 쓰기.
- 동물이나 사물을 수취인으로 편지 쓰기.

편지는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의 글쓰기와는 결이 다르다. 렌즈에 햇빛을 모으는 작업에 비유할만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작가들은 말한다. 좋은 글은 대체로 단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해 쓴 글이라고. 당신이 좋아하는 글이 사실은 심정적으로 단 한 사람을 겨냥한 '보내지 않은 편지글'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당신을 둘러싼 조건이 이렇게 조성된 순간, 당신의 글쓰기는 커다란 시공간과 자유로움을 확보한다.

'보내지 않을 손편지 쓰기'는 몸속의 특정 기관을 수취인으로 지명할 수도 있고, 언젠가 치렀던 병(病)에게도 써 보낼 수 있다. 대상의 자유로움과 시차의 자유로움, 상상의 자유로움, 관점의 자유로움이 허공처럼 열리는 구조다. 당신은 작가이자 유일한 독자의 지위를 누린다. 이를테면, 과거의 나에게 현재의 내가 부치는 '보내지 않는 손편지'가 있을 수 있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신화불사
매물안내

법당 3포 27평(서울) ····· 3,000만원
종각 육모정 8자칸(서울) ····· 1,200만원
사주문 5포. 전면 11자. 측면 10자(서울) 800만원
요사채 ㄱ자. 33평(서울) ····· 3,300만원
대중간 45평(서울) ····· 4,500만원
한옥 ㄱ자. 33평. 재부(서울) 1억 2천(신재)
사찰 문화재 보유 / 1120평(경기) 35억
사찰 문화재 보유 / 1200평(서울) 80억

☎ 010-6545-2020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팔월 추석은 만물이 공생하는 작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날

참자기를 발견하려면

질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참자기를 발견하는 지름길은 무엇인지요.

답변: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살아라. 맡겨 놔라. "맡기고 살아라." 이러면 여러분이 더 실감이 날 거 같아서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한군데다 맡겨라. 믿고 맡겨라.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맡겨라." 이렇게 했죠. 무조건 맡김으로써 그것이 맡기게 되면 어디로 통과가 되느냐 하면 벌써 시각부터 통과가 되고 청각이나 촉각, 후각이 발로가 돼요. 그래 감각이 아주 영리하게 이 안의 심안이 밝아지죠. 또 그거 심안이 밝아졌다고 해서 도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꾸 밝아지고 이 뜻이,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쪼끔쪼끔 자꾸자꾸 이끌려 가는 거기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가 자꾸 발로가 됨으로써 그때는 지견으로 들어가고 지각으로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오신통을,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같이 쥐고 그대로 조끔조끔이라도 체험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해서 자꾸자꾸 체험을 하고 가는데 또 그것 되는 것만이 이게 공부다, 잘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놓지 않고 이걸 모르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구해야 할 텐데, 과거로 돌아가야 내가 현실을 구할 텐데 과거로 돌아갈 줄 모르면 어떻게 현실을 구합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되는 것도 양면을 다 놔야, 안 되는 거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고 되는 것도 선업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이 다 한데 합쳐져서 녹아 들어가서 자기가 그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지혜와 심안이 밝아져야 하고 오신통이 다 밝아져서 그 오신통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이 자유자재권을 가져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자꾸 놔야 됩니다. "놔라" 하는 거 어폐가 있는 거 같지마는 다 자기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해야지 딴 데다간 안 되죠. 그게 바로 자기 나기 이전 조상이니까. 자기 아비니까요. 자기가 현재에 생각하고 사는 거는 아들이라면 그건 아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체가 없고 가만히 능력만 있기 때문에 움쭉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꿰어 가지고 굴리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심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원심력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한다면 바로 마음 내는 거는 자꾸 그걸 역할을 해서 굴려서 쓰거든요. 그것이 법이라고 보죠. 우리가 몸이 활용하고 이러는 것도 활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공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놓는다. 감사하게 놓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자기를 발견하는 데에 둘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불자들에게 추석의 의미는

질문: 선원에서는 해마다 정월 촛불재나 백종 외에 한가위인 추석에도 합동 천도재를 올리고 있는데, 불교 명절도 아닌 추석이 불자들에게도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요.

답변: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밥을 먹을 때에 농사짓는 사람 혼자서 쌀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나 태양을 내려 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일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수를 하였겠습니까? 그러니 팔월 추석은 만물이 공생하는 작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즉 말하자면 사람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가 다 그렇습니다. 우주가 다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해 줬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당연히 조상님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 같이 부모님의 은혜도 생각하는 거고요. 자기를 낳아 줘서가 아니라 낳아 줄 수 있는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지요.

그래서 팔월 추석을 지내는 그 뜻을 우리가 한 번쯤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든지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옷 입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 없고, 불 쓰지 않고 사는 사람 없고, 땅 딛고 다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팔월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 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 첫 곡식을, 밥을 지어서 놓든 떡을 해서 놓든 무엇을 해서 놓든,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일체 만 중생과 더불어 같이 지수화풍, 또는 무정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마음들을 한데 둥글려서 마음으로 깊이 그 감사함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몰아서 얘기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입니다. 무한량이라고 하면 무한량일 수 있고, 작으면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해야 할 텐데 진실하게 감사함을 느낄 줄을 모두 모릅니다. 더군다나 가깝게 있을수록 더 감사함을 모릅니다. 당장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 못 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물 쓰는 거와 불 쓰는 거와 땅을 딛고 다니는 거와 공기를 마시는 것에 그렇게 감사함을 느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낳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일체 만물을 보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또 상대성 원리로써 개발을 할 수 있는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창조를 해 낼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감사할 줄을 모르니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일체 만물만생 전부가 다 흙이든지 무정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지수화풍을 막론하고 더불어 모두가 평화스럽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질 못합니다. 평화스럽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세계의 50%에만 전전긍긍하니 거기에까지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다느니 내가 했다느니 내가 말했다느니 그러면서 망한 거는 타의에서 망하게 했다느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됐다느니 이러한 문제 등등이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밝게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뭐를 많이 차려 놓아서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초 한 자루 켜 놓고 물 한 그릇을 떠 놓고 향 한 개비를 피워 놓더라도, 절을 일배를 올린다 하더라도, 아주 깊은 생각으로 일배를 올리면서 그 감사함을 생각한다면 조상님의 은혜를 갚고 또 자식들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몸뚱이만 귀하다고 애를 쓰고 사는데, 심어 놓은 나무가 거죽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데는 별 수 없는 겁니다.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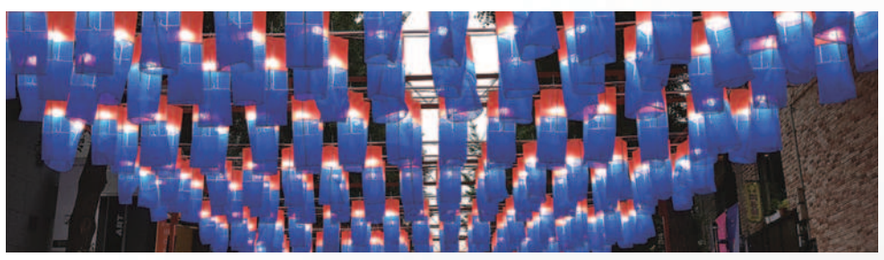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이승과 저승도 한군데밖엔 통할 데가 없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그래서 조상의 어떤 문제도 배척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끌어안는 마음으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 어떤 집안에서는 총에 맞아 죽은 분들도 계시고, 물에 빠져 죽은 분도 계시고, 맞아서 죽은 사람도 계시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무섭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더 불쌍하게 생각하고 정월에나 백중, 팔월 추석 때 잘 모셔 드린다면, 자기 조상이라면 자기네들 뿌리나 똑같은데 그분들을 은혜로이 생각하고 받들어 모시는 마음을 갖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둘 아니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두를 가릅니다. 시아버지는 이랬고 시어머니는 이랬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다 갈라 놓으니깐 갈라 놓는 대로 갈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자손들도 쌈박질이나 하고 나가서 일이나 저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안이 편안하지 못한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자식들을 낳아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고 한탄을 하지만, 그거는 한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네들 생각에 의해서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마음으로 짓는 건데 천 냥 빚은 못 갚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 얼마든지 자비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건데도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추석이 되면 자연스럽게, 물론 하루도 삼천 년 전이나 삼천 년 후나 어떤 하루밖엔 더 없지만, 추석이다 하면 지수화풍과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감사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마음이어야겠죠.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차적으로는 법의 조상이나 육의 조상이나 모든 조상님들과 일체제불에게 또는 일체 권속, 일체 중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마음의 회향을 할 때 한데 합쳐서 회향을 하게 되는 거지요

간편한 재사 상차림의 뜻

질문: 다른 사찰에서 천도재 지낼 때 보면 매우 많은 진수들이 차려져 있는데 한마음선원에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깔끔한 상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차림을 간편하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요.

답변: 요즘 항상 신도들한테도 "제사 지낼 때 거푸장스럽게 지내지 마라. 간편하게 지내라." 또 여기서도 천도를 시키고 재사를 지낼 때 간편하게 하라고 항상 그럽니다. 그건 왜냐하면 첫째, 방편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초, 향, 물, 과일, 위패, 또 어렵지 않은 사람은 꽃 한 다발을 거룩하게 해 놓고 그 꽃 앞에 위패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내는 데는 언제나 상 옆에 큰 그릇에 물 한 그릇 떠 놔라. 그것은 내 몸을, 즉 말하자면 의식에서 그 집착이나 관습이나 이러한 욕심, 이런 거를 다 씻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되지마는 이 주인공에다 관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통합니다. 지장은 지장대로 통하고 또 칠성은 칠성대로 통하고 관세음은 관세음대로 통하고, 일체 제불 여래가 다 통합니다. 이게 전화라고 한다면 전부 전화가 없는데 전화기가 여기밖엔 없다고 할 때 그런 말입니다. 한군데밖에 통할 데가 없거든요. 저승과 이승은 한군데밖엔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은 방편으로써 그렇게 해 드리고 이래야만 그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냥 길에 다니면서도 방편 없이 그대로 천가를 시킵니다. 그대로도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다를 다기로 삼거든요. 아시겠어요? 모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거는 다 자기 걸로 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향이나 초나 다, 이 세상의 게 다 자기 건데 무엇을 더 달라 덜 달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고 가다가도 천도를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렵고 극난한 사람이 천도를 해 달라고 목을 매고 붙들 때, 길에서, 거기다 그런 거 차려 놓고 하겠습니까? 바다를 다기 삼고 또 과일을 향기 삼아서, 또는 향을 양식 삼아서 모든 걸 그렇게 해서 그냥 천도를 하는 것이 더 일품이죠, 아주.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부가 시답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항상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상님들도 그 뜻을 알고 이웃집에서도 그 뜻을 아는데요, 그러니까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댁의 몸체를 위패 삼아 말입니다. 체가 없는 거니깐 항상 체가 있는 데에 접근을 해야만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조상 대 12대 종손까지 그 공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건져진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깐 들고 나는 데는 조상 하나만이 아니라 수억겁이라도 내 주인공에다 넣으면 두드러지지도 않고 꺼내도 꺼내도, 거길 거쳐서 천도가 돼도, 나가도 나가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아주 고귀하고 광대무변한 묘법이 여러분들 가슴에 다 있는데 그것을 희미하게 생각한다면 내 그 아프게 살던 부모들, 내 아프게 살던 형제들, 수억겁을 통해서 내가 그 아프게 살아온, 진화되고 형성되고 이러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래서 아픔을 견뎌 왔던 그 사정, 그 모두를 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 한 찰나지만 모르면 수억겁 광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반찬도 밥도 안 해 놓고 그러느냐. 이거를 말씀하신다면 이 떡은 이게 그냥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우주를 삼키는 떡입니다. 그 떡 하나에는 모든 일체 생물이 다 들어 있는 떡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섭니다. 또 밥상을 놓고 반찬을 차려 놓는다면 그 앞서에 살던 습이 도로 성한단 말입니다. 먹는 데, 입는 데, 집을 원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자기 몸뚱이 아끼고 그냥 이러는 것이 다 합쳐져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식이 감동해서. 그러니까 그 의식을 벗기기 위해서 안 보이는 데서는 설법을 하고 보이는 데서는 그렇게 하고, 그 의식이 다, 모든 것이 멸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팎에서 지내 주는 거죠. 안과 밖을 다 그렇게 해서 해 드리고 또 자손들도 이 공부를 하니깐 자손들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 **여러분이 항상 이 공부를 하게 되면**
> **조상님들도 그 뜻을 알고 들고 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 **여러분의 몸체를 위패 삼아서 말입니다.**

우리가 위패를 해 놓는 원인이 거기 있죠. 체가 없는 영령들은 거기에 응접을 해야만이 아시니까요. 그래서 이 우주떡이라는 것이 말로만 우주떡이 아니라 우주의 삼세가 다 들어 있는 우주떡입니다. 과거나 미래나 현실이나 모두가 현실의 한 떡에 들어 있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데서 설합니다. 그냥 목탁이나 치고 염불이나 한다고 생각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스님네들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 영령들을, 조상님네들을 다 이렇게 리드해 보세요. 얼마나 집안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조상님네들도 마음이 흥락해서 좋으니까 가정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가 천지를 건지는가 하면 마음 하나가 천지를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공법(空法)이라야지 그냥 법이라고 한다면, 잘되고 잘못된 걸 딱 따져서 이거는 지옥으로 보내고 이거는 천당으로 보낸다 이런다면 부처 될 자격이 없죠. 왜냐. 그 잘못된 사람도 본래에 잘못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망이 때린다 하더라도 일깨워서 사람 되라고 해 줘야지 그 말과 뜻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래도 건지는 거고 저래도 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평등하게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 살아 있을 때에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개구리를 잡아서 많이 먹었다. 이런 사람들 가끔 내가 봅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뱀이 꼴리듯이 그렇게 죽는가 하면 그 뱀에 자기 모습을 수없이 또 만들어 놓습니다, 새끼들을 낳아서. 그렇게 한다면 그 모습을 언제나 벗겠습니까, 또. 생략해서 뱀으로만 얘길 했는데 전후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살생하지 말라. 깨치지 못한 사람은 살생하지 말라. 깨친 사람은 살생을 해도 살생이 아니고 건지는 거다. 만약에 깨친 사람이 소를 건질 때에 소고기가 들어온다고 그것을 안 먹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한 점 먹어서 만약에 소가 환토가 된다면 그건 의당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사 지내고 천도시키고 하는 데에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한 번 해서 뱀의 허물을 그냥 벗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들고 공부를 해야, 들고 나면서 이런 거를 알아서 차차차차 그것이 벗어나게끔 되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다 해도 단박에 부처님도 건져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건져 주기만 하면 뭘 합니까? 뱀의 습이 있어서 자꾸 글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뱀의 습을 벗겨 주기 위해서 그 차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해라. 꼭 안 죽이면 안 될 때는, 닭이나 뭐라도 안 죽이면 안 될 때 그때는 주인공에다 맡기고 해라. 그러면 자기는 죽인 사이가 없고 안에서도 죽인 사이가 없다. 왜? 자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사 지낼 때 그렇게 안 차려 놓는 원인이 영령들이나 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까?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말입니다, 둘이 같이 일을 나갔다 하더라도 저녁에 떡 가게에다가 전화해서 맞춰서 놓고 일하고 퇴근하고 오다가 그거 찾아 가지고 와서 지내면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전체가 먹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이나 초나 뚱그런 떡이나, 사람이 식구가 많으면 셋을 놓고 지내고 나눠 먹고 또 적으면 하나만 놓고 하고요. 하나가 삼백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도 될 수 있고, 백 개가 하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도리 알기 전엔 결혼 말라셨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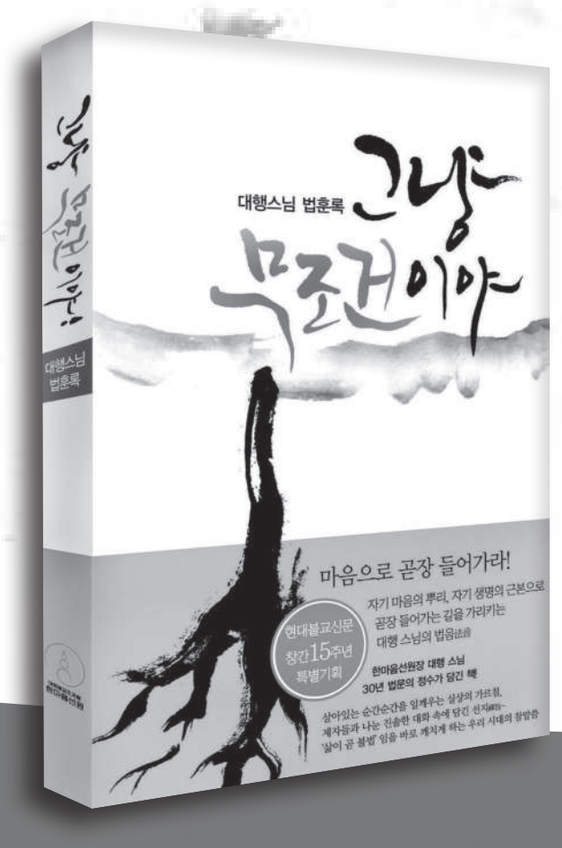
질문: 얼마 후에 결혼을 앞둔 청년입니다. 예전에 큰스님께서 이 도리를 알기 전에는 시집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 장가를 갔거들랑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올려 봅니다.

답변: 이 도리를 모르고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지 말라. 그건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요, 이 도리를 알아야 모두 그 자식을 낳더라도 좀 차원이 높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라 한 겁니다. 시집 장가를 가지 말란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 뜻은 그런 걸 알고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래됐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라도 그렇게 관하는 도리를 알면 그게 바로 큰 덕이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도리를 모르고는 자식 낳지 말라 한 것은, 그 자식이 전자에 살다가 어떠한 영령이 어쩌다가 인연이 돼서 들어왔단 얘깁니다. 들어오면 벌써 들어온 자체가 벌써 여기 그 의식들에 영접을 해 가지고 있거든요. 의식들의 응신이 돼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을 조복해야 된다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입력이 됐으니깐 그냥 나쁜 거는 나쁜 것대로 입력이 나오고,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나오고, 돈이 생길 만하면 다 쓰게끔 나오고, 돈이 또 들어올 듯 들어올 듯하다가도 안 들어오고, 그냥 거기에 다 입력이 돼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자식 부모지간에도 탓을 할 수가 없어요. 탓을 할 데가 하나도 없다고요, 자기 탓으로 돌려야지. 자기가 벌여 놓은 일이고 그런 걸 보는 것도 자기가 벌여 놓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두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거는 모두가 내 탓이로구나! 주인공, 이러지 않게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관하면 양쪽이 다 불이 들어오죠. 그 순간순간 그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가를 들지 마라. 시집을 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도리를 조끔이라도 좀 알고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도리를 알고서 장가 시집을 간다면 양쪽의 그 조상들이 그냥 좋아서 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자식을 낳더라도 이 도리를 이렇게 관해 가면서 자식을 낳으면 어디 가도 끼침이 없고 어디 가도 손색이 없도록 그 영명한 영령이 태어나거든요. 꼭 지금 말해 준 대로 그대로 해 보세요.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 현불 논단 |

승가 인재 등용의 조건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주요종단 승려인사 장벽 존재
문중과 계파 중심 인연 강조
문중은 가풍 대신 재원 승계
계파는 선거 당락에 큰 영향

이제는 실적주의 강화가 필요
개인적 인연이나 당파성 넘어
업무수행 능력 기준에 방점을
공개경쟁으로 부정도 줄어든다

한국불교 주요종단의 승려인사에는 두 가지 장벽이 현존한다. 문중과 계파가 그것이다. 사회 일반조직의 인사에 혈연, 학연, 지연이 영향을 미친다면 승가의 인사에는 문중과 계파가 주로 작용한다. 이는 한국불교의 인사가 정실주의와 엽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정실주의(情實主義)는 말 그대로 정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써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정이 인사의 매개가 되는 것이다. 엽관주의(獵官主義)는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로 선거 등에서 공을 세워 직위를 얻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중이 정실주의의 원인이라면 계파는 엽관주의의 원인이다.

본래 절집의 문중(門中)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로 수행가풍을 전승하는 맥이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 경제적 · 물질적인 지원이 밀접하게 결부되면서 세속적인 가족의 개념이 강하게 형성되어가고 있다. 유교식 집안 운영 원리가 불교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문중이 수행가풍의 전승보다는 경제적 · 물질적 승계라는 유교의 문중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교구 내 말사주지 소임을 둘러싸고 강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문중에 의한 인사 문제는 총무원장의 선출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의 소임과 관련하여서도 나타난다. 총무원장의 선출에 있어서는 문중의 집단행동과 문중 간 연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앙종무기관의 집행부 구성에 있어서도 문중에 대한 고려가 인사의 주요 요소가 되어있다.

한국불교에서 엽관주의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종책모임'이라고 불리는 계파(系派)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조계종의 계파는 과거 문중의 힘을 점차 대체하고 있다. 과거에는 인사에 있어서 문중의 의사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비하여 이제는 계파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1994년 소위 개혁불사와 무관하지 않다. 당시 종단의 민주화를 위하여, 중앙종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를 선거로 선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런데 중앙종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계파가 종책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되었다. 계파는 이후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 선거에서 세를 규합하여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보를 보여 왔다. 각종 선거 이후에는 계파 내의 기여도에 따라 중앙과 교구에서 주요 소임에 임명되는 구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문중과 계파, 즉 정실주의와 엽관주의가 스님 인사에서 주요 기준이 되어 있는 한국불교에서 실적주의의 강화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실적주의는 정실주의나 엽관주의에 대한 반(反)명제로서 능력에 바탕을 인사관리제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적주의는 조직구성원의 등용이 개인적 인연이나 당파성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적주의의 강화란 소임자의 인사 기준을 기존의 문중과 계파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적의 반영 수준을 보다 더 높이자는 것이다.

향후 한국불교에 있어서 실적주의가 도입되어 실천된다면 우선, 능력 있는 모든 스님들이 소임에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종단 내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공개경쟁과정에서 무자격자나 정치적 부정행위자를 배제함으로써 종무행정 능률의 향상과 소임자의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중과 계파를 벗어나 능력과 실적에 의하여 등용된 소임자는 정치적 중립이 용이하기 때문에 문중과 계파 이익이 아닌 대중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자칼럼
노덕현 취재부 차장

청년 포교, '공감 · 멘토링' 필요

2018년 3월 26일 대불련 홈페이지에는 작은 공고 하나가 올라왔다. 'KBUF 불담(佛談)기자단 1기 모집'이었다. 불자 대학생들을 위한, 불자 대학생들에 의한, 불자 대학생의 언론기구로서 불교뉴스를 다루겠다는 당찬 포부로 불자대학생 기자단이 출범한 것이다.

발간 회수는 연 2회. 매학기마다 한차례씩 불담기자단 학생들이 취재하여 만든 〈캠퍼스108〉은 곧이어 대학가에 배포됐다.

불교동아리를 소개하는 변변한 안내책자조차 없던 대학포교 현장에서 〈캠퍼스108〉은 제2의 대학생 포교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게임에서 불교를 찾다'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속 불성과 삼독' 등 대학생의 시선에서 또래 대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를 찾아 다뤘다. 기성 기사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구성에도 대학생 특유의 재기발랄한 모습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담기자단은 모자란 취재와 사진촬영 등의 요령은 불교계 언론사 선배들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배웠다. 발간에 드는 비용은 대불련 총동문회 대학전법지원단 등으로부터 지원 받았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 끝에 이번 9월 2일 〈캠퍼스108〉 3호가 나왔다. 이번에 발간된 〈캠퍼스108〉8 3호로 총 발간 부수는 2만 2000부를 넘어섰다. 학교당 200부씩 학기 시작과 함께 각 동아리방에 〈캠퍼스108〉은 배포될 예정이다.

최근 대학포교는 부흥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대 불교학생회를 비롯해 서울교대 불교학생회 등 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새롭게 창립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이 이면에는 이와 같은 대학생들과 각 대학 동문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다.

흔히 우리는 청년 포교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청년 포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캠퍼스108〉의 2만부 발간 돌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먼저 '공감'의 중요성이다. 대학생들의 요구는 같은 대학생들인 불자대학생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대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세대의 시선에서 본인들도 필요로 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는 것이다.

둘째는 '멘토링'의 중요성이다.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기성세대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멘토링이 있다. 이들이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이들을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불담기자단의 활동은 〈캠퍼스108〉에만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카드뉴스를 비롯해 유튜브 영상제작 등에도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종단이 진행하는 청년신행대축제에서 유튜브 공모전 등에 주도적으로 활동할 계획도 세웠다. 지금은 신문형태로 발간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대학생 불자들에게 전달 될 것이다.

최근의 대학생들은 사찰을 찾지 않고 조직화되지 않을 뿐, 여전히 불교의 가르침에는 열광한다. 1960년대 성철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 1970년대 대각사에 모였던 청년들에 이어 최근에는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불교, 명상을 접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대학생들과 공감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링으로 다시 한 번 대학불교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

社 說

불교 비지정 문화재 보존 관심을

문화재청이 새해 예산안을 올해보다 18.1% 늘어난 1조 63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회서 이대로 확정된다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문화재청의 다양한 새해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비지정 문화재 보존에 대한 것이다.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를 비롯해 관리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불교계에는 폐사지 조사를 비롯해 다량 유물 소장처 사업 활성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번 문화재청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예산 배정은 지정문화재 외 다량의 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배정이 정작 불교계에 투입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6년 발간한 국가 문화재 예산 분석을 보면 불교계는 개인이나 일반단체, 국가보다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 지원은 현저히 낮았다.

비지정문화재의 관리는 결국 문화재청을 통한 국가기관보다 민간기관의 관리능력을 보강할 수 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대폭 늘어난 문화재 예산은 그동안 중점적으로 배정해 온 국유문화재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았던 사유문화재에 대한 배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 보존에 배정돼야 한다.

아직도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정부의 문화재 예산에 적지 않는 부분이 국가 소유인 궁능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1월 궁능유적본부 출범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출범으로 궁능 보존관리 · 활용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72억원 대폭 늘어난 1302억원이 편성됐다. 궁능 보존과 활용만큼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인 불교 문화재에 대한 지원에도 정부는 신경을 쓰길 바란다.

태고종, 종도 혼란부터 해소해야

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당선 이후 총무원사가 아닌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온 호명 스님이 9월 시작과 동시에 서울 사간동 총무원사에 진입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한 무력 충돌은 없었다. 이로써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제26대 편백운 스님 집행부와 제27대 호명 스님 집행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두 집행부는 현재 종법과 사회법으로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종법상으로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을 거치면서 호명 스님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6대 · 27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호명 스님의 총무원사 진입 이후 각 집행부는 꾸준히 대화 창구를 마련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의 대립으로 인해 그 피해가 종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26대 · 27대 집행부는 서로 종도들을 향해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당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종도들은 둘로 나뉜 집행부를 바라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헤매고 있다. 게다가 한쪽 집행부를 따르면 반대편 집행부에서 이를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종도들의 혼란은 점차 가중되는 모양새다.

결국 이로 인해 종도들은 사태를 관망하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각 집행부도 사회법 판결만을 기다리는 형국으로 굳어졌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사회법 판결 이후 종단 정상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양 집행부는 종단의 존재 이유가 종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인지하고, 종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탈종공고

- 사찰명 : 무유사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2길 64
- 주 지 : 호산 (속명 : 정호진)
- 승 번 : 101-635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영주사
- 주 소 : 전북 정읍시 고부면 장문리 241번지
- 주 지 : 용오 (속명 : 한득용)

위 사찰은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삼보사 · 육지장사

禪問答 특별 대법회

‹선문답›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추구하려는 노력서 출현한 선수행의 결과물입니다. 그 누구의 문답도 아닌 바로 자신이 일상에서 제기하고 점검하며 해답을 추구할 마음공부의 방편으로 대선사 초청 '선문답 특별 대법회'를 진행합니다.

‹선문답›을 사유해 보는 선법회를 통해 국내외 일반대중들이 '인식을 대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인격 완성의 계기로 삼길 발원합니다.

부디, 대선사들의 선기 넘치는 ‹선문답› 법회에 동참하셔서 '**인식을 대전환**'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해인사 **보광** 대선사

9월 22일 삼보사



통도사 **법산** 대선사

9월 29일 삼보사



지원 前 조계종 포교원장

10월 13일 삼보사



상원사 **의정** 대선사

10월 20일 삼보사



백담사 **영진** 대선사

10월 27일 삼보사



석종사 **혜국** 대선사

11월 3일 육지장사

2019년 ‹선문답› 대법회 일정

매회 오전 10시 30분

9月

- 22일 삼보사 — 해인사 **보광 대선사** — 무문관 제1칙 ‹趙州狗子›
- 29일 삼보사 — 통도사 **법산 대선사** — 무문관 제2칙 ‹百丈野狐›

10月

- 6일 삼보사 — **명사초청 특별 대법회** — 무문관 제3칙 ‹俱胝竪指›
- 13일 삼보사 — **지원 前 조계종 포교원장** — 무문관 제4칙 ‹胡子無鬚›
- 20일 삼보사 — 상원사 **의정 대선사** — 무문관 제5칙 ‹香嚴上樹›
- 27일 삼보사 — 백담사 **영진 대선사** — 무문관 제6칙 ‹世尊拈華›

11月

- 3일 육지장사 — 석종사 **혜국 대선사** — 무문관 제7칙 ‹趙州洗鉢›

삼보사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99-4(육지장사 포교당) Tel. 02)352-6406

육지장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로 471번길 190 Tel. 031)871-0101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육지장사 | 주관 : 서울포교사단, 인천경기 포교사단

하늘고원이 숨긴 푸른 바다 青海湖



중국 칭하이성을 대표하는 청해호. 칭하이성의 지명은 청해호에서 비롯됐다. 청해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세계 최대의 염수호이다.

특별기획 천혜고도 칭하이성을 가다

한국불교언론 대표단(단장 진우)은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칭하이성 일원을 방문했다. 특히 중국 칭하이성에서는 티베트 불교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집자 주〉**

中 내륙 · 티베트 통로 칭하이성
한반도 3배 크기 · 인구 720만명
황하 · 양쯔 · 메콩강 水源 존재해
장족 · 회족 등 소수민족이 40%
불교 · 이슬람 · 토속신앙들 공존해

中 · 세계 최대 염수호인 '청해호'
해발 3500m에 펼쳐진 푸른바다
크기만 제주도 2배 · 둘레 360km
6대 달라이라마 열반지로 추정
곳곳에 티베트 불교 흔적 남아

중국 칭하이성=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차창 너머엔 오로지 산만이 보인다. 제법 잘 닦인 도로지만 지대가 해발 3000m에 이르다보니 약간의 고산병 증세가 나타난다. 지끈대는 머리에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 '와'라는 감탄사가 들렸다. 힘들게 눈을 떴다. 그곳엔 '푸른 바다(青海)'가 펼쳐졌다.

중국 내륙, 그것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3500m 고지에 펼쳐진 푸른 바다라니. 내가 와 있는 곳의 지명이 왜 '칭하이성(青海省)'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바로 '청해호(青海湖)'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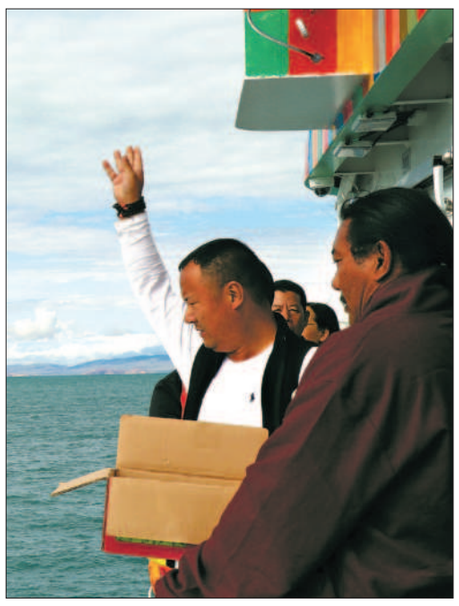
청해호는 바다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한다. 당장 중국에서는 가장 큰 호수이고 전세계에서는 가장 큰 염수호이다.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이기도 하다.

청해호의 면적은 4340㎢로 제주도(1847㎢)보다 2.3배 더 크다. 현지 가이드의 말로는 청해호에는 홍콩 4개 혹은 싱가포르 7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그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칭하이호 둘레는 360km로, 대략 서울에서 울산까지 거리다. 호수 둘레에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360km를 라이딩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가 매년 열린다. 최근에는 중국 사이클 동호회들도 5일 동안의 코스로 라이딩을 즐긴다고 한다.

또한, 주변의 너른 땅에는 8월에도 유채꽃이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모두 개인 소유로 사진을 촬영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통복장을 대여해 입을 수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호는 불교와도 연관이 있다. 청해호는 6대 달라이라마 창양갸초의 열반지로 추정된다. 창양갸초는 조금은 이색적인 달라이라마다. 4대와 더불어 티베트인 아닌 달라이라마 중 한 사람이며, 시와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사랑에 대한 노래를 즐겼다고 한다. 한국에도 알려진 그의 연시가 있다.



청해호에서 만난 티베트 스님과 불자들이 방생을 하고 있다.

'백학이여 내게 그대의 날개를 빌려주오. 나는 리탕으로 더 가지는 못하리니. 그러나 그곳서 다시 돌아오리라.'

이는 창양갸초의 사실상 열반송으로 환생을 예견한 시다. 그는 시끄러운 저잣거리와 술, 여자를 좋아했던 괴짜였다. 결국 한 몽골부족의 왕이 반란을 일으켜서 창양갸초를 납치 · 구금했다. 전해진 시는 구금 당시 애인에게 보낸 편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창양갸초는 1706년 청하이성 부근서 행방불명됐다고 전해지는데 현지 가이드는 "6대 달라이라마 열반처는 청해호"라고 추정했다.

또한 칭하이성 성도(省都) 시닝(西寧)에서 청해호로 가는 길은 티베트 손첸캄포왕의 제2왕비가 된 문성공주가 시집갔던 길이다. 당 태종의 조카인 문성공주는 640년 토번(티베트)으로 시집갔고, 두 나라의 우호관계의 상징이 됐다. 현대에 와서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거론하는 역사적 사실이기도하다.

독실한 불자였던 문성공주는 40여 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손첸캄포의 제1왕비 '브리쿠티 데비'와 함께 티베트에 불교를 소개했다고 전해진다.

차로 이동하면서도 어려움이 느껴졌을 정도인데 이역만리 시집오던 공주의 심정을 어땠을까. 하지만 전해지는 일화를 들어보면 공주는 조금은 강단 있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성공주가 시집을 갈 때 당 태종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보라고 '일월보경(日月寶鏡)'을 하사했다. 아마 오빠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이별 선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주는 토번으로 가던 도중 일월보경을 츠링산(赤嶺山)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린다. 이를 기려 후세는 산 이름을 일월산(日月山)으로 바꿨다.

공주는 왜 황제 오라버니가 준 거울을 산 아래로 던져 버렸을까. 출가외인으로서 토번국 왕비가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을까. 아니면 자신을 이역만리 오랑캐에 보낸 황제 오라버니에 대한 애증과 원망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 진실은 공주만이 알 터이다.

소수민족 공존하는 칭하이성

청해호에서 지명이 비롯된 칭하이성은 중국에서 중요한 생태의 보고다. 실제 중국은 칭하이성을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청해호에 가다보면 '산장위엔(三江源)' 자연보호구 표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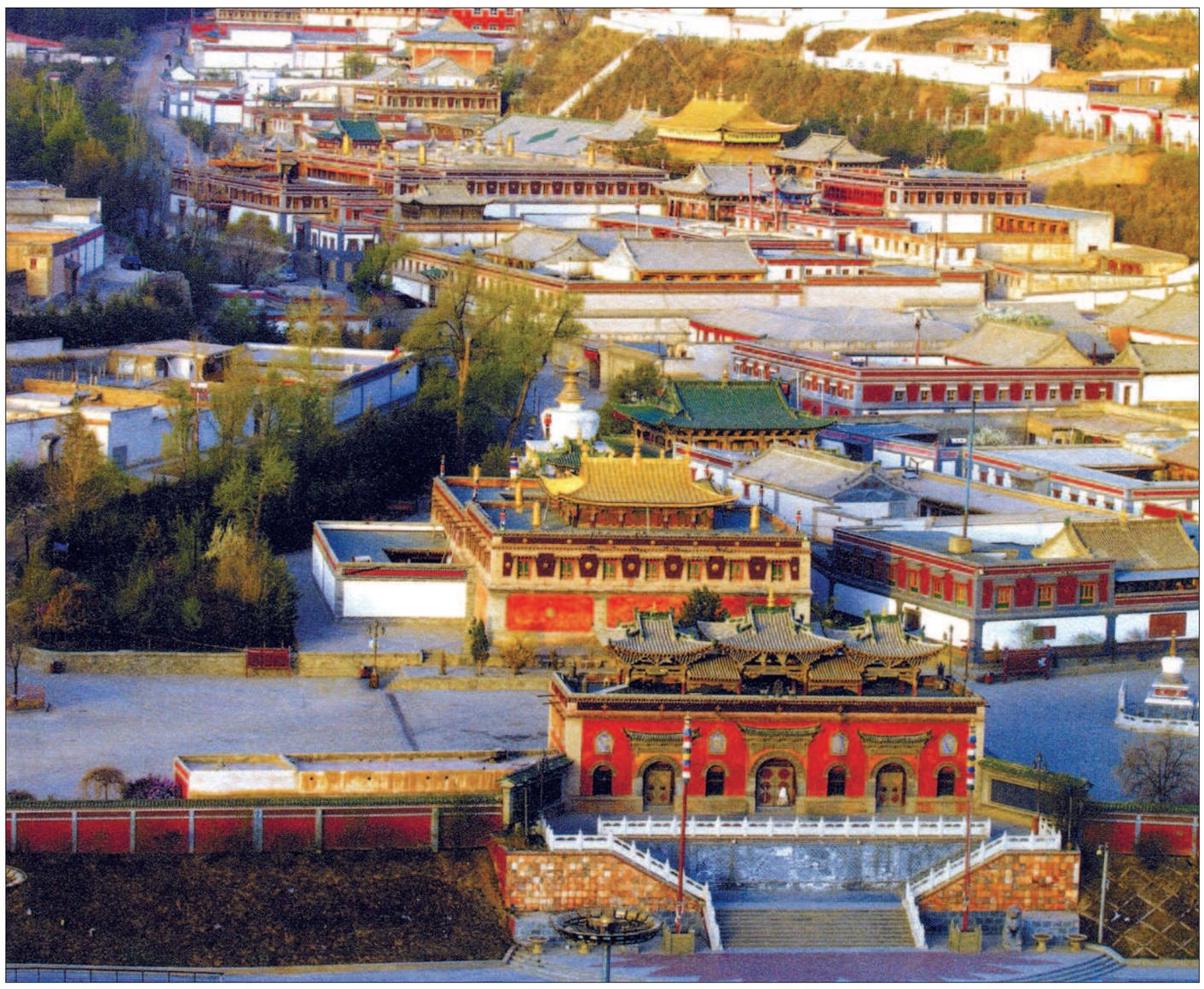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41~43번 사찰까지 여정 〈下〉

B5
문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B6
학술
묵담대종사 학술대회



칭하이성을 대표하는 사찰이 타얼사의 전경. 티베트 겔룩파 6대 사찰 중 하나이다.



타얼사 3대 보물 중 하나인 쑤여우화. 야크의 젖으로 만든 불단 장엄물이다.

척박한 대지에 피워낸 고귀한 '信心의 꽃'

칭하이성 대표 사찰은 '타얼사'
겔룩파 6대 사원 가운데 하나
티베트 불교 중흥 쫑카파 탄생처
야크 우유로 만드는 수유꽃 장엄
신실한 티베트인 신심 확인해

티베트 특유 탱화 '탕카' 고향
황남장족자치구에 장인 마을도
서장문화博 1000m 탕카 조성
티베트 민족 역사 · 불교 등 담아
전통문화 보존위한 中노력 확인

'칭하이성'

B1면에서 계속

칭하이성의 별명은 '중국의 물탑'으로, 중국에서 가장 긴 양쯔(揚子)강과 황허(黃河), 란창(瀾滄, 메콩)강의 시발지여서 붙었다. 거대한 13억 인구와 대지를 적시는 중요한 수원지라는 의미로, 중국 정부는 이곳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칭하이성은 면적이 72만㎢로 중국의 23개 성 중에서 가장 크다. 인구는 720만 명으로 크기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

인구의 절반가량인 40%는 소수민족들이다. 소수민족으로는 티베트 민족인 장족이 있으며, 몽골족, 회족, 사라족, 토족이 있다. 장족과 토족은 불교를 신앙하며, 회족은 이슬람을 믿는다. 소수민족은 전부 각자 종교를 신앙하고 있다.

칭하이성은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지하자원이 차이다무 분지에 다량 매장돼 있어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차이다무 분지의 석유탐사와 채굴은 1954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현재 연간 석유 생산량은 500만 톤이 넘는다.

칭하이성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의 일부다. '일대일로'는 서저동고(西低東高)의 중국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서부 대개발 계획이다. 일부 지방정부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칭하이성도 그 중 하나이다.

마나이신(馬乃新) 칭하이성 외사판공실 부주임은 "칭하이성은 중국이 자랑하는 생태의 보고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도 뛰어나다. 그래서 '아름다운 청해(大美青海)'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얼사서 티베트 불자 신심 확인

칭하이성에서 불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은 단연 타얼사(塔尔寺)다. 시닝시에서 서남쪽 25km 떨어진 황중현에 타얼사가 있다.

타얼사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6대 사원 가운데 하나다. 부지 12ha에 대금와사, 대경당, 여의보탑 등 1천 개의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다. 티베트 불교의 중흥조 쫑카파가 탄생했다는 자리에 세운 탑이 기원을 상징한다. 쫑카파는 겔룩파를 창종했을 뿐 아니라 '보리도차제광론'을 통해 티베트 불교의 수행체계를 완성한 선지식이기도 하다.

사찰 연기설화에 따르면 쫑카파의 어머니는 그를 낳고 태반을 묻었는데, 그 자리에 한 그루 보리수가 자랐다. 보리수에는 10만 장 잎이 자랐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는 하얗게 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편지와 함께 보내며 돌아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쫑카파는 "제가 태어난 자리에 태반을 넣은 불탑을 세우고 마치 저를 바라보듯 하시면 그리움이 덜 할 것"이라는 답장을 보낸다. 이후 어머니는 아들의 당부대로 탑을 세웠다. 타얼사는 이 탑을 중심으로 1560년 창건됐다.

사찰 입구에서 광장으로 오면 바로 보이는 것은 팔보여의탑(八寶如意塔)이다. 1776년에 석가모니의 8가지의 덕(탄생, 성장, 출가, 고행, 깨달음, 전파, 열반, 가르침)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탑이다.

타얼사의 주법당은 대금와사(大金瓦寺)다. 대금와사는 쫑카파의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만든 탑을 1711년 금으로 개조하면서 그 이름을 얻었다. 지금은 법당 내부에 12m 높이의 다인탑(大银塔)이 자리 잡고 있다. 다인탑을 살펴보면 순은으로 받침판을 만들고 금을 입혀 각종 보석을 끼워 넣었다. 각종 조명, 상아, 꽃병 등이 주변을 에워쌌으며 탑 위에는 쫑카파 존상이 있다.

타얼사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3대 보물로 전해지는 '쑤여우화(酥油花)'와 벽화, 자수다. 매우 세밀하게 그려진 벽화와 양털로 양감을 만들어낸 자수는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쑤여우화로 장엄된 불단의 아름다움에는 쉽게 발걸음을 뗄 수 없다. 쑤여우화는 타얼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야크의 젖을 원료로 한다. 야크의 젖을 발효해서 굳혀서 형상을 만드는 데 온도가 오르면 녹아서 작업은 겨울에 주로 이뤄진다.

쑤여우화를 만드는 스님들은 자신의 손을 섭씨 0도에 가까운 물에 담가 손의 체온을 최대한 낮춘 후 장엄물을 제작한다. 타얼사의 쑤여우화는 별도 전시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곳 쑤여우화 장엄물들은 섭씨 0도를 유지하는 시설에 보존된 상태로 관람객을 맞는다. 장엄물들은 1년에 한 번씩 교체 전시를 하는데 겨울 3개월 동안 제작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타얼사는 1980년대부터 개방했으며, 지금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사중 스님의 보험 등을 책임지고 문화재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현재 사중에는 780여 명의 스님들이 주석하며 수행 중이다. 또한 안에는 4개의 불학원이 있는데 △현종 △밀종 △의학 △실명(역사 · 문화)으로 나눠 교육이 이뤄진다.

타얼사 전각 곳곳에는 티베트 출재가들의 오체투지 수행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오체투지는 언제 봐도 진지하고 숭고하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긍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의 힘은 쑤여우화 같은 '신심의 연꽃'이 있어 가능하지 않았을까.

칭하이성 기행을 이끈 한국불교언론 대표단장 진우 스님(불교신문사장)은 그들의 신심에 대해서 이 같이 말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도 오로지 부처님에게만 집중하며, 불편함을 극복하고 스스로 편안해지려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에게 집중하며 염송하고 오체투지하며, 쑤여우화를 피워내는 그들의 삶은 곧 '선(禪)'입니다."

탕카, 티베트 불교를 그리다

칭하이성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황남장족자치구의 동인현 지역으로 가보는 것도 좋다. 이곳이 티베트 불교회화 '탕카(Thangka)'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지원 · 관리하는 탕카 제작 장인 마을 정도로 보면 된다. 제작부터 판매까지 모두 가능하기도 하다.

자치구 동인현에서 만난 시야오지엔초 티베트 탕카 국가문화재 보유자는 탕카에 제작 방법과 과정에 대해 설명해 줬다.

탕카의 주요 제작은 광물질인 주사, 귀주 등 석채로 이뤄진다. 금, 은, 보석도 많이 사용된다. 채취한 석채들은 소가죽으로 된 포장지로 보관한다. 이는 벌레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석채와 함께 수많은 약재들이 함께 사용한다.

시야오지엔초 작가는 "광물에는 독성이 많아 중의학 약재를 섞어 해독한다. 또한 안료가 쉽게 응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탕카가 진귀한 이유는 다양하고 귀중한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어서"라면서 "고가의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 정부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자금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닝의 서장문화박물관에서는 1000m 길이의 탕카를 만날 수 있다. 장대한 길이의 탱화에는 티베트 민족의 기원 설화, 역사, 문화를 비롯해 티베트 불교의 시작, 우주론, 사상, 신앙, 의학 등 방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탕카에 들어간 인물은 18만 명으로 겹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석채 마련, 자료 수집 등 제작 준비기간만 23년이 걸렸으며, 400명의 화사(畵師)가 투입돼 4년동안 제작됐다. 제작비만 77억 원이 들어갔다.

쑤여우화도 탕카도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신심의 연꽃이다. 중요한 식재료인 야크의 젖과 희귀한 광물과 약재, 보석을 아끼지 않고 불상과 불화에 사용하는 정성은 한국 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호수 청해호.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며 '신심의 연꽃'을 피워낸 사람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칭하이성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들이다.



티베트 고유 불화인 '탕카' 작품. 현재 중국 국가무형문화재다.



한국불교언론 대표단장 진우 스님이 등공양을 하고 있다.



황남장족자치구 동인현 지역에서 만난 티베트 동자승들.

길 따라 日신불습합 신앙 확인하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㉘ 41~43번 사찰까지 여정 〈下〉



논이 펼쳐진 미마평원, 42번 사찰 부츠모쿠지로 향하는 길이다.



부츠모쿠지 관음보살상과 술 공양물. 일본 특유 신불습합 신앙을 보여준다.

42번 부츠모쿠지 관음상 앞에
술 공양이 가득… 처음엔 당혹
신불습합 과정서 생겨난 전통
43번 사찰도 신불습합 강한 영향

41번 류코지(龍光寺)에서 42번 부츠모쿠지(佛木寺)까지는 2.5km 정도의 짧은 거리. 언덕길을 넘어 좌우로 논밭이 펼쳐진 미마(三間)평야를 지나간다. 어딜 보아도 작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니 류코지의 창건설화에 오곡의 신이 나올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이곳을 순례할 땐 작렬하는 태양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저 땅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 다만 사찰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을 위안을 삼고 있던 찰나 길 건너에서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돌아 봤다.

"순례자님! 국수 먹고 가세요!"

길 건너엔 양로원에서 마침 점심을 먹던 중이었는지 나를 불러 세운 것이다. 마침 시장하기도 했고 무더위에 지친지라 사양 않고 초대를 받아 들였다.

마침 그날은 지역의 유치원에서 양로원 견학 겸 위문을 위해 아이들이 와있었고, 어르신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 날이었나 보다. 양로원 마당에 크게 차양을 치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국수를 먹는 모습이 재미있다. 일본의 여름 풍경 중 하나로 꼽히는 '나가시 소멘(流し素麺)'을 설치한 것이다.

나가시 소멘은 반으로 길게 자른 대나무나 파이프에 물이 흐르게 하고, 작게 만 국수를 흘려 보내는데 이것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것이다. 나도 일본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종종 본 장면이지만, 우연히 초대를 받아온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신기했다.



일본의 여름음식 '나가시 소멘'. 국수를 물에 흘려 내려보내면 건져 먹는다.

배낭을 풀고 자리에 앉자 어린아이가 접시에 주먹밥과 장아찌 몇 조각을 담아왔다. 옆의 선생님이 위문을 위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러면서 마침 좋은 기회니 순례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어도 되겠다고 물어 오길래 기꺼이 받아들였다.

"여러분 여기 이 분은 '오헨로상(순례자)' 에요! 시코쿠에 있는 88곳의 사찰을 걸어서 순례하는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거에요!"

이어지는 물음에 1번부터 지금껏 걸었으며, 한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다들 놀란다. 한여름에 순례자가 드물거니와, 한국에서 일부러 순례를 위해 온 것은 처음 본다고 한다. 덕분에 잘 얻어 먹고, 할머니들이 만드신 찐빵까지 선물로 받았던 추억이 깃든 아름다운 길이다.

42번 부츠모쿠지(佛木寺)는 멋진 산문이 순례자들을 반겨주는 깔끔한 도량이다. 사찰의 연기설화에는 코보 대사가 길을 지나는데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잠시라도 편히 가시라며 자신의 소에 대사를 태웠다고 한다.

노인의 소를 타고 가던 중 산 중턱에 빛이 나는 나무가 있어 다가가 보니 나무위에 보석구슬이 빛나고 있었다. 구슬을 살펴보니 대사님이 당에서 귀국할 때 인연이 있는 땅을 찾길 바라며 일본을 향해 던졌던 물건이었다. 이에 이곳이 인연처임을 알고 구슬이 걸려 있던 나무로 대일여래를 조성하고, 구슬을 백호로 박아 봉안한 것이 부츠모쿠지의 시작으로 전한다.

또 소를 타고 가던 중 이 땅을 찾았기에 가축들이 병이 나지 않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영험이 있는 사찰로 유명해졌다. 본당 옆에 작은 사당이 있어 대사님을 태우고 온 소를 기리고 있으며, 농가에서 죽은 가축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 지역에선 매년 파종이 끝나고서 이곳을 참배하고 절의 호부(護符)를 받아 축사의 기둥에 붙이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혹설엔 소를 태워준 그 노인이 41번 류코지의 이나리신이었다고도 하니 이래저래 농업과 관련이 깊은 도량이다.

부츠모쿠지 경내에 들어서자 마당의 관세음보살상이 순례자들을 맞아준다. 헌데 공양물이 묘하다. 보살상 앞 한쪽에 술이 가득 쌓여있다. 그것도 공양물이라는 표시와 시주자의 이름까지 당당히 쓰여 있다. 처음엔 '어찌 청정한 도량에 술을, 그것도 불전에 공양물로' 라며 의아하다 못해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후에 한 일본 스님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 불전에 술을 올리는 것은 역시 신불습합기의 전통으로, 일본의 신사에서는 신에게 매일 청주와 맑은 물, 생쌀, 소금을 제물로 올리는 데 이것이 불교에 들어온 것이다. 또 청주와 소금은 일본에서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고, 둘 다 사람이 만들기 위해선 오랜 공력을 들이는 것이기에 귀한 공양물로 취급 받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공양이 들어온 술을 퇴공해서 참배 온 이들이나, 절에서 묵는 손님들에게 접대하기도 하니 사찰 측으로서는 감사한 공양물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해는 갔지만 상단에 술이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의 문화에서 보자면 꽤 이질적인 모습이다.

참배를 마치고 43번 메이세키지(明石寺)를 향해 나아간다. 11k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하나가도게(歯長峠)라는 가파른 고갯길을 하나 넘어가야 하기에 조금 힘이 든다. 다만 순례자들 사이에 몇 년 전 큰 산사태로 고개를 넘는 옛 순례길은 통과할 수 없으니, 터널을 이용하라고 전해지고 있다. 으레 터널로 통하는 길을 잡으려는데 코에이 씨가 고갯길이 열려있다는 말을 한다. 예전에 만난 어느 순례자가 "길이 험하긴 하지만 통과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동해 모두 고갯길로 통하는 등산로로 향한다. 입구에 붉은 글씨로 크게 통행금지라는 간판이 서있었으나 누군가 작게 "통행가능, 자기 책임을 가지고 조심하시오"라고 써 두었다. 코에이 씨가 간판을 지팡이로 쿡쿡 찌르며 "뭐가 불가라는 거야!"라곤 거침없이 등산로로 들어섰다.

하나가도게 고개가 가파르단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과연 소문에 맞게 가파른 길들이 이어졌다. 심지어 길옆으로 잡고 오를 수 있도록 쇠사슬까지 걸려있었다. 그래도 걱정한 것에 비해 길이 아주 험하거나 위험한 길이 없어 정말로 '뭐가 불가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잠시, 고갯마루에 다가와서 위험한 길이 나타났다. 산사태로 원래 있던 길이 완전히 깎여 내려 간 것이다.

세 사람이서 한창을 신나게 올라오다가, 갑작스레 길이 쓸려간 모습을 보노라니 황당해서 너털웃음이 나왔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무너진 등성이를 따라 한 사람이 지날 수 있는 길이 나있었다. 그제야 입구의 '자기책임' 이란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올라온 길을 다시 돌아가긴 어려우니 한사람씩 조심해서 나아간다. 무너진 길을 빠져나가니 곧 고갯마루에 오를 수 있었다. 긴장을 풀고 잠시 쉬려했지만 모기와 풀벌레들이 너무나 많아서 곧 하산 길을 잡았다. 하산은 올라올 때에 비해서 쉽게 내려갈 수 있었다.

고갯길을 내려오자 금세 메이세키지가 있는 세이요(西予)시에 들어섰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져가고 오늘밤은 어디서 자나 하고 조금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도 사찰에 가면 벤치나 휴게소가 있겠거니 43번을 향해 나아갔다. "순례에 무엇이 두려우랴, 여차하면 순례공덕으로 좋은 곳 가겠지"라며 농담을 하던 것이 이젠 순례의 든든한 신조가 됐다.

메이세키지(明石寺)는 코보대사가 태어나기도 전, 6세기경에 세이쵸(正澄)라는 이가 중국에서 모셔온 천수관음을 본존으로 모시고 처음 세웠다고 전한다. 하지만 일본의 불교 전래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확하지 않기에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른 시기에 사찰이 창건 됐고, 코보 대사에 의해 중흥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사찰의 이름은 메이세키지의 오쿠노인(奥院)인 하쿠오 곤겐(白王権現) 사당의 전설에서 유래한다. 한 아름다운 여신이 소원을 빌며 거대한 돌은 안고서 메이세키지를 오다가 그만 날이 밝아 들고 오던 돌을 두고 사라졌다고 한다. 이 전설에서 이름이 유래하고, 그 돌을 두고 떠난 자리에 사당을 세운 곳이 하쿠오 곤겐으로 전한다. 또 이런 신화나 전설이 많다보니 메이세키지는 신불습합이 강한 도량으로 사찰의 본당 옆에 신사가 세워져 함께 모셔져 있다.

메이세키지에 도착하자 어느덧 해는 넘어가고 어스름한 빛만이 남은 저녁이 됐다. 일단 간략하게 참배를 하고서 잘 곳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지만 그 흔한 벤치하나 보이질 않았다. 그나마 있는 곳은 몸을 누이기에는 힘든 위치였다.

홋카이도 팀이야 텐트를 들고 다니니 고른 땅만 있으면 된다지만, 나는 매트와 침낭만 들고 다니니 조금 곤란했다. 본당에서 주차장까지 메이세키지 경내 전체를 몇 차례나 오르락내리락 한 끝에, 주차장 옆 건물의 처마 밑으로 노숙 장소를 정했다. 몇 번 노숙을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열린 노숙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 됐지만 별 수가 없었다. 홋카이도 팀도 혹시 모르니 옆에 있어 주겠다며 내 노숙 장소 옆으로 텐트를 쳤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주변은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숲이 우거져 달빛도 들지 않는 곳. 바람에 흔들리는 풀 소리에도 긴장해 정신이 번뜩 들었다. 하지만 이윽고 "부처님 도량이 옆이고, 대사님이 항상 함께하시는 순례인데"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순례에 무엇이 두려울까! 코끝을 스치는 산바람을 느끼며 잠에 들었다.

〈자유기고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4~9/1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비움과소통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도해 운명을 바꾸는법	석심전/김진무	불광출판사
3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유식,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혜	요코야마 코이츠/안환기	민족사
4	팔천송반야경(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전순환	불광출판사	9	청송골 수행기(교조소에서 온 편지)	편집부	지혜의눈
5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	정진원	조계종출판사	10	도해 람림, 깨달음의 길을 말하다	쟈써/석혜능	부다가야

"원력,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 하는 것"



원력의 화신

유철주 지음/상상출판 펴냄/1만 5500원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우 스님, 보각 스님, 정념 스님, 능혜 스님, 덕문 스님, 경암 스님, 무각 스님, 선업 스님, 일묵 스님, 계호 스님, 명법 스님, 호당 정사 · 정진심 전수, 김영동 학장, 김성림 회장, 이기흥 회장, 이해모 위원장

부처님 가르침 전한 수행자 16인 원력 소개

"금강석 보다 단단한 결심 없으면 성취 못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원력이란 불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갖는 내적인 결심과 그에 따르는 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는 원 · 서원(誓願) · 행원(行願) 등으로도 표현하지만, 내면적인 원은 결코 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과 힘은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력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불도를 닦는 보살은 반드시 원을 세워야 하고, 그 원을 성취해 성불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보살이 인위(因位)에서 세우는 원을 본원(本願) 또는 인원(因願)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살의 기본적 원은 부처가 되고자 맹세하는 원작불심(願作佛心)과 중생을 교화하고자 하는 도중생원(度衆生願)으로 대별된다. 이를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원(下化衆生願)이라고 한다. 불교의 거의 대부분의 부처와 보살은 그들의 본원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불교가 채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장비구(法藏比丘)가 극락정토를 건립키 위해 세운 48대원(大願)과 약사여래의 12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등을 들 수 있다.

〈원력의 화신〉을 쓴 유철주 작가는 "원력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단순한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석보다 단단한 결심이 서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이어 "이번 책에 모신 수행자들의 원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이번 생에 반드시 대중들의 삶에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과 실천 의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뤄가는 과정 못지 않았다. 각자 분야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다.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면서 적지 않은 가르침을 듣고 배웠다.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실천. 오늘도 '원력'을 가슴에 새기고 새긴다"며 집필 소감을 밝혔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책을 써온 지 10여 년 만에 8번째 책이 나왔다. 쉬엄쉬엄해도 될 법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존경받을 자격이 충분한 수행자들을 사람들에게 '자랑' 하고 싶어 쉬지 않고 달려왔다.

원로 선지식(善知識)들의 수행 이야기를 담은 〈산승불회〉를 쓸 때만해도 이렇게 많은 책을 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산승불회〉 한 권만으로도 부처님께 밥값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권, 한 권 책을 펴낼 때마다 훌륭한 수행자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로지 대중들에게 그분들의 삶과 노력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원고지 한 페이지씩 채워 나갔다. 아직도 책으로 모시지 못한 많은 분들을 어떻게 알릴지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는 저자 유철주는 "이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연 지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한다.

이번 책의 주제는 원력(願力)이다. 부처님 말씀이나 가르침을 살펴보면 원력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홍서원(四弘誓願)이다. 법회를 마치면서 다함께 부르는 다짐의 노래인 사홍서원은 1)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2)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3)법문무량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4)불도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으로 구성돼 있다.

〈법화경〉 '약초유품'에 나오는 원력에 관한 4가지 서원도 비슷하다. 첫째, 해탈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결정코 그를 해탈케 하겠노라. 둘째, 부처님의 바른 정법이나 정견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반의 묘심을 기필코 알게 하겠노라. 셋째,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못한 이가 있으면 결정코 행복하게 하겠노라. 넷째, 열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열반에 이르도록 하겠노라.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원력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상구보리하화중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이번 책에 모신 수행자들은 이번 생에 반드시 대중들의 삶에 도움을 주겠다는 다짐과 실천의지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뤄가는 과정 못지 않았다. 각자의 분야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다고 저자는 책 속에서 피력한다.

책 속에서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면서 적지 않은 가르침을 듣고 배울 수 있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실천, 그 '원력'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좋은 시는… 마음에 번저 가는 시



자연 관조와 명상, 시가 되다

백원기 지음/운주사 펴냄/1만 8천원

한국 근현대 시인들 중에서 '자연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면서 빛나는 서정 세계를 일궈낸 작가'들을 가려내 그들의 시세계를 농밀히 들여다보고 읽어낸 평론집이다. 저자는 작가 21명의 대표적인 시들을 소개하면서, 그 시들이 품고 있는 의미와 속내에 치밀하게 천착해, 이를 통해 문자 너머 시인의 내면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광수, 정지용, 박종화, 신석초, 정완영, 김상옥, 조지훈, 조병화, 신달자, 조창환, 이상국, 문정희, 최동호, 황지우, 최승호, 나병춘, 공광규, 이정록, 이홍섭, 장석남, 김선우 등등.

이처럼, 한국문학사에서 나름대로 발자취를 남긴 작고 문인들과 현재 시적 성취를 이루어가는 현역 원로 및 중진, 그리고 신진 시인 21명을 대상으로, 저자는 그들의 작품 속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신의 긴장과 폭력, 분단과 전쟁, 가난과 슬픔, 생태위기와 생명연대의식, 그리고 비움과 버림의 세계관'과 맞닿은 다양한 시학을 담론으로 삼아, 각각의 시들이 품고 있는 내밀한 의미와 더불어 시인들의 내면과 정신세계를 추적한다.

사실 한반도의 근현대사는 그야말로 격동과 변화, 변혁의 소용돌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물론이고 삼라만상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존재인 시인은 응당 그런 역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내고 성찰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며, 절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노래하기도 했다.

저자의 말처럼, 인간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그것을 과시하며 끊임없이 대립한다. 때문에 근원적인 삶에 대한 의문을 우주에 던지고 그곳으로부터 답을 찾으려 하는 시인들은 자연 속을 거닐며 자연과 스스럼없이 교감하고, 마음에 이는 파문을 주시한다. 그래서 자연을 관조하는 일은 곧 자신을 들여다보는 명상이다.

생명경시가 만연한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상실과 불안감, 고독과 소외감은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다. 때문에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슴을 적시며 영혼의 울림을 주는 '자연과 명상'의 시는 마음을 정화시켜 주고 흐렸던 정신을 맑게 해준다. 아픈 영혼을 힐링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 책이 던져 주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이 책에 실린 시인들은 자연 친연성을 바탕으로 한 존재의 상호연기에 대한 깊은 천착을 드러내 보이는 시세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다분히 불교의 화엄적 상상력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므로 자연과의 일체감을 추구하면서 빛나는 서정 세계를 일궈낸 사유의 시들은 세상에 붙지 말고, 세상을 탈 줄 아는 반야왕거미의 지

자연 관조, 자신 들여다 보는 명상

사유의 시는 치유의 힘도 보여줘

혜를 일러줄 뿐만 아니라 배려와 연민, 그리고 공감으로 끊임없는 명상과 치유의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바로 이 책에 실린 시들이 보여주는 치유의 힘이다.

모든 존재는 개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서로 물감처럼 번지며 또 다른 하나를 완성해 나간다. 여름이 번져 가을이 되고, 꽃이 번져 열매를 맺고, 저녁이 번져 밤이 되고, 나는 네게로 번지는 것이다. 이것은 바뀜이 아니라 번짐이다. 결국 번진다는 것은 경계와 경계를 무너뜨리는, 더 큰 하나로 전이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주고받음의 상쇄에 의해서 경이롭게 열리고 닫히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세계를 말한다. 그래서 좋은 시는 마음으로 번져가는 시이고, 마음으로 읽는 시이며, 상생과 공감의 시로 읽히는 것이다. 이 책이 바로 좋은 시, 좋은 시인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구마라집 역 금강경의 온전한 이해!

금강경 요해



각 분마다 그 대의와 맥락을 설명하고,
원문 문장 및 개념에 대해 상세하고 쉽게 풀이하며,
각 분의 마무리에서는 선적 일화를 제시하였다.
부록으로 과거칠불 및 삼십삼조사의 게송과 독송용 금강경 수록!

백납 노우 지음/신국판/336쪽/값 15,000원



중국 선종의 중흥조, 마조 선사의 가르침!

마조어록 역주

각종 선종 사서에서 마조선사 및 그 제자들과 관련된 기연어구를 뽑아냄으로써, 중국 선종사에서의 선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하였다. 원문은 물론이고,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과 주요 한자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에 버금갈 정도의 방대하고 상세한 주석이 돋보인다.

마조도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592쪽/값 28,000원



불면증, 즉각 벗어날 수 있다

절망에서 길어 올린, 불면증의 실체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 하나로 불면증이 사라진다!

"갑자기 잠이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약들 다 버렸습니다." (-치유 후기 중에서)

김명주 지음/신국판/304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별빛과 함께하는 청량사 산사음악회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장사익과 별빛나들이'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의 소리꾼으로 불리는 음악가 겸 국악연주가 장사익 씨가 이끈다. 사진은 2018년 열린 청량사 산사음악회 모습.

청량사 산사음악회 '장사익의 별빛나들이'
10월 5일 오후 7시 봉화군 청량사 경내
장사익, 청량사둥근소리합창단 등 출연

가을 풍경이 아름다운 도량 청량사(주지 지현)가 산사음악회로 가을을 시작한다. 경북 봉화군 청량산 청량사는 10월 5일 오후 7시 경내 무대서 2019 청량사 산사음악회 '장사익의 별빛나들이' 를 개최한다.

'장사익과 별빛나들이'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의 소리꾼으로 불리는 음악가 겸 국악연주가 장사익 씨가 이끈다. 산을 오르듯 인생을 노래하는 소리꾼 장사익과 한 편의 시를 읊듯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대중적이면서도 풍부한 예술성으로 활동하는 팝페라 그룹 퀸스틀러, 흥과 멋을 담은 전통연희단 잽이, 아름다운 마음만큼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청량사의 둥근소리합창단이 가을밤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사한다.

청량사 산사음악회의 음악은 눈으로 듣는 맛이 또 하나의 매력이다. 가을이 아름다운 청량산 기슭에 안긴 청량사의 풍경과 화려한 조명의 무대가 어우러져 음악의 빛깔을 더한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별빛나들이' 라는 테마가 더해져 가을 밤하늘의 별빛들이 음악의 깊이를 더한다.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우리 인생은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기쁨 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인생을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듯 노래하는 사람, 소리꾼 장사익 님과 별빛나들이를 떠나 볼까 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다 추억이 되는 날 있으니 우리 여기 청량사 도량에서 별빛 마중 한 번 나가 보면 어떨까요? 청량사의 가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도량 청량사 하늘 위로 초롱초롱하게 걸린 별빛들은 외롭고 지친 대중의 가슴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며 "별빛들과 함께 하는 청량사 산사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량사 밤하늘을 밝히는 별빛나들이 길에 함께 하시어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고 했다.

이번 공연을 이끄는 장사익 씨는 1994년 '장사익 소리판 하늘로 가는 길' 로 데뷔했다. 8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국회 대중문화상, 미디어 대상 국악상 등 다수 수상했다. 대표곡은 찔레꽃, 꽃구경, 봄날은 간다. 님은 먼 곳에, 장돌뱅이 등이 있다.

가수 박강수는 2001년 1집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집의 음반을 발표했다. 제18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여자포크싱어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꾸준히 라이브공연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곡으로는 영화 마파도 ost 비둘기에게,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가을은 참 예쁘다, 사람아 사람아 등이 있다.

전통 연희단 잽이는 국악 전공자로 이루어진 전문 연희 단체이며 사물놀이, 사물판굿 창작 모듬북 퍼포먼스 작품 등 다양한 공연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UN세계관광기구(WTO) 환영만찬 초청공연(울산 함월루), 러시아 우수리스크 초청공연 등 다수 공연했으며, 2019년 풍류열전, 부산영남지역 청춘마이크에 선정됐다.

퀸스틀러(팝페라)는 대중적이면서도 풍부한 예술성으로 활동하는 전문 팝페라 그룹이다.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지휘 · 이종만, 반주 · 류지영, 단장 · 손현숙)은 2014년 창단해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경북, 봉화, 영주,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합창단이다. 2015년 제1회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여섯 번의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사회를 맡은 정유탁은 KBS, MBC, BBS 등에서 각종 문화공연과 공개방송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연등회 축제 회향한마당, 청량사 산사음악회 등을 진행했다.

'구름으로 산문을 지은 청정도량' 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정함과 고귀함, 신비스러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청량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송광사 16국사의 마지막 스님인 법장 고봉선사에 의해 중창됐다. 청량산의 문수봉, 금탑봉, 연화봉, 반야봉으로 둘러싸인 청량사에는 공민왕이 현판을 쓴 지방유형문화재 유리보전과 김생이 공부하던 김생굴, 퇴계 이황이 수도하며 성리학을 집대성한 청량정사, 최치원의 유적지 고운대와 독서당, 공민왕당 등의 유적들이 있다. (054)672-1446

조선 불교미술 가치의 이해

'조선시대 불교회화에 대한 이해' 강좌
무수아카데미 9월 19일~11월 14일 총 8회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집중 탐구와 불교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특강이 열린다. 전통불교미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비로운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수아카데미는 9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7시부터 8시 30분까지, 총 8회) '조선시대 불교회화에 대한 이해'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무수아카데미의 2019년 상반기 강좌 '고려시대 불교회화의 분석과 이해' 를 잇는 하반기 강좌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번 강좌는 △제1강(9/19) 석가모니불 관계 불화 △제2강(9/26) 팔상도와 영정 △제3강(10/10) 비로자나불 관계 불화 △제4강(10/17) 아미타불 관계 불화 △제5강(10/24) 명부 관계 불화 △제6강(10/31) 신중도 △제7강(11/7) 칠성도 · 산신도 △제8강(11/14) 조선시대 괘불화 순으로 진행되며 강의는 김창균(前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교수) 교수가 맡는다. 이번 강좌는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귀족불교' 로 불리며 왕실의 후원이 주를 이루는 고려시대 불화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보편화되는 조선불화는 곧 대승불교의 대중화를 의미한다. 현재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불화는 대부분 조선불화로 이번 강좌에서는 매주 각기 다른 주제의 불화를 집중분석함으로써 불화의 양식이 고려불화에서 벗어나 점차 조선불화양식의 특징을 정립하기에 이르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불교미술의 예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강의를 진행하는 김창균 교수는 한국불교미술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소암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02)720-3554. 박재완 기자

'고려 보물 속 들여다보다'展 연장

9월 29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3층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지난 6월 12일부터 상설전시관 3층 청자실 옆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의 전시 기간을 9월 29일까지로 연장한다.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문화재를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고려 보물의 속을 들여다보다' 전은 건칠보살좌상과 청자 어룡모양 주자(국보 제61호) 등의 고려시대 유물과 '대고려 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2018. 12. 4~2019. 3. 3)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보존과학의 성과와 역할을 전시유물의 상태점검, 과학적 조사, 보존처리 및 전시실 보존 환경측정 등의 영상 자료로 보여준다. 보존과학부를 통해 최근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문화재 속의 정보들을 새롭게 밝혀나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번 전시는 초 · 중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려시대의 보물 중 청자 어룡모양 주자, 청자 칠보무늬 향로(국보 제95호) 등 국보 4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중요 문화재의 비밀을 풀기 위하여 컴퓨터 단층촬영(CT) 이미지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새롭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 디지털 영상으로 구현된 청자는 청자실에서 직접 실물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려시대 금동십일면천수관음상의 보존처리 내용을 소개하고 은제 금도금 표주박모양 병의 자세한 관찰을 위하여 디지털 돋보기 등도 함께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의 연령과 상관없이 새로운 차원의 전시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고려청자를 애호하는 관람객의 호응이 컸다. 또한 외국인 관람객과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02)2077-9000.

박재완 기자



"불복장, 백양사 중심으로 계맥 전승"

불복장 의식 보존회, 7일 묵담대종사 학술대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된 불복장에 대한 전반적 사상과 내용, 계보를 학술적으로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 전통 불복장 의식 보존회는 9월 7일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도월 수진 스님 계열 전통 불복장 점안작법 중흥조 묵담대종사와 그 후계자 도월수진 스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 금붕사 주지 수암 스님은 '묵담대종사의 불복장 중흥과 전승' 주제 발표에서 묵담대종사를 중심으로 한 불복장 의식의 계보를 정리했다.

묵담대종사 선 · 교 · 율을 겸비한 선지식으로, 불교조계종 5 · 6 · 7세와 한국불교태고종 3 · 4세 종정을 역임했다. 또한 해동율맥을 이은 제9대 율사이자 전계화상으로, 모든 불사에 작법증명하는 증명법사로도 널리 알려졌다.

수암 스님은 불복장 의식이 "묵담대종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백양사 계보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스님에 따르면 삼국시대부터 명맥을 이어 온 불복장의식은 조선시대 용허화악 스님 등에 의해 정리된 이후, 조선후기 호남지방에서 활약한 고승 연담유일(1720~1799) 선사에게로 이어졌다. 연담유일 선사의 맥은 화담법인 스님과 금해관영 스님을 거쳐서 묵담성우 스님에게로 전해졌다. 이는 다시 수진 스님에게 이어지고 있다.

수암 스님은 "현재 불복장 작법은 대부분 백양사를 중심으로 전해져 내려온 계보를 잇고 있다"면서 "백양사 중심으로 계보가 전승된 묵담대종사를 중흥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복장의식은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복장물목이 소박해지고 절차가 약소해지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묵담대종사는 계율을 지키는 율사로서 불복장 의식을 원형 그대로 보존 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해동 율맥 9대 율사 묵담대종사 가 아니었다면 의식의 전통은 무너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암 스님은 묵담대종사의 의맥(儀脈)을 계승한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의 전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스님은 "오늘날 불복장이 얼마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복장물을 조성 · 안립하고 있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전수받은 수진 스님의 불복장물 조성과 안립 절차는 많은 연구와 더불어 전수자 양성을 통한 의식절차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묵담대종사 진영.

'묵담→수진' 의식 계보 조명
조선시대 용허화악 스님 정리
연담→화담 · 금해→묵담 계승
"율사인 묵담 원형 보존 노력"

이종수 순천대 교수는 '담양 용화사 도월 수진 스님의 불복장 작법 계승과 전승 활동'을 통해 수진 스님의 전승 활동을 조명했다.

이종수 교수는 "수진 스님은 묵담대종사와의 인연으로 출가하고 백양사와 해인사 강원을 거쳐 다시 용화사로 돌아와 대종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제자 가운데 수진 스님이 대종사의 후계자가 돼 법맥 · 율맥 · 의맥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대종사를 시봉하면서 지금까지 용화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복장 전통 작법 등 계승되고 있는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에서 수진 스님의 전통 계승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에서는 △이중표(전남대)의 '불복장 작법의 사상적 배경' △이승혜(리움박물관)의 '불복장 작법의 발생과 전래' △남권희(경북대)의 '담양 용화사 소장 불복장 작법 관련 필사본의 서지적 가치' 등이 발표됐다.

대행 선사 생애와 교화행 살핀다

대행선연구원 9월 21일 제5회 계절발표회

대행 선사의 생애와 교화행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9월 21일 오후 1시30분 안양 한마음선원 3층 제5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교화행과 계율 실천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표 논문은 황상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의 '대행 선사의 생애와 교화행',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의 '오계 실천의 의의- 불살생계를 중심으로'이다.

논평자로는 법장 스님(해인승가대), 백도수(능인불교대학원대학), 김광식(동국대), 이상호(대행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널리 알리고, 주요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학술대회 및 4번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선학과 불교학 중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불자들의 참석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효 저술 고전 '이장의' 한글화 됐다

동국대 ABC사업단 간행… '몽암대사문집' 등도

원효 저술과 관련 주석서가 한글화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장의〉 〈지범요기조람집〉 〈몽암대사문집〉을 간행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이장의(二障義)〉는 원효(元曉, 617-686) 스님이 불교의 번뇌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저술이다. 원효 스님은 유식학파에서 확립된 번뇌장(煩惱藏)과 소지장(所知障)의 이장(二障)과 〈대승기신론〉에서 유래한 번뇌애(煩惱礙)와 지애(智礙)의 이애(二礙)를 하나의 체계 안에 포섭함으로써 당시까지의 불교의 번뇌설을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이장의〉는 안성두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옮기고, 은정희 前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증의했다.

〈지범요기조람집(持犯要記助覽集)〉은 원효 스님이 지은 보살계본 관련 글인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에 대한 일본 승려 진원(眞圓)의 주석서이다.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는 8세기 이후 일본에 전해졌다. 진원은 1282년 원효의 책을 강의하면서 이 책에 나온 인용의 출전을 낱낱이 밝혔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함으로써 원효의 보살계 사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옮겼으며, 은정희 前교수가 증의를 맡았다.

〈몽암대사문집(夢庵大師文集)〉은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조선의 승려 몽암 기영(夢庵箕穎)이 남긴 시문집이다. 몽암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가 지리산을 기반으로 전국의 절을 다니며 운수행각(雲水行脚)하였다는 것이 이 문집에 잘 드러나 있다. 지리산은 물론이고 해인사와 공주 일대의 사찰과 관련된 글이 많고, 또한 금강산과 금강산을 오가는 길목의 강원도 일대 지역과 관련된 시문도 여러 편이어서 그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된다.

몽암의 시와 문을 보면 그가 유가나 도가의 문헌뿐 아니라 사서(史書)와 중국 시인의 시구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장자와 소동파(蘇東坡)의 영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던 몽암의 문집이 번역됨으로써 조선 후기 불교계의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접할 수 있게 됐다.

신성민 기자



"삼회향놀이문화 학술 가치 재조명"

(사)아랫녘수륙재보존회 불교의식음악 학술대회

삼회향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사)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수륙재보존회(회장 석봉, 이하 아랫녘수륙재보존회)는 8월 30일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제10회 불교의식음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삼회향놀이 전반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주요논문으로는 △'삼회향의 역사 · 문화적 의미와 가치'(최헌, 부산대) △'삼회향과 땅설법'(허용호, 동국대) △'충북 무형문화재 제25호 단양 구인사의 삼회향놀이'(석용 스님, 문강사) △'불교 놀이문화로서 삼회향놀이의 무형유산적 가치와 전승 방향'(김형근, 동아대) 등이 발표됐다. 석봉 스님은 "삼회향놀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족적 · 요가 등 응용분야 논문 '눈길'

동국대 2019년 하반기 불교 박사학위는 (下)

동국대(총장 윤성이)에서 올해 상반기 불교 관련 박사 16명이 배출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박사학위 논문을 정리해 기재한다. 저자 요청으로 미공개된 논문들은 제외했다.

법진 스님(대학원 인도철학과)은 '불족적의 상징체계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동남아시아에서 불족적은 종교적 대상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역사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현실세계의 구심점"이라며 "통치자들이 담마라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들은 뜻하지 않게 불교를 현실참여의 형태로 발전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시아의 불족적은 초기의 불족적과는 완전히 다른 동남아의 역사와 정치라는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봤다.

휴담 스님(대학원 선학과)은 '원오선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논문을 통해 〈원오심요〉와 〈벽암록〉을 중심으로 원오선의 본질을 고찰했으며, 대혜선에 미친 영향은 대혜의 화두 참구법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양영순 박사는 '자이나교의 요가 명상론 연구'에서 "한국 사회에도 종교성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치유 및 자기 계발 수단으로서 확산되고 있다. 현대 요가와 명상의 인도적 기원을 이루는 자이나교의 수행론과 요가 명상론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일 것"이라며 "생명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철저한 윤리의식에 기반하여, 탈속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자이나교의 요가 명상론이 현대 요가 명상 분야에서 인도적 수행의 전통적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희숙 박사(대학원 미술학과)는 '조선말기(19세기) 관경변상도(觀經變相圖)의 도상학적 연구'에서 "19세기 관경변상도는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된다"면서 "대중이 추구하는 왕생사상과 문화적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석곤 박사(대학원 미술학과)는 '월주문파의 불교회화 연구'에서 "월주(月洲)문파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근대기를 거쳐 현대까지 화맥(畵脈)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현서 스님(대학원 한국불교융합학과)은 '한국전통 불교문헌 영어 번역 방법론 연구'를 통해 묵암 최눌(默庵最訥)의 〈묵암집(默庵集)〉 번역 사례로 불교문헌 영어 번역 방법을 제안했다.

송봉주 박사(대학원 미술학과)는 '인도 불교석굴과 불탑 연구- 차이티야굴을 중심으로'로, 최주연(대학원 미술사학과)는 '중세 동아시아 교류와 고려동경 연구'로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군가를 마주할 수 있는 것도
바람에 실려 오는 풍경소리도
숲에서 만나는 선사의 마지막 법문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늘 '오늘' 이었음을
오늘이 다 가기 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㊵ 소녀가장 최정은

하늘도 감동시킨 효녀 가장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홀어머니를 위해 9년째 병수발 하던 소녀가장 최정은(당시 나이 15세)을 처음 만난 것은 1993년 경으로 기억된다.

정은이는 부산 금정산 자락에 허름하게 지어진 움막집에 병든 어머니 강순애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궁암, 직장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6년째 투병중이었다. 병원 갈 돈도 없고, 치료시기를 놓쳐 강씨의 병은 돈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

그런 강씨에게는 하루 수 차례씩 끔찍한 진통이 찾아오는데, 달인 정은이가 그 횟수만큼 진통제 주사를 놓느라 어머니 곁을 항상 지키고 있었다. 모든 것을 비관한 어머니 강씨는 정은이와의 동반 자살을 수차례 시도 하기도 했다. 두 모녀에게 찾아드는 온갖 고통과는 아랑곳 없이 밝고 착하게만 커가는 정은이 때문에 강씨는 자살 직전 번번이 포기해야만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처럼 죽음 직전의 어머니를 나이 어린 딸이 지극 정성으로 간병하기에 하늘이 도운 건지, 병원서 포기한 강씨의 직장암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주변에서는 "정은이의 효심에 하늘이 감복한 것"이라고 모두들 자기일 처럼 기뻐했다.

어머니 강씨에게 암이 찾아온 것은 정은이가 여섯 살때인 1984년 봄이었다. 한창 어린 나이에 어리광으로 부모의 사랑속에서 유치원이나 다닐 나이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석에 눕게 되자 졸지에 간호사 역할을 해야만 했다. 난생 처음 만져본 주사기로 어머니에게 진통제를 놓아야 했다. 무면허 돌팔이 의료행위(?)를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것이다. 태어난지 1개월만에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는 헤어지고 홀어머니 그늘서 자란 정은이는 졸지에 소녀가장이 되었다.

정은이를 보자 나는 살아 있는 보살이요 천사란 생각이 들어 적극 돕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연말에 부산 태화백화점 8층서 정은양 돕기 모금 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정은이가 평생 소망하던 모녀 제주관광여행도 1996년에 주선해 주었다. 제주연꽃모임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최정은 어린이 가족 여행에는 어머니 강순애 보살과 그녀의 84세 친정어머니 등 3대가 동참했다. 효도관광인 셈이 됐다.

2박 3일 일정으로 첫 날에는 서귀포시 소암 선생댁과 약천사, 대포 바닷가를 둘러보았고, 다음날에는 홍법정사서 보은법회를, 그리고 성산일출봉과 성읍민속촌을 함께 여행했다.

당시 최정은양이 "제주가 아름답다고 말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 실제로 그림같이 아름답고 사람들 인심이 후한 것 같아 기뻤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새록 떠오른다. 어머니 강씨 역시 평생의 소원인 제주여행을 하도록 도움을 준 나와 주변에 연신 머리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국일보에 처음으로 이들 모녀의 딱한 사연이 소개된 이후 각계서 성금과 온정이 잇달았고,



암투병 홀어머니 위해 9년간 병수발
삼중 스님, 모금 및 제주 여행 주선
자신 일기 묶어 눈물의 수기집 펴내



▲삼중 스님의 주선으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평생 소원인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한 소녀가장 최정은 양 (삼중 스님 오른쪽).

◀최정은 양이 그동안 일기를 묶어 펴낸 책 표지.

MBC가 어린이날 특집으로 〈인간시대〉를 통해 〈슬프디 슬픈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은이의 애틋한 사연을 다시 소개하기도 했다. 정은이는 선생님의 지도로 책도 펴냈다. 〈슬픈 숲에서 부르는 노래〉가 제목이었다. 25개 소 제목으로 구성된 책 속에는 어린 정은이의 절망과 희망,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

세상에는 무책임한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혜택과 보호받지 못하고 그늘에서 정말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 사회는 껴안고 보듬어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다. 정은이의 해맑은 얼굴을 처음 대했을 때 그 애가 처한 처철한 어려움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은이의 상황을 알고나서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감동하기엔 너무 큰 짐과 무게였는데도 정은이는 어른들도 갖지 못했을 용기와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정은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곁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가 정은이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지극한 효심, 천진난만한 보살심. 정은이는 분명 천진불심의 화신이었다.

그 이후 어머니도 기적적으로 소생했다고 들었다. 지금은 연락이 끊겼지만, 아마도 정은이는 이제 4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딘가 어린날 지극했던 효심과 보살심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발원해 본다.

정리=김주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애독자와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름달처럼 행복 가득한 추석 되세요

현대불교신문을 후원해주신 분들

강갑순 강금분 강다연 강도분 강명옥 강문자 강민수 강민주 강복자 강봉석 강성우 강성호 강수옥 강순복 강순희 강영내 강영숙 강윤창 강은채 강인옥 강일순 강임순 강정숙(2) 강춘계 강호순 강화자 고명숙 고미숙 고은영 고은정 고은주 고한순 공주학림사 공평근 곽민정 곽민준 곽순정 곽은선 곽춘자 곽한영 구본곤 구본국(2) 구자삼 구제근 구하나 구하연 구함자 권갑남 권귀숙 권규열 권도현 권명희 권민진 권영숙 권영자 권익중 권정숙 권정애 권정화 권태은 권혁명 권형상 권효심 김경국 김경숙(4) 김경순(2) 김경영 김경운 김경자 김경태 김경화 김경훈 김광현 김군자 김귀임 김규도 김규석 김근영 김금란(2) 김금옥 김금자 김기석 김기준 김기홍 김길봉 김나은 김남규 김남희 김대근 김대석 김대진 김덕임 김도형 김동우 김동혁 김만순 김명란 김명선 김명순(3) 김명아 김명옥 김명희 김무연 김무재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 김미란 김미래 김미숙(2) 김미원 김미지원장 김민규 김민근 김민선 김민자 김민주 김병호 김병훈 김보련 김보인 김보현 김복남 김부원 김상덕(2) 김상원 김상재 김서분 김서현 김선식 김선엽(2) 김선옥 김선자 김성기 김성미 김성용 김성자 김성준 김성지 김성태 김성호 김세영 김소정 김수민 김수옥 김수진 김수현 김숙이 김숙임 김숙자 김숙희(3) 김순남 김순득 김순복 김순봉 김순자 김순희(2) 김승재 김시경 김시자 김신득 김신숙 김안옥 김애리 김애자 김양민 김양순 김언희 김연수 김연옥(4) 김염순 김영규 김영봉 김영석 김영선 김영숙(2)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2) 김영주 김영팔 김영해 김영희 김예희 김옥선(2) 김옥수 김옥희 김용동 김용락 김용만 김용석 김용섭 김용숙 김용순 김용호 김용환 김우조 김원순 김원익 김유미 김유민 김윤관 김윤순 김윤자 김윤중 김윤환 김은숙(2) 김은재 김은주(2) 김은지(2) 김은하 김응태 김의순 김의식 김인태 김인형 김장원 김재방 김재예 김재훈 김재희 김정단 김정덕 김정렬 김정례 김정숙(5) 김정아 김정애(5) 김정옥 김정훈 김정희(2) 김제성(2) 김종구 김종금 김종선 김종숙 김종순 김종영 김종학 김종현 김주한 김준 김준혜 김지예 김지원 김지함 김지현 김지혜 김진금 김진남 김진영 김찬수 김찬영 김찬율 김철수 김철종 김추자 김춘규 김태균 김태수 김태숙 김태오 김택곤 김학수 김한솔 김향숙 김현국 김현신 김현아 김현주 김현화 김현희 김형두 김형준 김혜경 김혜원(2) 김혜현 김혜희 김홍록 김화남 김화일 김효상 김희경 김희봉 김희섭 김희숙 김희자 김희준 김희진 나광희 나귀례 나근수 나미숙 나준식 나홍열 나홍용 남금자 남선자 남정현 노만수 노미자 노병철 노성희(2) 노실호 노영애 노현주 노호현 노효정 논술문화 대각사 대광사 도양순 도예린 도이환 도주양 라귀례 라영미 류계옥 류매리 류석권 류성열 류현실 명을식 무원주지스님 문경숙(3) 문관호 문명숙 문미경 문미숙(2) 문병현 문선희 문성현 문수진 문수홍 문순옥 문영희 문임숙 문재근 문점숙(2) 문정희 문지현(2) 문형자 문희자 민상홍 민숙자 박강숙 박건웅 박경수 박경숙 박경순 박경애 박경환 박경희 박공임(2) 박광순 박기섭 박나리 박남순 박도룡 박말이야 박명남 박명순 박명옥 박명희(2) 박무곤 박미경 박미선(2) 박미자 박미현 박미희 박병혁 박봉영 박봉원 박부억 박분름 박상섭(2) 박선미 박성가 박성례(2) 박성수 박성열 박성용 박소진 박수영 박수정(2) 박숙자(2) 박숙희 박순연 박순옥(2) 박순이 박순임 박순혜 박양순 박연신 박연희 박영숙 박영순 박영식 박영애 박영우 박옥경 박옥남 박옥순 박용숙 박용운 박유철 박은우 박은주 박응순 박임선 박장미 박재명 박재석(2) 박재호 박정남 박정노 박정민 박정부 박정선 박정숙(3) 박정자(2) 박정희(3) 박종림 박종수 박종숙 박종순 박종임 박종화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차선 박창규 박창심 박채옥 박철홍 박춘자 박태수 박태은 박해소 박해일 박현동 박현숙 박형채 박혜경(2) 박혜선(2) 박혜성 박혜진 박효미 박훈 박홍국 박희복 박희순 방명극(2) 방명섭 방문화 방성자 방순자 방장수 방태균 배경자 배명옥 배복순 배삼순 배수은 배숙자 배영숙 배윤자 배은호 백광수 백길수 백미선 백수정 백순향 백승숙 법보시 변영자 변영희 변융태(2) 변주연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지원청년회 상현스님 서귀옥 서미경 서미옥 서민자 서봉군 서상덕 서상옥 서송자 서영숙 서영호 서은애 서인숙 서점옥 서정선 서정우 서정자 서주희 선덕스님 설영수 설해인 성기은 성낙두 성말순 성민기 성민서 성민자 성병준 성불사주지스님 성태용 소명남 소충호 손광자 손문철 손윤기 손정순 손정애 송금희 송동호 송병권 송복순 송상용 송상욱 송선순 송선화 송솔이 송숙자 송순희 송용관 송은경 송인서 송재혁 송정연 송정자 송춘자 송현헌 송호진 신경자 신경희 신길주 신남선 신덕근 신미향 신선희 신성완 신수영 신순희 신양자 신영찬 신용억 신인임 신인홍 신재근(2) 신재민 신정희 신조현 신주호 신진희 신현준 신희순 신희정 심경우 심경희 심성학 심숙자 심숙희 심여진 심영내 심영애(2) 심영자 심운미 심원식(2) 심유진 심재만 심재화 심춘자 심현보 안경호 안석순 안선환 안수홍 안순환 안승원 안연홍 안영옥 안은덕 안의자 안재필 안정은 안중희 안지순 안창순 안충헌 안혜자 양미옥 양세욱 양소영 양승철 양애순(2) 양연희 양영모 양영수 양영순(2) 양영철 양우창 양현임 양현주 양호성 양희성(2) 양희원 엄미경 엄상호 엄태영 연영자 염종희(2) 염홍수 예태순 오경환 오공표 오막순 오명환 오미경 오복순 오신재 오영숙 오영희 오용근 오인숙(3) 오재영 오정애 오정희 오준탁 오지영(2) 오지훈 오필선 오희숙 옥선영 옥영식 왕상헌 우상인 우지예 원봉희 원은선 유강수 유경자 유경하 유규상 유매리 유순자 유영복 유윤정 유은정 유을순 유재기 유정숙 유지호 유찬형 유창연 육성희 윤경호 윤구영 윤기홍 윤나영 윤동환 윤병덕(3) 윤상기 윤상민 윤석범 윤선애 윤수연 윤수영 윤숙경 윤순이 윤순희 윤승주 윤연수 윤연주 윤영상 윤영선 윤영숙(2) 윤영옥 윤옥현 윤용석 윤원자 윤정상 윤정숙 윤정일 윤향숙 윤혜소 윤희원 이강만 이경례 이경숙 이경아 이경애 이계동 이계숙 이곡점 이광석 이광수 이광숙 이광훈 이군자(2) 이근기 이금숙 이금옥(2) 이금재 이기순 이기정 이기탁 이기현 이나금 이낙영 이남심 이남희 이달근 이대섭(3) 이대희 이동건 이동진(2) 이랑애 이말순 이명숙(2) 이명순 이명옥(4) 이명희(2) 이미라 이미숙 이미애(2) 이미옥 이미자(2) 이미화 이민서 이병제 이병현 이보편 이복동 이복성 이복희 이봉희 이상국 이상락 이상민 이상숙 이상심 이상일 이상태 이상필 이상호 이서하 이석택 이선안 이선영 이선희 이성경 이성우 이성임 이세달 이수영 이수자 이숙경 이숙희 이순자(4) 이순희(3) 이승룡(2) 이승애 이승화 이시용 이양우 이어영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연옥 이영득 이영리 이영숙(2) 이영순(4) 이영자 이영재 이영희 이영희 이옥수 이옥희 이왕구 이용법 이용자 이우순 이원상 이원식 이원칠 이원희 이유순 이은재 이은정 이은희(2) 이익수 이인상 이재봉 이재숙 이점선 이정옥 이정자(2) 이정재 이정조 이정지붕스님 이정형 이종락 이종섭 이종애 이종옥 이종의 이종협 이주원 이주환 이중기 이지성 이지숙 이지은 이지현(2) 이진성 이진숙 이진아 이진주 이진후 이창수 이채옥 이철규 이춘근 이춘형 이춘희 이태권 이태연 이한용 이해선 이해천 이향림 이향숙 이향순 이현미 이현주 이형신 이혜권 이혜숙 이혜영 이호진 이화자 이화행 이훈노(2) 이홍숙 이희두 이희숙 이희정 이희주 일인 임경옥 임문숙 임보라 임선희 임실결 임양희 임옥빈 임인자 임재환 임종구 임춘희 임희석 장규숙 장금실 장동희 장명숙 장명순 장명호 장미숙 장미순 장미자 장성윤 장수연 장양경 장양순 장영숙 장윤영 장인권 장지형 장진성 장해기 장현만 장혜경 장혜선 장희숙 전명국 전명아 전미자 전병수 전복순 전상은 전선예 전성진 전소윤 전순재 전순조 전영옥 전은범 전정애 전종학 전진수 전창식 전현주 정갑임 정경옥(2) 정고비 정군자 정금란(2) 정금희 정길동 정덕남 정덕수 정동하 정뭉화 정미영 정미화 정보민 정복순 정분선 정상윤 정서영 정서은 정선옥 정선자 정선희 정설매 정성남 정성택 정숙점 정순남 정순덕(2) 정순자 정연주 정연희 정영기 정영숙 정영신 정영천 정예옥 정옥선 정옥화 정완석 정용래 정욱진 정은영 정의진 정이자 정인숙(2) 정인자 정일극 정재인 정점숙 정정숙 정정애 정정자 정정희 정종노 정종원 정지경 정진권 정창남 정춘복 정태순 정필윤 정학진 정해림 정현욱 정현정 정훈택 정희경 조경순 조경화 조동래 조동조 조민규 조봉순 조봉천 조비송 조상원 조성국 조성욱 조성일 조신제 조애순 조약식 조영남 조영숙 조은규 조의연 조장현 조재규 조재윤 조정남 조정자 조정해 조준석 조철환 조필순 조필현 조혜경 조혜정 주대옥 주미숙 주미정 주정숙 주춘례 주현숙 진동석 진말련 진일스님 차순자 천명순 천명혁 천병길 천상봉 천수만 천영기 천윤덕 천주현 청무스님 최갑식 최경자 최계숙 최낙식 최난진 최남홍 최동욱 최미선 최미숙(2) 최병락 최복순 최봉희 최성희 최순섬 최순이 최순자 최시자 최아리 최영숙 최영진 최영희 최용자 최우성 최유숙 최유정 최윤희 최은희 최자현 최잠숙 최재순 최재원 최재혁 최정기(2) 최정미 최정임 최종대 최종열 최주선 최준영 최진규 최진붕 최춘길 최춘웅 최칠녀 최학우 최행자 최현창 최현희 최혜숙 최화자 최희숙 최희승 표선옥 하강수 하성권 하을희 하재한 학림사 학림사오등선원 한강복 한경 한경호 한계연 한광호 한기운 한기준 한동원 한마음선원강릉지원 한마음선원공주지원 한마음선원광명선원 한마음선원광주지원 한마음선원대구지원 한마음선원목포지원 한마음선원문경지원 한마음선원부산지원 한마음선원안양본원 한마음선원울산지원 한마음선원제주지원 한마음선원중부경남지원 한마음선원진주지원 한마음선원청주지원 한마음선원통영지원 한마음선원포항지원 한명선 한명수 한복희 한본국 한성욱 한성호 한세진 한영애 한영찬 한윤심 한윤진(2) 한은섭 한인식 한정교 한정숙 한지연 한지이 한진송 한혜경 함미옥 함영자 향부향 허경순 허경식 허두 허두련 허명숙 허복영 허수자 허애령 허애순 허연자 허의숙 허인성 허재균 허재승 허점둘 허진순 허추자 허태환 허필창 현남심 현복자 현춘심 혜관스님 혜무스님 혜벽스님 혜솔스님 혜수스님 혜연스님 혜용스님 홍길용 홍미화 홍민자 홍순 홍순미 홍순혁 홍순형 홍윤자 홍춘자 황경숙 황광접 황논철 황선자 황성원 황수영 황순희 황용숙 황인실 황인욱 황인희 황정연 황태숙

※이름은 가나다순

후원동참문의 02-2004-8200, 02-2004-8212